금주의 법구-〈법구경〉
쉬지않고 계속하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저 시냇물이 마침내 바다로 가듯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7월 2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11호 2016년 8월 24일 수요일

1인 1수행법 생활화로 불교 신행 혁신 이끈다

조계종 7대 포교원, 장고 끝 종책 발표

'신행 장려' 움직임 맞춰
깨어있는 불자 육성 초점
1회성 이벤트 사업 지양

새로운 불자상 정립에 집중
올해 말까지 신행 로드맵 구축
포교지도 완성도 주요 사업

지난 3월 새 포교원장에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이 취임하면서 변화의 기대를 모았던 조계종 포교원이 5개월 장고 끝에 포교종책을 내놨다. 혁신적인 것은 없었지만 지지부진한 불자들의 신행을 혁신한다는 게 모토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8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7대 포교원 포교종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서 포교원은 제1기조로 신행혁신운동과 새로운 불자상 정립을 내세웠다. 이는 세간에 확대되고 있는 불자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등과 궤를 같이한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올해 말까지 신행혁신운동 로드맵을 구축하고, 불자상 정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행지침을 마련해 일선사찰에 전달하고, 전법중심도량을 신행혁신추진도량으로 삼아 2019년까지 200개 사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아 실천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종법령을 재정비해 불자들의 신행운동을 지원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밝혔다.

지홍 스님은 "자리와 이타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도방법과 1인 1수행법을 생활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체적인 불자, 마음이 평화로운 불자, 앎과 수행이 일치되는 불자, 사회 속에서 깨어있는 시민보살로 대승행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불자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포교원의 종책기조는 수행과 지계에 대한 불자들의 낮은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 조계종불교사회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경전을 읽지 않는 불자가 절반을 넘었고, 신앙생활 만족도 역시 불교가 최하위였다. 따라서 비불교인의 불교유입보다 불자를 더 불자답게 하는 내실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이벤트성 행사도 지양키로 했다.

포교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전법현장서 활용되는 콘텐츠를 발굴 · 공유해 전국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타종교에 비해 뒤처진 뉴미디어를 활용해 새 포교 콘텐츠 개발에도 나선다. 또한 신도교재 개편과 포교단체의 자립 · 자율성을 강화해 재가불자들이 전법 주체가 되도록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전법대안 마련과 포교지도 구축도 주요사업으로 정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와 공동으로 '대학생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대불련-군종교구-대한불교청년회로 이어지는 신행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각종 공모전 활용, 대학 무료 템플스테이를 통한 신입생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포교지도는 현재 부서별로 정리해놓은 지역사찰 · 불교대학 · 법회 · 복지시설 · 명상센터 등 현황을 취합,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포교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활용된다.

지홍 스님은 "7대 포교원은 일회성 행사를 최대한 지양하면서 향후 10~20년을 내다보고 씨앗 뿌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다만 필요성이 제기되는 일이라면 화주를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행사를 치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멤버십신도증 발급자가 지난해 기준 27만명에 불과하고, 교무금 재납부율 또한 20%대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관리부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기 포교차장은 "사찰신도로 등록된 불자가 종단에는 등록되지 않으면서 괴리감이 발생하는 일이 잦다.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 교무금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고민하고 있다"며 "미진한 부분을 드러내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대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사고
본사 사옥 이전
현대불교신문사가 신사옥을 마련해
8월 26일 이전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진각종, WFB 서울총회 개최 준비 본격화

9월 26~30일 총인원 일원서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이 주최하는 제28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서울총회가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각문화총인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총회를 위해 진각종은 총회 홈페이지(http://28wfb.org)를 개설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안내, 통역, 안전요원 등이며 간단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8월 말 최종 발표된다. (02)942-0144~5 **김주일 기자**



"한국불교 새롭게 하는 원동력 되길"

한국에서 용맹정진한 외국인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화계사는 8월 18일 하안거 해제를 기해 서울 홀리데이인 성북점에서 공승법회를 개최했다. 공승법회는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100명의 스님들이 안거 후 함께 제를 베풀고 재가자들은 공양을 올렸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화계사는 매년 안거 해제 후 법회를 열고 있다. 화계사 신도들이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 등 스님들에게 떡과 과일이 담긴 공양물을 올리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화계사와 무상사 국제선원에서 수행정진한 외국인 스님 40명 등 50여 스님들과 신도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유명인 발언에 매몰… 불자 도리 아냐"

오현 스님, 해제 법문서 현 세태 비판… "거품 말고 실상 보라"

"제가 무문관에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 '한국 불교는 허례허식에 물들고 돈에 물들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금전에 물들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앞에 앉아 있는 선방 수좌 스님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 오후 불식하며 3개월간 용맹 정진한 과정을 들어보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항간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선방서 호의호식하지 않습니다. 잠도, 밥도 모두 한 방서 지내며 함께 자고 먹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내빈들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루도 못 버티실 겁니다."

신흥사 조실 무산 오현 스님〈사진〉이 8월 16일 인제 백담사 검인당서 열린 조계종 3교구본사 신흥사 · 종립 기본선원 하안거 해제법회서 법문을 통해 최근 한국불교를 비판한 현각 스님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해 주목을 끈다.

무산 오현 스님은 "전국 제방 선원서 지내는 스님들을 세어보니 정확히 2202명인데, 등록된 사람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아마도 3000명이 넘는다. 이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며 "우리 사회가 유명대학 출신이라든지, 신문에 글 좀 싣고 하는 지식인들이라면 '이상한 소리'를 해도 매몰돼 끌려가는데, 이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스님은 "특히 지식인들이 유원지에 놀러가서 먹다 남은 쓰레기를 그냥 아무데나 버리듯이 한국불교를 말한다. 그러면 유원지는 곧 더러워져서 썩은 거품이 부글부글 일게 된다"면서 "사람들은 그 부글부글 이는 거품만 보고 스님들을 판단해 금전에 물들었다고 평하는 것이다. 바깥 거품의 면모만 보고 함부로 매도한다"고 성토했다. "너무 황당한 일이기에 이렇게 내가 목소리 높여서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무산 오현 스님은 대중들에게 실상을 볼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겉에 있는 거품을 보지말고 실상을 보라"면서 "아지랑이나 거품을 보고 그것이 실상인줄 알면 안된다. 산에 물이 흐르면 흙탕물만 보지말고 바위 아래 맑고 고요한 물을 봐야 한다. 불법(佛法)은 그렇게 돌덩이 밑으로 사자전승(師子傳承)하며 흐르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각 스님 발언 염두한 경책
3천여 수좌 용맹정진 '희망'
"겉 보고 한국불교 매도말라"

조계종 제 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와 백담사는 8월 16일 하안거 해제법회를 조계종립 기본선원이 자리한 인제 백담사 검인당에서 봉행됐다.

한편, 하안거 해제일인 8월 17일, 대구 동화사와 합천 해인사 등의 조계종 전국선원은 하안거해제법회를 열고 안거를 마무리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정리한 불기 2560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100개 선원(총림 8곳, 비구선원 59곳, 비구니선원 33곳)에서 총 2202명의 대중이 방부를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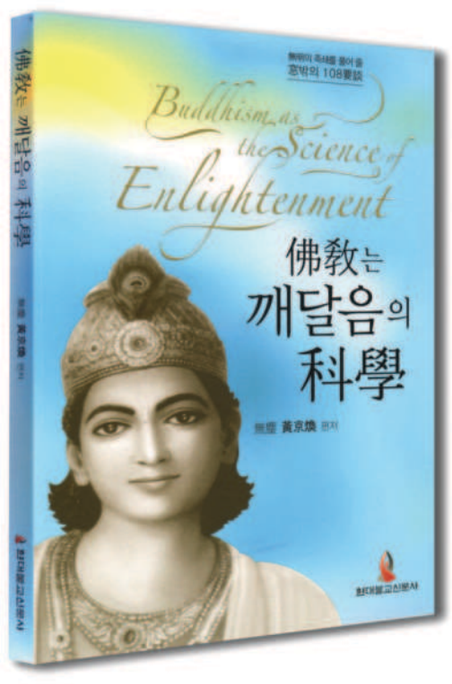
만행을 앞두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한 각 총림 방장 스님들은 수좌 스님들을 격려하는 법어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해제일에 상관하지 말고 다시 발심해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거는 스님들이 매년 여름과 겨울 석달동안 산문밖 출입을 끊고 오로지 화두수행만을 하는 수행문화로 북방불교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종정 · 총림 방장 하안거 해제법어 7면〉

인제 백담사=김주일 기자

근본불교의 마르지 않는 샘에서 길어올린 영원한 자유인의 길



무진 황경환 편저 | 신국판 | 280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3

無明의 족쇄를 풀어 줄 窓 밖의 108 要談
佛教는 깨달음의 科學
Buddhism as the Science of Enlightenment

황경환은 하늘이 손수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가 펴낸 수상집(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의 원고를 읽어 보며 불교의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나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가 원효나 의상 같은 고승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칸트나 헤겔 같은 논리를 가졌다는 말도 아니지만, 신라의 옛 서울에 터를 잡고 작은 사업을 하나 일으켜 최선을 다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본받으려는, 또 하나의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인간 황경환의 모습이 아름다워 이 글을 쓰는 바이다.

–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무진 황경환 선생이 엄선한 주옥같은 108요담을 읽다보면, 많은 경전을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전에 대한 깊은 통찰에도 새삼 옷깃을 여미게 된다.

– 퇴현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

이 책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근본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그가 인용한 불설은 주로 5부 니까야라는 문헌인데, 부처님의 초기 음성에 대한 가장 가까운 내용들이다. 둘째는 불교 사상의 현대적 해석이다. 과학적 지식이나 사회적 요청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풀어쓰려고 하는 노력이 값지다. 따라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겠고, 또 익숙하게 불교적 신행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鄭柄朝 (동국대학교 교수, 전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거친 4해(四海)를 오온(五蘊)의 쪽배 타고 노젓는 뱃사공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파(世波)가 그대 앞에 닥친다 해도 그것에 정복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오직 이 길을 꿋꿋이 걷고 또 걸어서 언젠가 그대가 의지하고 있는 오온의 쪽배가 가라앉기 전에 반드시 법을 보고 법을 알아 도(道)와 과(果)를 성취토록 하소서."



– 발원문 중에서

주문
054)744-8211~2
팩스
054)744-8213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총판 운주사 02-3672-7181

천태종 고려대장경 판각 불사 시작

천태종이 고려대장경 초조본 〈첨품묘법연화경〉 전본(全本) 총 233장과 외장본 일체를 판각하는 각성(刻成) 불사에 돌입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8월 13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 법당서 '고려대장경 초조본 〈첨품묘법연화경〉 각성불사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고려대장경 초조본 〈첨품묘법연화경〉 전본(全本) 총 233장과 외장본(外藏本) 판각은 대장경문화학교(교장 안준영)가 맡아 2019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고려대장경 초조본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국민을 화합하고, 국난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염원으로 조성됐다"며 "대장경 조성은 부처님 가르침을 봉대하고 전하는 매우 경건한 일이자 한 시대의 정신문화를 총결하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첨품묘법연화경〉 각성불사는 △벌목 △다듬기 · 삭히기 △소금물에 삶기 △판하본 제작 △판각 △오탈자 △마구리달기 △장석달기 △방자못 고정 △인경 △제본 등 복잡한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성역화불사 모연 캠페인 성료

조계종성역화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는 8월 17일,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모연릴레이 캠페인'을 회향했다.

이번 캠페인은 6월 29일부터 50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6,866만원이 모금됐다. '모연릴레이 캠페인'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8명의 스님(중앙종회 의장 성문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스님,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혜총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념 스님,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총도감 지현 스님,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이 문자메시지로 캠페인 안내문을 전달하면 신도들이 다른 신도 3명에게 알려가는 릴레이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캠페인 동참자 중 경북 봉화의 한 불자는 자신과 인연이 깊은 스님이 성역화불사에 나서는 것을 보고 50여 불자에게 권선해 함께 동참했다.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에서는 10월경 제2차 전국사찰동시초하루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며, 12월에는 모연동참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初發心 잊은 불교, 차별을 낳다

현각 스님 발언으로 본 한국불교– ② 계급화 된 차별문화

행자시절 고압적 분위기부터
비구 · 비구니 차별적 대우까지
불교계 산재한 '변질된 유교문화'

사부대중 역할만 차이 있을 뿐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같아

 # 호남권 사찰에 있는 A스님은 과거 출가 후 동국대 재학시절 있었던 황당한 일을 기억한다. 선배스님들이 자신과 동기들에게 정각원까지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는 등 불합리한 일을 강요한 것이다. 선배가 시켜서 하릴없이 했지만 고압적인 분위기에 그 이유는 물을 수 없었다.

 # 비구니 B스님은 은사스님과 어느 사찰을 방문했다가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은사스님과 함께 비구스님에게 인사차 절을 했는데 그 스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절만 받았다. 은사스님보다 법랍이나 세납 모두 한참 적은 비구스님이었기에 한편으론 괘씸했다.

현각 스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가 어떻게 조선시대 정신에 어울리는 교육으로, 합리주의 바탕에서 자란 서양인들을 (한국불교에) 보낼 수 있을까"라고 썼다. 그러면서 '유교적 관습 없는 환경, 남녀 · 국적 차별 없는 정신'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한국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외국승려의 이기적인 시각"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현각 스님의 지적은 앞서 소개한 일화와 같은 '변질된 유교문화'에 대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前 조계종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이를 '일제잔재인 군대문화',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자유로운 토론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꼬집었다.

조계종의 한 교구본사서 행자생활을 하다 속세로 돌아온 C씨는 "행자들 사이에서는 행자반장의 말이 곧 법"이라며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행자반장이 혼내면 대꾸조차 못하는 분위기다. 이곳이 절집인지 군대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강압적인 절집문화는 행자생활을 경험한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과거에는 후배 행자에게 일을 떠넘기고 대접만 받으려 하는 이에게 '조실행자' '방장행자' 등 웃지 못할 꼬리표도 붙었다.

비구중심 승려문화

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차별문화는 비구와 비구니, 출가와 재가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먼저 비구와 비구니는 '비구니 팔경법'과 '정법 500년 감소설' 등으로 갈등을 빚는다. 여성 출가를 반대하던 부처님이 양모인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의 출가를 허락하면서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진위여부 등을 놓고 학자 간에도 이견이 있다. 한국불교가 승려중심, 비구중심 성격을 갖게 된 것도 이 같은 영향을 배제하긴 어렵다.

문제는 이런 경전내용이 정설처럼 전해져 비구니에 대한 차별대우와 인식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비구니의 참종권 제한이 대표적이다. 조계종의 경우 비구니는 중앙종회의원 81석 중 10석만이 배정돼 있으며, 총무원장 선거인단 321명 중에서도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1994년 종단개혁과 함께 신설된 것으로 이전에는 비구니에게 투표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종정과 원로의원 역시 비구만 가능하다. 때문에 중앙종회서 비구니 권리 신장을 포함한 종법개정안이 부결됐을 때 비구니종회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안타까운 점은 재가불자 사이에서도 비구니보다 비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짙다는 것이다.

비구니 B스님은 "어느 재가불자는 '비구니스님한테 천도재를 지내니까 비구스님보다 조상 천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그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전반적으로 비구니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지난 3월 열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서 "총무원장 직선제를 하면 비구니스님들이 미는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어 종단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구니들의 세력화를 우려한 것을 미뤄볼 때 비구니 권리 신장에 대한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 · 재가 간 보이지 않는 벽

이외에 출가자와 재가자 사이 보이지 않는 계급으로 인한 마찰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회서 이사 중 한 스님이 부회장인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에게 "진각종은 승가냐 재가냐" 물으며 '스님 대하는 재가의 태도'를 강요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한 일선 사찰에서 나이 지긋한 신도에게 손아랫사람 대하듯 반말을 하는 스님의 발언이나 종무원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모습 등은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경기도 B사찰 신도인 이 모씨는 "재가자들이 스님을 수행자로서 존경하는 모습을 간혹 웃어른이나 직장상사 대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부처님께서는 오직 행위에 의해서 귀천이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몇몇 스님들은 신분으로 결정된다고 믿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경준 前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2006년 9월 〈불교평론〉에 '재가자는 출가자에 비해 하열한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글에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궁극적 목표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그 역할이 나눠져 있을 뿐"이라며 "불교발전은 불교 교단의 원형인 '출가-재가'의 이원구조를 적절하고도 창조적으로 살려나갈 때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차별문화의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초발심 정신'을 꼽았다. 스님은 본지통화서 "기본적으로 한국불교가 세속에 물들어 출가정신인 초발심을 잊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 때문에 스님 노릇을 하고, 왜 불제자가 됐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진정한 자성과 쇄신을 통해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남 · 북 대화, 불교계선 포기 없다"

8월 15일 '한반도 평화기원 법회' 대화 · 민간교류 강조

광복 71주년 기념 한국 불교 지도자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발원했다.

8월 15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가 주최하고 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이하 민추본)가 주관하는 광복 71주년 기념 '8.15 한반도 평화기원 법회'가 봉행됐다. 이 자리서 불교계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언문을 발표했다.

민추본 본부장 법타 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제언문서 종단협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은 공히 상대를 긴장하게 만드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화와 협상이 때론 답답하고 순탄치 않을 수 있을지언정, 이를 포기한다면 다툼만이 있을 뿐"이라며 "판문점 남북 고위급 접촉과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더불어 남북관계의 우호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 교류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도 민간교류 단절에 대한 안타까워했다. 종단협 부회장 홍파 스님이 대독한 봉행사를 통해 "분단으로 인해 고향과 가족들과 떨어져 생사도 모른 채 살아야만 하는 이산가족들의 사연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의 비극이며, 큰 아픔"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불교 역시 불단과 전쟁의 참회 속에서 무수한 불교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1700년 유구한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단절 · 왜곡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8월 15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광복 71주년 기념 '8.15 한반도 평화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무기계약' 제도 도입에 논란

조계종 총무부 8월 17일 해명…"차별 없다"

조계종이 중앙종무기관에 '무기계약' 제도를 도입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계종 규정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은 '계약의 기간이 없고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이다. 하지만 무기계약의 특성상 정규직과 임금 및 근무조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무기계약직 도입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자 조계종 총무부는 8월 17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조계종은 7월 20일 종무회의를 통해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채용 내규를 담은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브리핑에 참석한 총무부 관계자는 "종단 예산과 인건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군을 신설한 것"이라며 "복리후생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호봉 및 급여체계가 동일하며 경조사비, 양육지원비, 학자금 지급 등도 같다. 다만 정규직은 직급이 1~7급인 반면 무기계약직은 5~7급으로 한정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직급 승진이 5급에서 멈추며 이에 따른 호봉 상승도 제한된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채용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조직 내 위화감 조성과 사회노동분야에서 조계종의 대외적인 신뢰성에 타격이 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은 8월 16일 조계종 내부 통신망의 공개글을 통해 "종무원들의 노동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절차를 밟아 중지를 모으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기계약직은 차별성을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한 사전 논의가 필요했다고 본다"며 노사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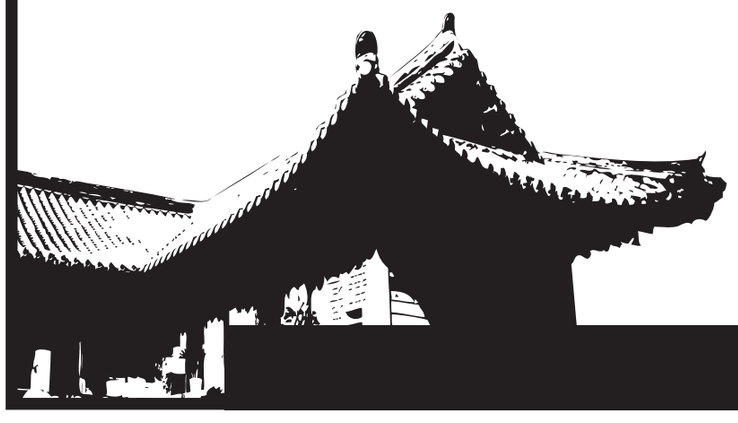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도난 옥천사 나한상, 제자리를 찾다

소장자, 12일 옥천사에 무상 기증… 본지 보도 2달여 만에 '성과'

1988년 도난됐던 옥천사 나한상 2점이 다시 옥천사로 돌아왔다. 이것으로 총 7점의 도난 나한상 중 4점이 환수돼 이제 3점만이 남았다.

고성 옥천사(주지 진성)는 "지난 8월 12일 소장자로부터 아무런 조건없이 도난 나한상 2점을 기증받았고, 이를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1차 이운해 문화재 상태를 감정받았다. 현재는 다시 이운해 사찰 성보박물관 수장고로 모셨다"고 8월 16일 밝혔다.

옥천사 나한상이 다시 환지본처하는 데는 사찰과 학계의 공조 노력이 컸다. 조선 후기 최고의 조각승 색난 스님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옥천사 나한상은 1988년 7구가 도난됐고, 이중 2점은 2014년 은닉한 사립박물관장이 체포됨으로써 환수조치 됐다. 5점의 나한상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가 6월 18일 열린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나왔다. **〈옥천사 나한상 관련 기사 본지 1103·1106호 보도〉**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등이 현재 도난 중인 5점의 사진을 학계에 최초로 공개한 것이다. 이들 사진은 문화재 전문가 안귀숙 박사가 1980년대 전국을 다니며 촬영한 것으로, 옥천사 나한상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다. 특히 이들 사진은 조계종이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도 없는 사진으로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도난 문화재 환수, 당연한 일
얼굴·이름 등 절대 밝히지 말라"

동북亞 세미나서 진본 사진 공개
사찰·학계 공조가 낳은 선행 모델

사진이 공개되면서 나한상 찾기는 좀 더 용이해졌다. 사진 공개된지 25일만에 옥천사 측은 2013년 제주 본태박물관 기획전 '다정불심(多情佛心): 조선후기 목동자'에서 도난 나한상 2점이 대여·전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옥천사는 소장자를 수소문했고, 그 결과 소장자는 무상기증을 결정했다.


고성 옥천사는 8월 12일 소장자로부터 도난 나한상 2점을 무상 기증받았다. 이로써 7점의 도난 나한상 중 4점이 제자리를 찾았다.
사진 제공=옥천사 성보박물관장 원명 스님

소장자는 무상기증을 하면서 "도난 문화재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얼굴과 이름 등을 일체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도난 문화재 환수는 문화재 소장 사찰과 학계의 공조로 이뤄낸 성과이자 선행 모델이다. 옥천사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성보문화재 연구와 도난문화재 환수 등 상호 지원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사찰은 소장 및 도난 문화재에 대한 기초 연구 제공을,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영역과 안정적 연구 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협약 초기부터 화제가 됐다. 결국 협약으로 이뤄진 기초 연구가 도난 문화재를 환수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옥천사 성보박물관장 원명 스님은 "이번 나한상 환수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의 협약과 세미나의 역할이 컸다. 최선일 위원부터 연구소 관계자까지의 전폭적인 협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일선 사찰들의 성보 연구에 관심을 갖고 도난 문화재 환수에 나섰으면 한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외부에 있어 나한상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현재 나한전의 16나한상을 도지정문화재로 일괄 신청했다. 이를 위해 전문위원들이 방문하는데, 향후 보존 방안 등을 자문받을 예정이다. 보존처리가 완료되면 법회를 봉행해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20회 만해대상 수상자들이 시상식서 만해흉상을 앞에 두고 만해사상 실천을 다짐했다.

"21세기 만해, 평화와 행복 지속 전하길"

제20회 만해대상 시상식 8월 12일 성료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오원배)는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0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은 국제개발NGO단체인 로터스월드·청수나눔실천회, 만해실천대상은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스퇴거·마가렛 피사레크 수녀, 만해문예대상은 가수 이미자·이승훈 시인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유자효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은 손재현무용단의 축하공연과 만해스님 기념영상 상영, 손흥기 시인의 축시, 시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만해축전 명예대회장 보광 스님(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오늘 여섯 분의 수상자는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라며 "세상의 종이 되고자 하셨지만 모든 선한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세상의 보호자가 되셨다"며 치하했다.

이날 평화대상을 수상한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평등과 평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만해대상 수상을 계기로 만해스님의 실천적 삶을 미력하나마 계승하기 위해 더욱 용맹정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만해대상 시상식과 함께 만해스님의 사상과 문학혼을 기리는 '2016 만해축전'도 '생명·화해'를 주제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동국대 만해마을과 인제 하늘내린센터, 인제실내체육관 등 인제군 일원에서 열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학계 인사 모임 '생명포럼' 18일 창립

'생명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자'며 창설된 생명포럼의 창립식이 8월 18일 서울 종로 은덕문화원서 개최됐다. 생명포럼 공동대표단은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김영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좌교수(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선종 원불교 종사 등 종교계 및 학계 인사로 구성됐다.

생명포럼은 향후 △9월 하순 '4대강 재자연화 올바른 원전감시 체제의 구축' 주제 국회 세미나 △10월 14일 월정사서 '생물다양성을 넘어 생명존엄성으로' 주제 국제 세미나 △11월 중순 'GMO 문제 및 먹거리 안전 그리고 생명농사' 주제 세미나 △12월 중순 '종교별 생명정책 제안' 주제 세미나 등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2017년 상반기에는 '세계생명헌장' 초안을 작성해 반포하는 한편, 대선에 맞춰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생명정책 공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창립을 맞아 진행된 2차 세미나서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동물의 희생과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방식'을 발제했다. **〈관련 발제 27면〉**

박아름 기자

"4대강 잃고, 설악산까지 잃을쏘냐"

26개 불교계 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기자회견

"우리는 선조에게 물려받은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강을 잃고, 이제 또다시 산마저 잃는다면 어찌 선조를 보며 어떻게 후손을 대할 것인가."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26곳은 8월 17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26곳은 8월 17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교환경연대 등은 "2011년 환경부가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법적 보호종의 서식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기로 규정한 것을 스스로 어긴 조치"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0월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기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박 정부의 산지 관광활성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가 스스로 원칙을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불교환경연대 등은 지난 7월 26일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담당 공무원 2명이 사업 승인과 지역 여론 몰이를 위해 경제성을 부풀리고 멸종위기종의 서식 등 생태환경을 축소했단 의혹에 대해 "양양군은 용역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서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 내용을 부풀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양군이 지난 7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의하면 사업예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으로 책정된 것보다 127억이 늘어 587억 원으로 증가했다. 500억 이상이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양양군이 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단 의혹마저 제기됐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불교환경연대 등은 불교적 가치관과 관련 "그동안 말 못하는 멸종위기 보호 동식물을 대신해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지 못한 점을 참회하며, 앞으로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설악산과 그곳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 천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경언해, 훈민정음 발전의 견인차"

한국선학회 등 18~19일 '불교와 한글' 공동 세미나

조선시대 불경 언해가 훈민정음의 배포와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슬옹 인하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는 8월 18~19일 한국선학회·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훈민정음이 불교를 어떻게 보급됐는지를 고찰했다.

김슬옹 교수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보급하기 위해 △언해 중심 복합 전략 △실용성 △다중소통 전략 △교화 전략을 구사했다고 봤다. 이 같은 네 가지 전략이 실현되지 위해서는 불교의 힘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새 문자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산문체 문헌의 불경이 용이했으며, 피지배층과 소통하기에도 유교보다는 불교가 필요했다. 또한 훈민정음 보급과 동시에 종교를 통한 교화도 이룰 수 있었다.

김 교수는 "각종 불경 언해서는 언해의 규범 역할을 했고, 유교 언해서 발간 보급의 바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언집류 불교 문헌은 훈민정음 교육의 핵심인 한글 음절표 보급을 통해 훈민정음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불경 언해가 스님이나 지식인 위주의 보급 역할을 했지만, 진언집류는 민간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글 저변확대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와 한글, 한국어'(남기심, 연세대), '한글의 탄생과 불교사상의 언어'(노마히데키, 일본 명치학원대), '말뭉치로서의 한글대장경과 그 활용'(서상규, 연세대), '화엄경과 한글 번역'(신규탁, 연세대) '월인석보 어휘색인'(조의성, 동경외대), '훈민정음 표기법과 불전언해'(정우영, 동국대)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 절 수행!

청견 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생생한 경험담!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 스님의 신작!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이 그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며 체험한 이야기들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을 담았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르마킹 칼리지
매주 화~토 오후 2시
절 교육 및 수행 점검



청견 스님 지음 / 신국판 / 328쪽 / 값 15,000원

깨달은 공동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 전화 010-3487-0035 ● www.법왕정사.net ● 판매총판 : 운주사 02-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

일 주 문



JSA법당 상량식

정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스님은 9월 6일 오후 2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서 신축법당 무량수전 상량식을 봉행한다.



지장90일기도 회향

경선 부산 범어사 주지 스님은 8월 30일 오전 7시 범어사를 출발해 하동 쌍계사서 '지장90일기도 회향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교양대학 50기 수료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8월 23일 경내 청풍루에서 불교교양대학 제50기 수료식을 개최한다.



육군3사관학교 수계법회

돈관 영천 은해사 주지 스님은 8월 21일 육군3사관학교 충성호국사서 군장병 50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문태준 인문학 특강

월도 분당 대광사 주지 스님은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대광사 경내서 문태준 시인 초청 인문학 특강을 개최한다.



팔재계수계실천 법회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9월 24일 오후 5시 보은 법주사서 제14회 팔재계수계실천 대법회를 봉행한다.

"苦集 해결하는 힘, 그 속에 있다"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진흥원 창립 41주년 특강서

"사성제에서 멸도(滅道)가 아주 다른 곳에 있다고 믿고, 고집(苦集)에 사로잡힌다면 부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집을 해결하는 힘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을 내세우는 기독교와 이슬람과는 다른 세계관을 갖습니다."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8월 16일 서울 마포구 진흥원 빌딩 3층 법당서 '불교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특강은 대한불교진흥원 창립 41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됐다.

김규칠 이사장은 특강서 불교의 기본 교리인 사성제를 바탕으로 불교적 세계관의 기본특징 풀어냈다. 김 이사장은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듀카(苦, dukka)고, 벗어나게 하는 것도 듀카다'고 설명하셨다"면서 "즉, 속의 것을 있는 그대로 깊이 보면 문제가 되는 현상에 그것을 해결할 힘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성제 바탕한 불교적 세계관

"부처님 말씀 피상적 해석 말고

현실 이해해 문제해결 나서야"

그는 이어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지구 표면에 드러나는 현상만 현실이 아니고, 내부의 변화도 현실이지만 우리는 단순히 안 나타나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처님 말씀을 피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고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을 뜻한다면 멸도는 쉽게 알아낼 수 없는 완벽한 현실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욕망으로 대변되는 삼독 중 '탐(貪)'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욕망은 존재론적인 것과 소유론적인 것이 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은 것은 존재하기 위한 건강한 본능이기에 탐착이 아니다"며 "고도로 진화된 인간에겐 각각 특별함이 있고, 이것이 쌓이면 고유함이 된다. 불교의 여래장 사상과 통하는데 카스트에 따른 숙명론만 있던 당시에 이 같은 사상을 갖는다는 건 굉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끝으로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뭐가 뭔지는 제대로 알고 나서 머물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게 돼 자기 진영논리를 펼치지 않는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현대사회 문제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사진으로 본 광주연등회

광주불교연합회, 빛고을관등회 사진전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8월 17일 광주 증심사서 '2016빛고을관등회 사진전-행복한 날 모두가 하나 되는 날' 개막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 봉축행사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이 전시회는 오는 12월까지 광주지역 사찰 등을 순회하며 이어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프리카학교에 정성을…"

법기문중 문도회, 아프리카 학교기금 1000만원



금강산 법기문중 문도회(회장 본각)는 8월 16일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측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건립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화답하며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고등학교가 9월 개교 후 자리를 잡으면 종립학교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향후 계획을 언급했다.

박아름 기자

현대불교문인협회장에 원담 스님

8월 12일 총회서 오현 스님 후임으로



현대불교문인협회는 8월 12일 인제군 만해마을 설악관서 총회를 열고, 회장 설악 오현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후임으로 율곡사 주지 원담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원담 스님은 강원도 홍천 출신으로 1984년 해인사로 출가해 자운 스님으로부터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이후 범어사서 구족계를 받은 스님은 동학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의령 유학사와 진주 의곡사 주지를 지냈다.

1992년 〈문학공간〉 시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한 스님은 시집 〈제비꽃 한 송이 가난한 내 뜨락에 필 때〉와 〈살구나무경經〉을 냈으며, 승가대신문사 편집장 및 '아름다운인연'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현대불교문인협회는 조계종 총무원 등록단체로 계간문예지 〈불교문예〉 발행과 현대불교문학상 등 불교문학을 통한 포교와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 수행·문화의 거점으로"

선학원,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상량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8월 18일 서울 안국동서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에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고문 인환 스님을 비롯해 이사, 감사, 장로원, 범행단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법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큰 불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된다"며 불사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총무이사 송운 스님은 기념관 건립 경과를 보고하면서 "선학원 주변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의 궁궐과 한옥마을, 인사동길 등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명소가 산재해 있다"며 "선학원은 그 지정학적 위치와 불교수행과 포교·교육을 근간으로 한국전통문화의 보존과 현대적 계승, 불교문화창달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참석 사부대중은 교무이사 한북 스님이 대표 낭독한 상량문을 함께 읽었으며 상량문을 대들보에 봉안하고 불공의식에 따라 상량했다.

한편 선학원은 2011년 이사회에서 기념관 건립을 논의 후 2013년 전국분원장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기념관 건립에 나선바 있다.

노덕현 기자

"만해 스님 유지, 통일운동으로 잇자"

제2회 통일문학축전 여는 선진규 대회장



"만해 스님은 조국 독립을 위해 추호도 굴함이 없었던 애국자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고난도 감수했던 무아경(無我境)에 달한 보살이었습니다. 스님의 독립정신은 이제 통일정신으로 이어내야 합니다."

선진규 한국통일문학축전위원회 대회장〈사진〉은 8월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해 스님과 통일 정신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그러면서 "만해 스님은 살아있었으면 통일 운동을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해 스님 탄신을 기념해 오는 8월 28, 29일 양일간 만해 스님 마지막 주석처인 성북동 심우장 일원서 열리는 제2회 한국통일문학축전은 문학을 통한 남북교류가 주된 목적이다.

8월 28일에 개최하는 '만해사상과 통일 대토론회'에서는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가 '만해 한용운의 독립정신과 통일'을 주제발표하며,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 김경집 진각대 교수, 원혜영 동국대 강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심우장 입구 만해공원에서는 '통일 염원 5분 발원대회'가 열린다. 대한민국 성년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통일 염원 노인백일장'도 축전 1일차에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28일 당일 오후 2시 시제가 발표되며 대회본부에서 제공하는 원고지에 원고작성을 완료한 뒤 오후 5시까지 대회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29일 본행사 마지막에 진행된다. 장원 30만원, 차상 20만원, 차하 10만원, 장려 5만원 등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계간 〈한국불교문학〉에 발표된다.

본행사는 8월 29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기념식이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문학단체에 보내는 평화통일 염원 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02)379-4514

신성민 기자

유재석, 나눔의집에 또 5천만원

8월 11일, 71주년 광복 앞두고 전달



경기 광주 나눔의집(원장 원행)은 "유재석 씨가 8월 11일 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들을 위한 인권센터 건립비 3000만원과 복지지원금 2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유재석 씨가 나눔의 집에 후원한 것은 이번으로 4번째다. 그 금액이 총 1억6000만원에 달한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6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6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전북 완주 송광사 백련 나비채 축제에 참가한 대중들이 베트남 틱 드엉 탄 스님의 지도 아래 두 팔을 벌려 연밭명상을 체험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표정이 저마다 자못 진지한 것이 인상적이다.

'나누고 비우고 채우니' 모두 한 가족

완주 송광사 칠석맞이 '송광 백련 나비채' 축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평온하길 바랍니다. 나는 이웃과 나누며 살고, 나의 경험과 기억을 비우고 살고, 사랑과 자비로 채우며 살길 원합니다. 나비채로 살길 원합니다."

연중 북두칠성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까마귀가 놓아준 다리를 통해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칠월 칠석. 푸름 가득한 이 계절에 전북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8월 9~14일 경내서 한여름밤의 축제 '2016 송광 백련 나비채'를 개최했다.

'나눠주고 비우고 채우는' 앞 글자를 따 '나비채'로 이름 지은 이번 축제는 자비로 나누고, 지혜로 비우고, 행복으로 채우며 모두가 평온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휴가철 온 가족이 유쾌하게 즐기고 이웃과 함께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나눔의 마당이 펼쳐졌다. 특히 고국을 떠나 국내에 살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들을 초청해 지역주민과 이주민의 만남을 잇는 다리를 놓아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기간에는 이웃주민들과 연음식을 함께 나누고 가족을 위한 음악회와 베트남 문화체험, 베트남 효도법회 등을 실시했다. 13일에는 송광사 불자들과 베트남 이주민을 연결하는 쌍지모 결연식이 열렸다. 두 손가락에 낀 쌍가락지처럼 지역민과 이주민이 한 가족 같이 가까워지길 염원하는 쌍지모 결연식은 한광수 신도회장과 베트남불자 여윤희 씨를 비롯한 5쌍이 결연을 맺었다. 이들은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연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은 순은 단주를 선물하며 이들의 결연을 축하했다. 참석한 모든 대중은 각자의 소원을 담은 다양한 색상의 풍선을 날리며 화합을 다짐했다.

결연가족이 된 디티번 씨는 "한국으로 시집와 고향 부모님이 무척 그리웠는데 이제 한국에 친정부모님이 생긴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송광사는 매년 각 나라 다문화가족을 초청해 결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송광사 특별무대에서 화합 음악회가 열렸다. 지난해 전국관악경연대회서 금상을 수상한 금산중학교 관악부의 공연으로 막을 연 음악회는 클래식 음악인들이 연주하는 동물의 왕국이 경대에 울려 퍼졌다.

프랑스 작곡가 까미유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쇼팽의 '강아지 왈츠', 슈베르트의 '송어' 등 다양한 동물을 주제로 한 음악이 연주됐다. 또 베트남 명곡 연주와 베트남 민요 '어린이들의 축제'를 대중들이 함께 배우며 노래해 화합의 장이 연출됐다.

8월 9~14일 완주 송광사서 열려
이주여성·외국인근로자 초청
국내 정착 돕는 결연식 비롯해
음악회·연밭명상 등으로 情 나눠

법진 스님은 "어긋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을 일으키고자 칠석맞이 송광백련 나비채를 준비했다"며 "칠석을 맞아 이주민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축제의 의의를 설명했다.

스님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레 벽이 없어지고 동심원이 넓어지길 기대한다"며 "나의 이익과 안락, 평화는 이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족과 함께 참가한 장지숙 송광사 지장회장은 "손주들과 같이 와서 좋은 음악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 준 송광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4일에는 베트남 특별기도회가 열렸다. 사운당에서 열린 특별기도회는 베트남 원오도량 틱 드엉 탄 스님의 집전 아래 베트남 전통의식으로 법회가 봉행됐다. 전국의 베트남 원오도량서 모인 300여 명의 베트남불자들은 효도법회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베트남에서는 우란분절에 효도법회를 봉행하며 가슴에 꽃을 달고 부모님 발을 씻겨주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도 베트남불자들은 부처님께 차와 꽃을 공양하고 부모 대하듯 어르신들의 발을 씻겨주는 의식을 재현했다.

틱 드엉 탄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베트남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가 더욱 우호 증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티안(30, 광주 산정동) 씨는 "한국과 베트남의 불교는 문화와 수행방법에 차이가 있어 베트남불자들은 베트남 불교의식을 선호한다"며 "많은 베트남 도량이 생겨서 베트남불자들의 신행활동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베트남불자들은 이와 별도로 새벽에 송광사 연밭에서 틱 드엉 탄 스님의 지도로 명상법회를 봉행했다.

송광사에서는 축제기간동안 베트남 문화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베트남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 많은 불자들이 베트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베트남불자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베트남 쌀국수, 연잎 상추튀김 등 베트남 전통음식을 송광사 불자들에게 대접했다.

이밖에 관음전에서는 연꽃 사진전이 열렸고, 연꽃등 만들기, 연잎차 만들기, 연꽃차 시음 등 송광사 도량 곳곳에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한 송광사 불자들은 성 요셉요양원, 송광정심원, 소양면 경로당 등을 찾아 송광사 연밭에서 수확한 연을 이용한 음식을 대접했다.

완주 송광사=조동제 전북지사장



14일 열린 베트남 특별기도회.



금산중 관악부가 공연을 하는 모습.



특별무대로 마련된 열린 음악회.



불자들과 베트남 이주민을 연결하는 쌍지모 결연식.



컵등 만들기 체험을 하며 이주민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깨달음센터 수행법

1단계 : 화엄경 간경 및 사경
2단계 : 화엄선(禪) 수행
3단계 : 무의자재 수행
4단계 : 동시실천 수행
5단계 : 수인원통 수행

제2차 공개강좌

고통 해탈문

2016년 여름 현재, 진귀수행자는 법회, 기도, 신도단련, 천도재 및 각종 수련 등등을 일체 하지 않는 수행자로서, 오직 화엄경 연구와 역경작업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공개강좌 외의 법문요청, 강의요청 및 친견요청 등등을 일체 사절중에 있으며, 혹 간절하고 간절한 친견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소속 사찰에서 만배(10,000배)(1:1친견시 공개강좌는 제외)를 5일 이내에 마친 후 확인증을 제출하신 분에 한하여 친견을 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 개 강 좌 일 시 : 2016년 8월 31일 (수) 오후 3시
• 공 개 강 좌 장 소 : 깨달음센터 (대구 수성구 소재)
• 참석대상 및 참가비 : 누구나, 선착순 33명 제한, 참가비 무료
• 예약신청 및 문의처 : 1899-9532 (예약접수 하신 분만 참석 가능 함.)

깨달음 센터
(구. 화엄경 강원)
주지 원일 합장

신행·복지 소식

여성·아동폭력 예방책 모색 포럼

조계종복지재단, 8월 31일 불교사회복지포럼 개최

여성 및 아동들에 대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불교사회복지포럼이 8월 3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여성 · 아동 폭력의 현주소와 해법'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의 기조발표는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보각 스님이 맡았다. 이어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가 각각 아동학대와 여성폭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밖에 종합토론자로 서범석 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장, 허난영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장이 나선다.

조계종복지재단 측은 "가정 또는 사회 곳곳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여성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무료로 진행된다. 전화(02-6334-2202) 또는 이메일(jm@4882@jabinanum.or.kr)을 통해 사전 접수 가능하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동국대 정각원, 수행·학문 연계 법회 연다

목요법회 9월 8일 첫 봉행

동국대(총장 보광)가 수행과 학문이 융복합된 '정각원 목요법회'를 신설한다. 동국대 정각원(원장 혜원)은 "주중 저녁시간을 활용한 '정각원 목요법회'를 새롭게 개설했다"고 8월 17일 밝혔다.

정각원장 혜원 스님은 "기존 주말법회 형식에서 탈피, 새로운 주중법회 문화와 수요를 창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동국대만의 장점과 정체성을 살린 교수진(강사)을 섭외해 교리 · 수행 · 연계학문 등 다양한 주제로 융복합 불교대강좌를 기획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오는 9월 8일 혜원 스님의 법문으로 문을 여는 목요법회는 학기 중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시작된다. 1~2주는 신행중심의 기도법회로, 3~4주는 불교 강좌로 봉행된다.

동국대는 학기별로 다양한 교리강좌와 기도정진, 수행을 통해 동국대만의 특색을 법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학기에는 불교교리와 교단 성립사를 시작으로 각 시대별 경전과 사상, 수행의 특색을 살펴본다.

강사로는 △박경준 교수(석가모니의 탄생에서 입멸, 불교경전의 결집과 발달) △우제선 교수(유식의 세계 Ⅰ,Ⅱ) △황순일 교수(부파불교시대의 논사들의 사상) △김호성 교수(대승불교시대의 대승경전의 특색) △박인석 교수(선사상과 역사) 등이 참여한다.

목요법회에는 교직원 및 학생 등 동국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회원가입을 통해 일반 불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혜원 스님은 "저녁시간을 활용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많은 불자님들에게 법회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봉은사, 제10기 불교영어강좌 개설

9월 13일까지 선착순 40명

봉은사(주지 원명)는 불교영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9월 21일~12월 7일 제10기 불교영어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경내 수련원서 매주 오전 10시~오후 2시 △부처님의 생애(Life of the Buddha) △부처님의 가르침(Buddha's Teaching) △불교기초교리 △불자와 수행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동국대 불학연구실 무념 스님이 초청 강사로 나선다.

접수는 봉은사 경내 새신도안내연등 접수처서 가능하며, 9월 13일까지 선착순 40명 모집한다. (02)3218-4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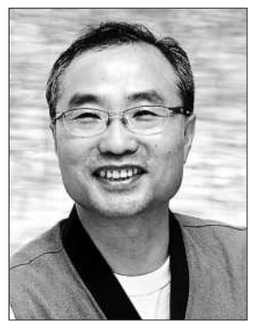
박아름 기자

삶에 지친 내 마음, 가을엔 다스려보자

대한불교진흥원 8월 29일 스티븐 힉맨 박사 특강

불교여성개발원 9월~12월 오원칠 · 김홍근 법사 강좌


스티븐 힉맨 박사


김홍근 법사


오원칠 법사

전세계 일반인들 사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명상을 비롯해 참선수행 열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불교계에서도 선선한 가을날씨를 느끼며 전문가의 지도 아래 마음챙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대원문화의 달'을 맞아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진흥원빌딩 3층 다보원 법당서 미국 임상심리학자 스티븐 힉맨 박사(Dr. Steven Hickman,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캠퍼스)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주제는 '현대인의 번아웃 증후군 예방을 위한 마음챙김과 자비의 역할'.

특강은 무한경쟁사회서 '번아웃(Burnout) 증후군'을 겪는 수많은 현대인들을 위해 마련했다. 번아웃 증후군은 자신의 일에 의욕적으로 몰두하다 어느 순간 정신적 · 육체적 피로를 느끼며 무기력해지는 증상이다. 자기혐오와 직무거부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힉맨 박사는 명상과 현대 심리치료를 접목한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인이 겪는 번아웃 증후군 예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스티븐 힉맨 박사는 UC샌디에이고(UCSD) 정신의학과 가족예방의학부 임상 부교수다. UCSD 통합의료 집행위원회 디렉터이자 2002년 UCSD 마음챙김센터(커뮤니티 · 임상 케어 · 전문가 트레이닝 및 연구) 설립자다. 현재 자기-연민에 주의를 두는 명상치유 프로그램(MSC, Mindful Self Compassion) 및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완화 코스(MBSR)를 지도하고 있다. (02)719-2606

한편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은 국내 명상수행 명사들이 지도하는 연속강좌를 마련했다.

먼저 9월 5~26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견지동 개발원 교육관서 '명상리더십센터 혜봉 오원칠 특강'을 실시한다. 집중명상을 주제로 한 이번 강좌는 깨달음에 이르는 다양한 수행법 소개와 간화선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수행 및 삶의 문제에 대한 명상방법 등을 설명한다. 참가비는 4회 6만원이며, 회기당 2만원씩 단강 등록도 가능하다.

혜봉 오원칠 법사는 명상수행학교 행복수업 교장, 마음일보 부설 마음아카데미평생교육원장,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이며,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저자다.

아울러 불교여성개발원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서 '김홍근 법사 간화선 이론 및 실참 강좌'를 개설한다. 강의는 총 12회 진행되며 간화선을 좌선, 실참, 질의응답으로 나눠 실시한다. 또 9월 16~18일과 12월 수덕사 집중수련이 포함된다. 수강료는 15만원.

김홍근 법사는 강의에 앞서 "지금 내가 앉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원리와 행법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아는 것을 실제로 정진하는 것이 간화선 실참의 주안점인 만큼 이론과 실제를 병행해 강의하겠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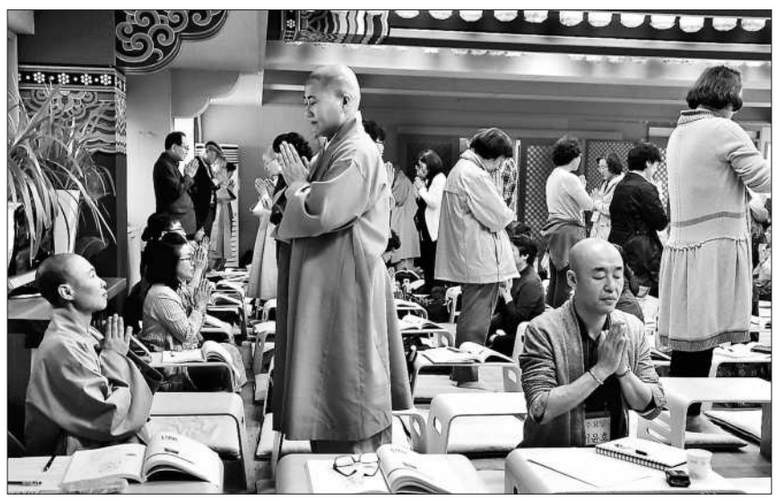
김홍근 법사는 스페인 마드리드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고, 성천문화재단서 20년간 고전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현재 한국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연구하고 있다. (02)722-2101

윤호섭 기자

명상아카데미, 이번엔 기초·심화반 운영

한국명상지도자협회 가을강좌
봄강좌 호황 이어 명상 보급

10월 5일~12월 10일 기초반
5개 수행 분과별 심화과정 '눈길'


지난 봄에 진행된 명상아카데미 대강좌. 〈사진제공=한국명상지도자협회〉

지난 3월 '지혜와 평화의 길,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를 열고 명상 보급에 나서 호황을 이룬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이번엔 기초반 2기와 심화반 1기를 모집한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혜거)는 10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를 실시한다. 장소는 행불선원(수)과 금강선원(토)이며, 마감시 목우선원과 상도선원서 추가 강좌를 개설한다.

특히 지난 봄강좌에 430명이라는 인파가 몰려 실습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번에는 반별로 50명씩 나눠 강의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강의는 봄강좌가 아닌 새로 시작하는 강좌를 녹화해 제공한다. 반 구성을 위해 접수도 8월 23~26일(1차) · 8월 29일~9월 2일(2차) · 9월 5~마감시(3차)에 걸쳐 실시한다.

강의는 봄강좌와 마찬가지로 20여 명의 명상지도자들이 직접 지도한다. 위빠사나 · 명상상담 · 가피명상 · 자비명상 · 참선수행 등 불교계에서 잘 알려진 명상수행의 개괄적인 내용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봄강좌 수강생들의 요청에 따라 심화반을 신설했다. 심화반은 명상상담 · 참선불교 · 초기불교전통 · 통찰치유명상 · 통합불교 등 5개 분과로 나뉘며, 봄강좌 수강생과 가을강좌 기초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별로 50~10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3개 분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명상상담'은 인경 스님과 안희영 교수가 지도하며, 10월 10~25일 매주 월 · 화 각각 목우선원과 한국MBSR연구소에서 진행된다.

'참선불교'는 혜거 · 월호 · 미산 스님과 김용환 · 박희승 교수가 지도한다. 9월 23~25일과 10월 21~23일 행불선원 이천도량서 2박3일 집중수련을 한다.

'초기불교전통'은 붓다락키따 · 혜량 스님과 김재성 교수, 김열권 위빠사나붓다선원장이 맡는다. 10월 1~3일 봉인사 집중수련 과정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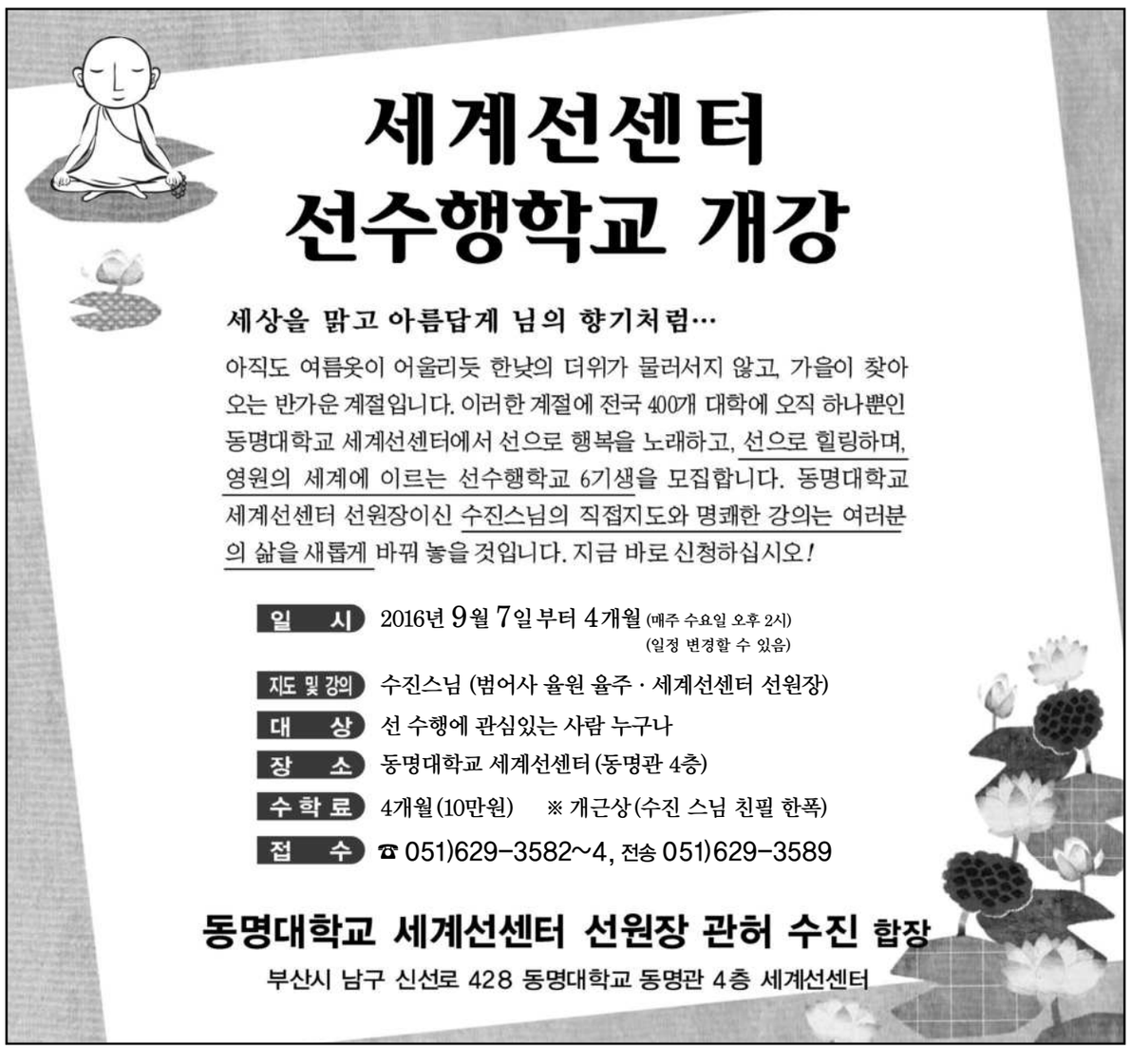
'통찰치유명상'은 마가 · 각산 스님과 오원칠 법사가 지도하며, 11주간 매주 화요일 참불선원서 강의가 열린다.

'통합불교분과'는 용타 · 지운 · 적경 · 명법 · 선업 스님이 지도한다. 10월 15~16일과 11월 19~20일 자비선명상센터 서울 및 대구지부서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상임이사 인경 스님은 "지난 강좌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원이 몰려 명상에 대한 세간의 인기를 실감했다"며 "앞으로 명상문화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수강료는 기초 · 심화 각각 35만원이며, 두 강좌 일괄 접수 시 10만원 할인된다. 심화반 역시 분과 추가 시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2박3일 집중수련 과정은 숙식비가 추가된다. (02)953-5307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6년 8월 1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6년 9월 6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 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천도재 의식 및 권공의식
◇ 원서교부 : 2016년 8월 10일 부터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6년 9월 1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자나 깨나 천번 만번 화두에 들어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識得 v杖子하면 今日解制어니와
不識 v杖子하면 今日結制이로다.

이 주장자 진리를 알 것 같으면 금일이 해제이지만 이 주장자 진리를 알지 못할 것 같으면 금일이 결제로다.

어느덧 여름 석 달 안거(安居)가 지나고 해제일이 도래하였음이라. 금일이 해제일이라 할지라도, 화두(話頭)를 타파(打破)하지 못했다면 각자가 석 달 동안 얼마만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두를 챙기고 의심했는지, 얼마만큼 일념이 지속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반성해야 함이로다. 모든 대중은 해제일에 상관치 말고 다시금 발심(發心)하여 오로지 생사해탈(生死解脫)의 이 일을 해결하는데 일편단심으로 정진(精進)에 정진을 거듭할지어다.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일체처일체시(一切處一切時)에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 해야 할 것이라.

생사해탈의 대오견성(大悟見性)을 위해서는 모든 것에 초연(超然)해야 함이로다. 그러니 지금껏 지어 온 모든 반연(攀緣)은 끊고 시비장단(是非長短)은 내려놓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몸뚱이에 끄달리지 말고, 견성(見性)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대신심(大信心)과 불타는 대용맹심(大勇猛心)을 내어 간절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하여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혼신(渾身)의 노력을 쏟아야 함이로다.

이 견성법(見性法)은 일념(一念)이 지속되지 않으면 깨달음이란 불가능함이라. 그렇게 정성껏 잡도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두가 익어져서 밤낮으로 흐르고 흐르다가 문득 참의심이 발동하게 된다.

그때는 모든 습기(習氣)와 의식분별이 재(灰)가 되어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며칠이 지나가는지 몇 달이 지나가는지 몇 년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되니, 이것이 일념삼매(一念三昧)인 것이다.

이처럼 일념삼매가 시냇물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지속되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본성(本性)이 드러나고 한걸음도 옮기지 않고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들과 더불어 동등한 지혜를 얻게 됨이로다.

우리 선문(禪門)에서 가장 영웅적인 호걸을 갖춘 이가 누구인고! 임제 선사(臨濟 禪師)와 덕산 선사(德山 禪師)로다. 두 선사는 진리의 고준한 안목을 만천하에 드날려 천고(千古)에 빛낸, 조사(祖師)중에 조사요, 영웅 가운데 영웅이라.



임제 선사와 덕산 선사를 알고자 할진댄, 각자의 화두를 성성(惺惺)히 챙겨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와야 천불 만조사와 더불어 동참하리니, 모든 대중은 혼신의 정력으로 정진에 힘쓸지어다.

석일(昔日)에 덕산(德山) 선사께서 회상(會上)을 열어 대중을 지도하고 계실 때, 참으로 훌륭한 두 분의 눈 밝은 제자를 두었다. 한분은 암두(岩頭) 선사인데 참선하여 깨달은 바도 없이 그대로 생이지지(生而知之)요, 또 한 분은 훗날 천오백 대중을 거느리신 설봉(雪峰) 선사였다.

암두 선사는 덕산(德山) 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일여(一如)하게 지내다가, 일일(一日)에 덕산 선사를 친견하기 위해 조실채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실스님 방문을 열고 한 발은 방 안에 들여놓고 다른 한 발은 마루에 딛고 서 있으면서 물었습니다.

"선사님, 제가 성인(聖人)입니까? 범부(凡夫)입니까?"

이에 덕산 선사께서 문득 할(喝)을 하시니, 암두 스님은 절을 올리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런 후 동산(洞山) 선사께서 덕산 선사와 암두 스님이 거량한 것을 전해 듣고 평(評)하시기를,"암두전활(巖頭全豁) 상좌가 아니고는 덕산의 할을 알아듣기 어렵도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암두 스님이 그 말을 전해 듣고는,"동산 노인이 좋고 나쁜 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구나. 내가 그 당시에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렸었노라."하였습니다.

모든 대중, 어느 곳이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린 곳인고?

이 법문이야말로 도인(道人) 문중에서 법의 안목(眼目)을 가리는 골자이다. 이러한 법문은 옛 부처가 화현(化現)한 경우가 아니고는 활개를 칠 수가 없는 대문이다. 그간에 무수 도인이 출세(出世)하셔서 심오한 법문을 많이 설하셨지만, 이 법문을 능가할 만한 법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법문도 알기가 매우 어려움이라.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대중은 암두 스님이 덕산 선사의 귀에 대고 은밀히 속삭인 대문을 알겠는가?
대체 무엇이라고 속삭였기에 덕산 선사께서 종전과는 판이하고 당당한 법문을 하신 것인가?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 이 공안은 백천공안(百千公案) 가운데 가장 알기가 어려운 법문인지라, 천하 선지식도 바로 보기가 어려워서 이 법문에 대해서 평을 한 이가 거의 없음이로다.

그래서 이 공안을 바로 보는 눈이 열려야 대오견성을 했다고 인정함이로다.

그러면 금일 모든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마구답살천하인(馬駒踏殺天下人)하니
임제미시백염적(臨濟未是白拈賊)이로다.
한 망아지가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이니,
그 위대한 임제 선사도 백염적이 되지 못함이로다.

본래면목 증득해, 깨침의 철학 가져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안거동안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증득하여 자기 스스로 깨침의 철학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해제가 되면 "본분사(本來事)를 무사히 해결하였는가?"라고 묻곤 합니다. 삼세제불과 역대조사도 적공(積功)의 노력으로 윤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생사해탈의 경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불교는 윤회의 주체로서 영속하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데(無我緣起), 〈잡아함경〉에 이것을 "업과 과보는 있지만, 업을 짓는 그 놈은 없다(有業報而無作者)."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윤회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업의 요소인 만물만상의 근원을 공(空)으로 지각하는 것처럼, 과학에서는 이 업을 에너지로 인지하고 있는데, 물리학자 프랑크는 우주 에너지인 극미입자(極微粒子)를 수량적으로 표시하여, 현대과학으로 불교의 공(空)을 실증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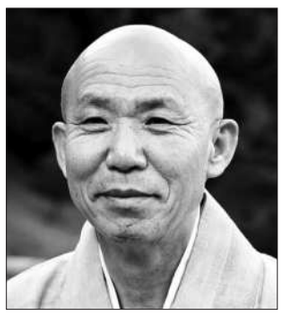
끝으로 하안거 해제 대중은 의식과 이성에 의지하는 언어 · 과학적 사고와 언어도단과 무의식인 아뢰야식에 의지하는 불교적 사고를 모두 다 내려놓고, 실체가 없는 그 놈이 무엇인가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쉼 없는 정진으로 조용히 돌이켜 살펴보기만(廻光返照) 하기를 바랍니다.

근본바탕인 청정한 마음은 항상 스스로 둥글고 밝아서 두루 비추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고 듣고 분별하고 아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서 그것으로 덮어 씌워 있기 때문에 밝고 오롯한 본체를 보지 못하는 도다.

해제는 결제 때 못한 공부 더 잘하기 위한 것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伽倻消息 誰能說이냐,
白雲去來 山不動이요.
莫道此時 玄妙旨하라.
說法聽法 古道通이로다.
가야산 소식을 누가 능히 말하랴.
흰구름 오고 가나 산은 동함이 없네.
이때, 현묘한 뜻을 말하지 말라.
법을 설하고 듣는데 옛길이 열리도다.



오늘이 하안거 해제일입니다. 옛스님 말씀에,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몸의 안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고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에 뛰어나서 중생을 건지려는 것입니다. 설사 결제 중에 약간의 정진을 했다 하더라도 해제 3개월 동안에 동분서주해서 시간만 보낸다면 공부에 진취가 없을 것입니다. 해제라는 것은 결제때 못한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 선지식을 찾고 도반을 찾아 처소를 가려 공부를 더 잘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만, 내일도 그만, 금년도 이대로, 명년도 그대로 허송세월하면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기에 납월 30일을 당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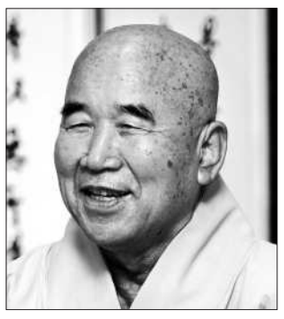
공부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 방초로(不行 芳草路)하면,
난지 낙화촌(難至 落花村)이로다.
꽃다운 풀밭길을 걷지 않으면,
꽃이 지는 마을에 가긴 어렵네.

진실로 버리기 어려운 욕망을 버리자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榮華終是三更夢
富貴還同九月霜
老病死生誰替得
酸甜苦辣自承當
영화종시삼경몽 이요
부귀환동구월상 이라
노병사생수체득 이리오
산첨고날자승당 하리라



세속의 영화는 마침내 한밤중의 꿈같고 부귀도 되돌아보면 구월의 서리 같네.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 누가대신 하겠는가? 시고 달고 쓰고 매운 이치는 자신만이 알리라.

수행자의 본분을 잊고 모두가 밖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 모두를 경책하는 말씀입니다. 선사의 고구 정녕한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되새겨서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한 철 동안 각자가 화두를 굳게 들고 자신에게 철저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허리가 끊어질듯하고 다리가 아파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수행자는 코끼리 가죽을 덮어쓴 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겉모습과 이름으로 치장을 해도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행은 혁범성성(革凡成聖)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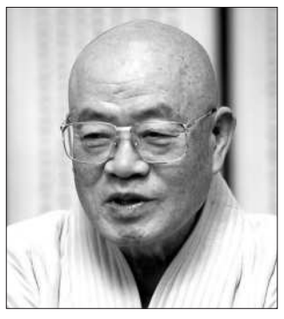
범부의 마음을 고쳐서 성인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오늘 해제는 중생의 삶을 부처의 삶으로 바꾸어 대자대비의 문을 열고 나가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杯子撲落地여 響聲且歷歷이라
虛空粉碎也하니 狂心當下息이로다
찻잔이 땅바닥에 툭 떨어짐이여!
그 소리 참으로 통쾌하구나.
허공마저 부서져 흩어져 버리는데
날뛰던 그 마음 당장에 쉬었네.

물건마다 하나 하나 광명발하니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

一卓 v杖大地沈하니 萬像森羅盡舒光이로다. 水聲淸風說無生하니 蠢動含靈皆成佛이로다.
주장자를 한번 치니 대지가 평침하고 만상삼라가 다 광명을 놓는 도다.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무생법문을 설하니 준동함령이 다 성불하도다.



원각경에 이르시되 "가없는 허공이 각의 현발한 바라."하시니 안목을 갖춘 납승은 한마디 일러라! 어느 것이 이 낱 허공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전의 본래 체성인고? 잠깐 있다가 주장자로 법상을 한 번 치고 이르시되 한 자루의 주장자가 법계에 두루 하니라. 도리어 낙처를 알겠는가? 다시 고인의 행리처를 설하리라.

설봉화상이 대중에게 보여 이르시되 나의 이 속에 일면의 한 옛 거울이 있어서 검은 것이 오면 검은 것을 나투고 붉은 것이 오면 붉은 것을 나툼과 같으니라.

어떤 스님이 문득 묻되 홀연히 밝은 거울이 옴을 만났을 때 어떠합니까? 설봉화상이 이르시되 검고 붉은 것이 함께 숨느니라.

대각연 선사께서 게송으로 이르시되 두 거울이 마주쳐 철저히 비추니 오고감에 호한이 모두 다 숨었도다. 까닭 없이 여여한 본체를 다시 말하니 부리 꼿은 파사인이 부질없이 성급하네.

淸天夜月甚皎潔하니 寂寂廖廖徹底光이로다.
問爾卽下如何是오 物物頭頭盡惺光이로다.
맑은 하늘 밤 달이 심히 밝으니 고요하고 고요한데 끝없이 빛나도다.
묻노니 그대는 지금 어떠한고? 물건마다 하나하나 광명을 발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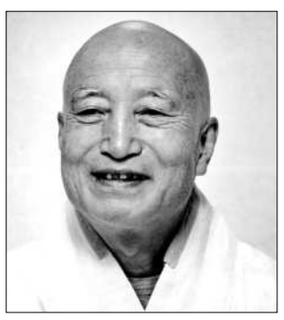
청정자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란 글이 있다.

人法地 사람은 땅을 본받아야한다. 즉 땅의 관용을 배우라는 뜻이다. 땅처럼 진실하고 너그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 땅은 옳고 그름을 떠났다. 또한 증애도 없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 작은 것, 큰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무거운 것, 가벼운 것, 아름다운 것, 추한 것 등 아무런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모든 걸 담고 있다. 그 관용의 무한함을 배우란 것이다.



地法天 땅은 하늘을 본받아야 한다. 땅이 아무리 관용의 덕이 있다 하여도 하늘처럼 텅비어 광대무변함은 없다. 비었기 때문에 땅을 수용할 수 있고, 삼라만상과 일월성신을 수용하듯 사람도 허허로이 다 비웠을 때 진정한 自由와 참 생명의 지혜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天法道 하늘은 도를 본받아야한다. 도는 우주의 질서다. 만물의 생성과 소멸의 원리요 인과의 법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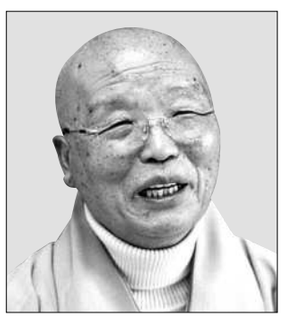
道法自然 도는 자연을 본받아야한다. 자연은 진실함이다. 꾸밈이 없다. 순수하여 말할 수 없다. 본래면목의 원형이며 선악과 미추와 시비를 떠난초월의 자리이며 진실불허한 자성 표현이다. 우리는 자성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는 노력을 정진이라 한다. 귀취자기다.

이런 병든 생명들에 의해 탐욕과 분노와 우치의 어두운 그림자는 끝없이 이어져간다. 귀취자기가 절실해진다.

죽림정사의 바람 생각하세요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마하대법왕(摩訶大法王)께서 무단무장법(無短無長法)을 설하시고, 백장스님은 쉬고 쉬어라 말씀하셨고, 조주스님은 끽다거(喫茶去)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 대중은 이번 폭염 속에서도 닦고 닦았으니, 오늘 닦은 바를 한마디 해보세요. 그야말로 화중생련(火中生蓮)이라 불꽃에서 아주 시원한 바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된 신분으로 일대사 마치기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한 바를 나는 아직도 본 바가 없으며, 들은 바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듣게 하고 보게 해서 나를 즐겁게 해준다면 아마 부처님도 환희심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부처님 은혜를 무엇으로 갚고자 합니까.

여러분! 폭염보다도 부처님 은혜가 더 크고 더 뜨겁습니다. 오늘을 해제라 하지 말고 쉬어가겠다고 여기세요.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모여서 이 모임을 계속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모임은 부처님 당시부터 270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죽림정사 대밭의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 지 모두 아시겠습니까? 죽림정사의 바람을 쐴 때까지 폭염은 생각하지 말고 죽림정사 바람을 생각하세요

아무쪼록 죽림정사에서 노닐기를 바라며 오늘 해제법문은 줄이겠습니다. 그저 어둔한 말이라 법문이라고 말씀드리기기 부끄럽습니다.

제작일정 관계로 금정총림 · 고불총림 법어는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학술 소식

분노 사회에 대한 불교적 해법 모색

불교평론, 26일 학술심포지엄 개최

한국사회에 팽배해지고 있는 '분노'에 대해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학술심포지엄이 열린다.

불교평론은 오는 8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사회와 분노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창간 17주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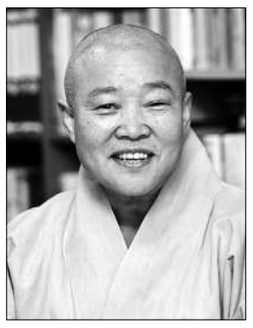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허우성 경희대 교수의 '붓다는 의분을 어떻게 보았는가'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의 '분노의 불교사회학적 이해' △오용석 연세대 인문학연구원의 '선 수행에서 보는 분노 문제와 자비' △신승철 정신과 의사의 '심리학에서 보는 분노' △이혜숙 금강대 교수의 '구조적 폭력과 분노, 그 불교적 대응' △박재순 씨알사상연구소장의 '예수의 분노에 대한 생명철학적 이해' △박경준 동국대 교수의 '암베드까르와 분노 그리고 불교' △이도흠 한양대 교수의 '개인적 · 사회적 분노와 치유의 길' 등이 발표된다.

불교평론은 "분노는 삼독 중 하나로 극복할 대상이지만, 때로는 사회 모순이나 폭력에 맞서는 정의 실현의 방법이기도 하다"면서 "이 같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우리 사회의 분노 현상에 관한 불교적 분석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비구니 강백 해주 스님 퇴임 강연

31일 학명세미나실… 의상 법성성기 사상 주제



동국대 최초 비구니 교수이자 정각원장인 해주 스님〈사진〉의 정년퇴임을 회향하는 강연회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부와 제자들이 마련한 이번 강연회는 오는 8월 31일 오후 3시 동국대 학명세미나실(문화관 2층)에서 진행된다.

이날 해주 스님은 '의상 스님의 법성성기 사상과 전승'을 주제로 지난 학문 성과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불교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주 스님은 운문사에서 성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학사승가대학과 동국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0년 비구니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동국대 교수에 임용돼 현재까지 후학들을 지도했다.

또한 조계종 제11 · 12대 중앙종회의원, 불교학연구회 초대 · 2대 회장을 맡기도 했으며, 2007년 조계종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전강을 받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중례 · 결수문' 발표 경제 소리 시연

경제어산硏, 25일 홍원사서

경제어산연구소(소장 정오)는 오는 8월 25일 서울 강서구 홍원사에서 '신찬 중례 · 결수문 발표 및 경제소리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제어산연구소장 정오 스님이 '신찬 천지명양수륙재의문(약칭 중례 · 결수문)'을 보고하고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학술연구교수가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서울시무형문화재 43호 경제어산 보유자 동주 원명 스님의 경제어산 시연이 이뤄지며, 손인애 서울대 한국음악학과 외래교수가 '경제어산 소리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인묵 · 법안 · 미등 · 윤소희 · 서정매 · 최형석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가나자와 문고 '보살계본소'가 最古 사본"

박광연 교수, 19일 '신라사본과 원효' 동국대 학술대회서

신라 의적 스님 찬술한 필사본
류코쿠대 판본보다 415년 빨라
韓불교전서본 비교… 더 정확해

사상사학회 · 金澤 문고 공동 주최
신라代 경전 연구논문 발표 '눈길'

〈보살계본소〉는 〈범망경〉의 주석서로 잘 알려져 있다. 신라 의적 스님이 찬술한 것으로 류코쿠대(龍谷大)에 소장된 '범망경의적소'가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하지만, 류코쿠대 소장본 보다 오래된 필사본이 연구를 통해 발표됐다.

박광연 동국대 HK교수는 8월 19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한국사상사학회 · 일본 가나자와 문고가 공동으로 개최한 '신라사본과 원효' 주제 학술대회에서 가나자와 문고본 〈보살계본소〉의 기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소묘지 소장 · 가나자와 문고 보관 의적 〈보살계본소〉의 기초 연구' 논문에서 가나자와 문고본 〈보살계본〉과 류코쿠대 소장본을 비교 분석했다. 이를 통해 박 교수는 "류코쿠대 소장본보다 가나자와 문고본이 415년 앞서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류코쿠대 소장본은 목판본으로 1684년에 제작됐지만, 필사본인 가나자와 문고본은 1269년(문영 6년) 10월 21일에 제작됐다. 가나자와 문고본은 찬자 이름을 의적 스님의 '적(寂)'만 명기했으나 류코쿠대 소장본은 '신라사문 의적'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차이점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신라에서 출판된 문헌에는 찬자 이름에 국명이 들어가지 않은 반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작성 · 출판된 글에는 신라인임을 명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가나자와 문고본이 보다 원형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나자와 문고본이 아쉬움 점은 상 · 하권 중 상권만이 남아 역사학계가 주목하는 48경계에 대한 의적 스님의 해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상권에만 새롭게 판독되는 글자가 200여 자가 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가나자와 문고본과 한국불교전서본을 대교한 결과도 내놨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이체자를 포함해 700여 자, 이체자를 제외하면 200여 자가 차이가 있다. 이중 한국불교전서본이 맞다고 판단되는 글자는 16자에 불과했다"고 분석하면서 "이 수치는 정확한 번역 과정을 통해 변화할 수 있지만, 향후 가나자와 문고본을 토대로 '보살계본소'의 정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 김병곤 일본 미노부산 대학 교수는 '원홍 〈묘법화경론자주〉의 새로운 이해'라는 주제로 신라 원홍 스님의 문헌이 일본 엔닌(圓仁)의 〈삼평등의(미노부문고 소장)〉에 인용된 사례를 처음으로 확인해 한국과 일본의 불교문헌 교류와 사상적 영향에 대해 살폈다.

도츠 아야노 가나자와 문고 주임 학예원은 '의상 〈화엄경문답〉의 텍스트 연구'를 통해 대정신수대장경에 수록된 〈화엄경문답〉의 문헌상 문제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천학 동국대 HK교수는 '원효 〈대승기신론별기〉의 기초연구'를 통해 〈기신론별기〉의 유통상 문제와 기존 대장경 간본과의 교감결과를 밝혔다. 또한, 텍스트 비교를 통해 원효 사상에 대한 해석의 변화 가능성도 추측했다.

신성민 기자

깨달음 실천 · 구현하는이 '보디사트바'

〈Bodhi&Sattva〉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개정 〈깨달음과 역사〉 봉정
해인사 대중과 북콘서트도

"보디+사트바= 대승 불교"
스님들의 공부 방법과 내용
시대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8월 12일 열린 〈깨달음과 역사〉 개정증보판 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대중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학자나 사업가, 정치인 등 세속의 일반인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깨달음의 영역을 바로 앞에 두고 살아가고 이를 구현하는 것 역시 '보디사트바(Bodhi&Sattva)'가 될 수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8월 12일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열린 〈깨달음과 역사〉 개정 증보판 봉정 및 북콘서트에서 불교적 이해에 대한 문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현응 스님은 선원장 · 강사 · 학인 스님 등이 쏟아내는 질문에 차분하고 성실히 답했다.

'보편적 진리는 변화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현응 스님은 "'불교는 진화한다'는 개념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변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진화는 가치중립적인 단어"라면서 "조건이 달라지면 환경에 맞춰 바뀌어가는 것을 '진화'라고 한다. 불교 역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적응되고 변화되며 시대적 삶 속에서 기능 · 구현 · 작동됐다"고 밝혔다.

'보디사트바'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스님은 "보살이라는 말은 '보디'와 '사트바'의 생략"이라며 "'보디'는 삶과 세상을 연기 · 공 · 무아 · 무상으로 보는 것이며, '사트바'는 삶과 세상이라는 역사를 말한다. 이 둘을 결합하는 일이 대승불교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승가교육에 대해서는 스님들이 시대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현응 스님은 "불교는 생로병사, '삶은 고행'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스님들은 진지하고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사회 문제와 갈등에 대해 불교적 문제의식으로 가르침을 줘야 한다. 스님들이 공부하는 방법과 내용 역시 먼저 문제의식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서 봉행된 봉정법회에서는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을 비롯한 총림 대중과 내빈들이 참석해, 현응 스님의 〈깨달음과 역사〉 개정증보판 출판을 축하했다.

향적 스님은 봉정사를 통해 "붓다를 사회라 표현하고, 보살의 삶을 역사라고 표현한 것은 혁명적인 사고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면서 "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부분도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깨달음과 역사〉는 지난 1990년 초판 발행 후 2009년 개정판에 이어, 2015년의 깨달음의 논쟁을 촉발시킨 '깨달음과 역사, 그 이후'와 '반론에 대한 답변' '기본불교와 대승불교' 원고를 새롭게 추가해 이번에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신성민 · 하성미 기자

원효 탄신 1400주년 학술대회 열린다

한국불교학회, 2017년 춘계대회 및 학술상 공모

2017년은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위한 학술대회와 학술상 공모가 진행된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원효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사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하는 학술대회와 불교학술진흥상(논문공모전)을 시행한다"고 8월 18일 밝혔다.

'원효- 그 새로운 이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 행사는 원효 스님의 사상, 철학, 문화, 이념 등 원효학 전반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한 모든 주제에 대한 논문 공모를 우선으로 한다.

원고 분량은 한글 200자 원고지 100~200매(각주 및 참고문헌 포함)이며, 영어는 1만 단어 이내다. 논문 제출 기한은 내년도 3월 31일까지며, 채택 공지는 4월 14일 이뤄진다.

제출된 논문은 심사해 대상 1명 500만원, 최우수상 1명 300만원, 우수상 2명 각 100만원의 학술논문상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학회는 원효 탄신 14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내년 5월 12일 동국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02)2263-1973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범패 · 작법무 · 의식과정 학인모집

▼ 아래와 같이 제 14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 **범패 · 소리과정(5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오후 2시 ~ 3시 10분)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설명 등 전 과정 간단한 이론 강의

■ **작법 · 무용과정(5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오후 3시 30분 ~ 5시)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진언바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6년 8월 ~ 2016년 9월 21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8)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사)대한불교 現조계종 종도모집

본 종단은 석가세존께서 깨달으신 높은 진리를 세상의 모든 중생과 생명들에게 전하는 전법종단으로, 세상의 참생명들의 이익을 위해 정진하고자 하는 불제자 도반들을 종도로 모시고자 합니다.

◆ 총본산 총무원 : 용문사(광주 북구 월동로 58-11)
전화 062)531-3888 / 팩스 268-3889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
- ▶ 여권사진 3매

입종 후 발행증서
- ▶ 승려증
- ▶ 사찰등록증
- ▶ 주지 임명장

(사) 대 한 불 교 現 조 계 종

러시아 사할린에 '조국의 숨결' 새기리…

사할린에 잠든 고혼을 위로하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무원 스님(부산 삼광사 주지)



"사할린에서 혹독한 강제 노역으로 고된 삶을 보내고 고향을 향한 그리움에 망향가를 불렀을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역사의 굴레 속에서 돌아가신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린 타국에 묻힌 희생자들과 후손들을 지금이라도 돌아봐야 합니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이 오는 8월 27~30일 러시아 사할린을 방문한다. 현재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로 활동 중인 스님은 이번 방문일 동안 추모비 건립 1주년을 맞아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1공동묘역에서 추도식을 진행한다. 이번 추도식에는 부산진구사암연합회 스님 30여명이 함께 동참해 사할린에서 잠든 유주무주 고혼과 그 후손들을 위로한다.

무원 스님은 "작년에 추모비가 세워졌다. 희생자들의 공원묘지에 개인 비석은 있지만 공동 추모비가 없었다. 너무나 안타까워 그분들을 위한 공동 추모비를 세우고, 매년 추도의식을 가질 것을 서원했었다. 이번이 그 첫 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원 스님은 불사 중인 추모관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돌아보고 격려할 계획이다. 추모관은 현재 기초 공사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있다. 총 2층 규모로 1층은 동포와 후손을 위한 쉼터로, 2층은 위패를 모신 기념관으로 활용된다.

마지막 중요 일정은 러시아 브이코프 탄광 지역을 방문해 후손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강제로 끌려가 혹독한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눈물의 땅'이다. 브이코프 탄광은 1938년 전쟁 막바지 국가총동원령에 의해 가장 극심한 강제징용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알려진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과 부산진구사암연합회는 8월 27~30일 일제 때 강제 징용돼 돌아오지 못한 한인 동포와 후손들을 위한 추모식을 연다. 사진은 작년 추모비를 세우고 진행된 추모재 모습.

8월 27~30일 사할린 방문
지난해 공동 추모비 건립
1주년 기념해 추도식 진행
2층 규모 추모관도 불사 중

무원 스님이 사할린 동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현덕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회장과의 인연 때문이었다.

무원 스님은 "현 회장과의 만남으로 징용자들의 괴로운 삶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현 회장은 3·4세 후대들의 역사의식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한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도와야겠단 생각을 갖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사할린 동포 자녀 한인 청소년 20여명을 초대해 '사할린 동포와 함께 하는 역사 기행' 활동을 지원했다. 한인 동포 청소년들은 8월 2~6일 동안 '삼광사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유적지를 탐방해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스님은 "자신들의 뿌리를 모르고 사는 이들에게 고국 문화를 일깨워주기 위한 자리였다. 역사와 한글말을 잊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번 일을 통해 한민족의 긍지에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사할린 뿐 아니라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희생 영가를 함께 모아 우리나라에 봉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잊혀선 안 된다. 아직도 찾지 못한 유해가 있을 뿐 아니라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분들을 모셔와 남북 협의 하에 DMZ평화공원에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는 남북의 평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며 조상들도 바라는 염원일 것이다"고 말했다.

일제 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된 한인의 수는 4만3000명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강제노역 등으로 사망하거나,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사할린에서 생을 마감했다.

하성미 기자

초기불전연구원, 아비담마 길라잡이 강좌

8월 30일 개강… 11월 1일까지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은 근본도량인 김해 장유 보리원에서 '아비담마 길라잡이' 강좌를 실시한다. 지난해 4기에 이어 5기를 맞은 이 강좌를 통해 초기불교연구원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아비담마를 가르친다.

강의는 8월 30일~11월 1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재는 〈아비담마 길라잡이(상/하)〉이며 강사는 각묵 스님이 나선다. 장소는 경남 김해시 관동로 27번 길 5-79 (관동동) 보리원 내 초기불전연구원이다. 수강료는 10만원.

강의 내용은 89가지 마음 심소와 마음의 여러 측면을 다시 복습한다. 이어 이를 토대로 △28가지 물질(6장) △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7장) △12연기와 24가지 조건의 가르침(8장) △사마타와 위빳사나를 중심으로 한 초기불교의 수행(9장) 등을 살펴본다.

초기불전연구원은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대들은 내 법의 상속자가 돼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고 고구정녕하게 말씀하셨다"며 "법에 대해서 대법(對法)으로 직역되는 아비담마(Abhidhamma)를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시대에 부처님의 진신을 친견하는 가장 성스러운 일"이라며 많은 동참을 독려했다. (055) 321-8579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복지협, 지역사회 의료복지 향상 도모

8월 12일 호암한의원·서면 신세계 안과와 MOU 체결

(사)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회장 정여, 이하 부불복지협의회)가 의료계 복지 향상을 위해 나선다.

부불복지협의회는 8월 12일 부산불교회관 7층에서 호암한의원(원장 정중) 및 서면신세계안과(원장 허준)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호암한의원과 서면신세계안과는 부불복협의회의 지역사회 의료복지와 국내외 연계사업에 함께 동참한다.

회장 정여 스님은 "이번 협약으로 소외된 지역주민 및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한걸음 벗어나 평안의 세계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빈곤 해외국가에 지속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쳐 온 세계가 부처님의 품안에서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호암한의원 정중 원장은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해 10년 이상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과 한약재 무료 보시 등의 보살행을 실천해왔고 2014년 부불복지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부산광역시장상을 받았다.



(사)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는 의료계 복지 향상을 위해 8월 12일 부산불교회관 7층에서 호암한의원 및 서면신세계안과와 MOU를 체결했다.

서면신세계안과 허준 원장은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사로 활동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후원금 전달과 어르신들의 무료진료 및 수술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부불복지협의회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국내 지원 및 봉사 활동을 하는 한편, 해외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캄보디아 클랑하이 초등학교 및 로터스월드 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에 이어, 오는 10월엔 베트남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고 후원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스리랑카서 부산 금강사로 '진신사리' 전해져

8월 11일 이운법회, 스리랑카 前 대통령 참석

부산 금강사(주지 혜성)가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법회를 금강사 대웅전 앞에서 봉행했다.

8월 11일 금강사로 이운된 진신사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 1과와 부처님 제자의 나한사리 2과로, 스리랑카 콜롬보 스위와리라사라마야 사찰에 보존돼 왔다.

'차의 성지'로 유명한 금강사는 오랫동안 스리랑카와 홍차로 교류하며 관계를 유지했다. 이번 진신사리는 스리랑카 사찰과 교류하며 민간 외교 분야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달받았다.

이운식에는 마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前 대통령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와티나파하 수마난다 테로 주지 스님과 스리랑카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혜성 스님은 앞으로도 한국과 스리랑카 불교계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 갈 것을 약속했다. 혜성 스님은 "홍차 생산지인 스리랑카와 금강사 차인들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이렇게 기쁜 결과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 돈독한 관계를 갖고 서로 왕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번 진신사리는 스리랑카 아누라드 브라지역에 위치한 미리사베터아 사찰의 옛 보탑사에서 나온 소중한 보물"이라며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 한국 불자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뻐했다.



8월 11일 부산 금강사서 진행된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법회서 마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前 대통령이 진신사리를 주지 혜성 스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라자팍세 前 대통령은 한국 불교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국내 스리랑카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는 스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금강사는 앞으로 여러 행사를 통해 불자들이 직접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지구촌 빈민촌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위한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40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世界佛教 法王廳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대법회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국회의원 회관 / 오후 1시 30분

전계대화상 :
世界佛教徒의 法王 –
우 꾸마라 사야도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Dr. Bhaddanta Kumarabhivamsa
Bhamo Sayadaw
Agga Maha Saddhammajotika
Agga Maha Pandita
Chairman of the State Sangha Maha
Nayaka Committee

■ 교수아사리 : 살아있는 팔만대장경의 화신 제13대 에인다 빠라 삼장법사. 연방승가회 부회장 사야도
■ 갈마아사리 : 법왕청 법왕 보좌 비서실장 – 목탁 대승정 | 짜익티오성 사야도

한국본부 전계대화상 | 교수아사리 | 갈마아사리

三師 108證明團합동 建幢(건당)의식 및 품수의식 봉행

400여 종단 한국불교 高僧 및 元老 큰스님!
정중히 공개적으로 추대하여 이 법석에 모시고자 합니다.

석가세존에게 테라와다 불교의 정법을 위촉받은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법왕님의 상좌 건당 및 품수 의식. 계첩에 이름을 올릴
3師 108 證明團에 韓國佛教 高僧 元老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 세계평화기원 대법회 봉행위원단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주 관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승려 60만의 불교나라 미얀마 최고의 큰스님과 부종정 사야도, 경전의 화신 13대 삼장법사,
짜익티오성 사야도와 상원의원 활동과 미얀마 신정부 경제특보이면서 수백억의 재산을 불교에 보시한
보시의 화신 닥터 킨쉐이 박사가 동참하여 성스런 불교의식을 한국에서 봉행합니다.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대한불교 108 종정연합회
대한불교 고승 장로단
세계불교 고시위원회
국제붓다봉사단
대한불교 종단 인권위원회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 협의회
대한불교 원로 장로단
대한불교 대종사 연합협의회

총괄본부장 : 아까마하 사다함마 저티카 하자 大僧正 목 탁 (법왕청 법왕보좌 비서실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 신영빌딩 3층 (삼봉로 68) ● 문의 및 접수 : 02)733-5665. 010-3618-6061

“불교발전 위한 기백” 대불련동문들의 외침

대불련총동문회, 제14회 전국동문회 성료

“불교발전과 대불련 및 대불련총동문회의 발전,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언제나 기백을 잃지 않는 청년붓다가 되겠습니다.”

대불련총동문회(회장 백효흠) 2016년 제14회 전국동문대회가 ‘열어온 50년 · 열어갈 50년, 대불련 지리산을 품다’ 주제로 8월 13~14일 지리산 블루썬 리조트, 화엄사, 지리산 일원서 6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번 동문대회에서는 지리산 노고단 고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교발전과 대불련 및 대불련총동문회의 발전,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했으며, 박태동 前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종주팀은 33km를 걸어 천왕봉 정상에 발원문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대불련 동문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열어갈 50년’의 비전을 공유하고, 문화행사와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소통하고 단합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입재식에서 백효흠 대불련총동문회장은 “우리 스스로가 젊은 불자육성과 지역포교에 앞장서야 한다”며 “부정부패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 남북 간 대치 속에 긴장된 동북아 정세 등 혼돈과 불안이 엉켜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사회에 비전을 제시할 때 주위의 공감과 후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훈 광주전남지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리산은 동문회가 열어갈 50년을 위한 지혜의 장소임이 틀림없다”며 “대불련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한 만큼 우리가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희망의 싹을 틔워나가는 건강한 불제자의 발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축사서 “불교의 미래를 고민하는 여러분의 밝은 얼굴을 대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전국

8월 13~14일 지리산 일원서
600여 사부대중 참가해 붐벼
문화행사 · 어울림마당 소통하고
대불련 활성화 위한 결의 다져

각지로 비춰질 것을 의심치 않는다”며 “화엄사도 지난해 순천대에 불교학생회를 창립해 청년불자의 신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타 스님(행복마을 이사장)은 “팔만대장경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 나, 대원, 수심, 화합, 작선이다”며 “없는 나는 우리 모두의 행복해탈을 위해 안으로 수심 잘하여 마음천국을 이루고, 밖으로 화합 잘하여 관계천국 이루며, 나아가 작선 잘하여 세상천국을 이뤄야 한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거듭 자기를 관리하면서 완벽한 자유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수행이고 수심이다. 행복해탈을 위해 수심하다보니 옆에 사람이 있어 화합한다. 행동할 일이 있으니 작선이라는 것이다. 그것이면 인생 전부다”고 법문했다.


8월 14일 지리산에 오른 대불련총동문회원들이 대불련 활성화를 다짐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이어 올해 제정된 ‘자랑스런 대불련인상’ 수여식이 열렸다. 진리의 벗(수행 · 연구 · 포교 · 호법) 분야에 전재성 빠알리어성전협회장(서울대 73학번), 진리의 얼(사회업적) 분야에 국회의원인 강창일 前 정각회장(서울대 72학번), 진리의 빛(봉사 · 기부) 분야에 김연호 진주동물병원장(경상대 72학번)이 수상했다.

감사패는 최승태 前 강원지부장이 받았으며, 공로상은 故 주영배 부산지부장, 특별상은 이순규 병원장(전남대 59학번)이 수상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화엄사와 구례군에 각각 자비의 쌀 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사찰 관람과 토크쇼,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블루썬 리조트서 열린 토크쇼는 ‘지리산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손님 법인 스님(일지암)과 김선우 작가가 출연했으며, 가수 박양희 씨가 노래했다. 저녁공양 후 열린 문화공연은 야외무대에서 국악공연, 어울림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올해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지리산 등반은 다음날 아침에 진행됐다. 김연호 진주동물병원장의 신행발표에 이어 전명철 수석부회장의 총동문회 50주년 기념사업 발표 후 지리산 성삼재로 이동해 노고단 고개에서 산정 이벤트로 대불련 활성화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夜行,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

군산 동국사, 문화유산 축제서
가곡 · 시극 음악회로 재해석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 동국사 등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한 전북 군산에서 한여름 밤의 축제가 펼쳐졌다.

문화재청과 군산시는 8월 13~14일 ‘군산야행,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 아래 동국사와 근대역사박물관이 밀집해 있는 원도심서 야로 · 야사 · 야설 · 야경 · 야식 · 야숙 등 7가지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군 군악대와 의장대의 거리퍼레이드로 막을 연 이날 축제는 동국사, 근대역사박물관, 신흥동 일본식가옥, (구)군산세관 등 17개소의 근대문화유산에 조명을 설치하고, 동국사 산사음악회 등 10개의 문화공연이 열렸다.



동국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가곡 · 시극을 재해석한 음악회.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는 입구의 동국사 가는 길에 전통등을 설치하고 대웅전과 요사채 주변에 조명을 설치해 관람객을 맞았다. 문화유산해설사가 상시 배치돼 동국사 창건 배경과 일제강점기 군산지역 수탈의 아픈 역사를 되새겼다.

동국사와 근대역사박물관에 이르는 2km구간은 근대문화유산이 새겨진 등불이 불을 밝히는 등불거리가 조성됐다. 또 동국사 산사음악회 ‘한여름 밤, 문화유산이 숨 쉬는 등불거리를 거닐다’ 스탬프 투어, 3개의 플리마켓 테마 프로그램과 ‘근대문화유산을 걷다’ 등 11개의 체험프로그램 등 총 41개의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에게 선보였다.

동국사는 일제강점기의 가곡과 시극을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구성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동국사 합창단 공연과 전주 국악실내 악단 ‘율’이 음악과 연주를 선사해 깊어가는 여름밤의 축제분위기를 달궜다.

종걸 스님은 “근대문화유산을 이용한 야행 프로그램 중에서 일제강점기 아픈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고, 포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사음악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멋진 봉축행사, 광주불교 자긍심”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광주불교연합회 봉축기획단장 시각 스님

서울 봉축행사인 연등회는 오랜 기간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다. 따라서 지역 봉축행사의 화두는 이미 검증된 연등회의 다양한 참여행사를 지역화하고, 지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마당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광주지역 봉축행사는 최근 3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광주지역 봉축행사 기획을 맡고 있는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봉축기획단장 시각 스님(만덕사 주지 · 사진)은 그 중심에 있다.

“광주불교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 · 재가 모두가 인정하는 기획단 구성과 안정적 운영을 통해 화합과 변화 발전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째 봉축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시각 스님은 봉축행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남다르다. 하지만 늘 한결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봉축행사를 통해 광주지역 불교의 포교뿐만 아니라 불교의 전반적인 활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광주 봉축기획단은 매년 10월 발족해 그해 12월까지 다음해 봉축행사 기획을 담당한다. 단장을 비롯해 부단장 2인, 광주불교연합회 총무부장스님 등 출가자 4인이 참여한다. 재가자들은 광주지역 불교NGO단체, 종립학교, 불교언론사, 사회복지단체, 사찰 종무실장 등 불교활동가들도 동참한다. 모두 10~20여 년간 광주불교계에서 활동한 베테랑들이다.



이들의 활동은 곧 행사의 생동감으로 전해진다. 광주 봉축행사가 지역불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행사준비에는 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시각 스님에게 이 질문은 우문(愚問)이었다.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자긍심을 가질 뿐입니다. 최초 발족해서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 스님들이 기획안을 맡기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이죠. 더불어 기획단에 참여한 재가불자들이 청년시절부터 활동하면서 광주불교의 근간을 알고 있는 이들이라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광주불교를 밝게 합니다.”

시각 스님 역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와 태고종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기획통이다.

광주는 올해 봉축행사 사진전을 시작으로 내년 행사준비에 들어갔다. 연희단 강습회, 전통등 만들기 등을 준비한다. 다만 늘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스님에게도 고민은 있다.

“기획단 3기까지 원만회향 했습니다. 하지만 4기에 들어 추진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진력을 계속 낼 수 있는가가 고민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젊은 활동가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각 스님은 광주지역 스님들의 역할을 주목한다.

“결국 스님들이 해야 할 것은 합리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전문적 지식과 관심을 갖는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한다는 얘기다. 출 · 재가를 떠나 불교의 모든 식구들의 참여와 열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스님은 답했다.

“기존 불자들 외에 새로운 활력을 갖는 젊은 신도와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봉축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문화행사를 시민들에게 보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은 광주불교계가 내년 봉축행사를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녀 양성평등이 부처님 가르침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㊷ 서량여국에서의 일화

매일 매일 걷는 구도의 길,
그러나 나날이 새로운 길.
그 앞에 나타나는 맑고 큰 강.
어찌 건널까 걱정하는 일행 앞에
나룻배 나타난다.
그런데 나룻배를 젓는 사공이
여자다! 그런데 조금 늙은…….
여자 뱃사공이 있을 수야 있지만
좀 희귀한 일이다.
건너고 보니 맑은 물에 목마른 생각이 들어
한 바릿대 퍼서 현장 법사 반쯤 마시고
저팔계가 나머지 훌쩍 마셨는데,
현장 법사와 저팔계 뱃속이 이상하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불러온다.
급히 가까이 있는 농가를 찾아드니
농가의 노파가 배를 잡고 웃는다.
이곳은 서량여국(西梁女國)이라는 여인들만 사는 나라.
현장 법사와 저팔계가 마신 물은 자모하(子母河)의 물.
여인들만 사는 나라에서 애를 낳는 방법은?
바로 자모하의 물을 마시면 애가 생긴단다.
현장 법사와 저팔계가 임신을 한 것이로다.
참으로 큰 일 일세.
스님들이 임신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산도(産道)가 없으니 어디로 낳는다냐?
혹시 부처님처럼 옆구리 출생?
그래도 살 길이 있다 한다.
조금 가면 해양산(解陽山)에 파아동(破兒洞)이 있고 거기 낙태천(落胎泉)이라는 샘이 있어 그 물을 마시면 낙태가 된다나?
거참! 현대보다 훨씬 더 쉬운 낙태술이 있었구나. 그런데 문제가 또 있다.
언제부터인가 여의진선(如意眞仙)이라는 도사가 파아동을 점거하고선 큰 선물을 줘야 낙태천 물을 준단다.
무조건 돌파왕 손오공,
무조건 파아동으로 달려가
무조건 물을 떠오려하다
결국 여의진선과 데꺼덕 부딪힌다.
알고 보니 여의진선은 우마왕의 아우요
홍해아의 삼촌이라,
자기 조카를 해쳤다 하여 앙심을 품고
절대로 물을 못주겠단다.
그러니 한바탕 진검승부…….
여의진선도 한 수 한다 하지만
손오공을 당할 수 있나.
사오정까지 동원하여 낙태천 물 뜨기 성공!
현장 법사와 저팔계 임신 출산 저지 작전 성공!
어찌 어찌 출산은 면했는데



그림 · 최주현

이곳이 무슨 나라?
여인국이로다!
여인국에 옥골선풍(玉骨仙風) 현장 법사가 등장하였으니 그 풍파가 작을 리 없다.
풍파도 왕 풍파!
여왕의 연심이 작렬!
현장 법사님! 저의 지아비가 되어주소서.
왕이 되어주소서!
그냥 뿌리치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구?
통행증을 받지 못하면 통과가 안 된다는 사실!
결국 손오공 꾀를 낸다.
현장 법사는 결혼하여 남고
제자들은 떠난다는 조건으로 통행증 받고
떠나는 제자들 배웅한다 나온 현장 법사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떠나버린다.
여인들의 애절한 만류는
세 제자의 흉악한 협박으로 뿌리친다.
그런데 현장 법사의 여난은 끝나지 않았구나.
웬 여자가 길가에서 불쑥 나온다.
"현장 법사님, 저랑 놀다가요!"
사오정이 발끈하여
"어디서 요망한 것이!"
항요장을 휘두르지만
이 여자 요괴로다, 비보통 요괴로다.
휘익 바람을 일으켜 현장 법사를 채가버린다.
알고 보니 이 요괴, 전갈의 정령이로다.

서량여국서 임신하는 현장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비판
〈유마경〉서 불교적 해답 나와

욕정에 불타 온갖 수단으로 현장 법사 유혹하지만 까딱없는 현장 법사!
매력남? 비매력남?
손오공 형제들 백방으로 스승 구하러 싸우지만
꼬리 독침에 쏘이면 너무 아파
이겨낼 도리가 없다.
관세음보살이 현신하여 요괴 정체를 알려준다.
석가여래까지 그 독에 당했던 일이 있는
독한 요괴이니 천적을 찾아야 된다네.
천상의 닭의 화신인 묘일성관만이 그 천적!
지네나 전갈에는 닭이 천적이라!
그리하야 묘일성관 모셔오니
새벽을 여는 "꼬끼요!" 한 울음에!
전갈 요괴 정체 드러나고 흐물흐물 녹았네!
현장 법사의 빛나는 부동심
여색의 관문을 넘었구나!
범속한 태를 없애고
자연의 몸을 되찾았구나!

이번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음욕에 관한 이야기네요. 이궁, 나칠계님! 지금까지 꾸벅꾸벅 조시더니, 남자 여자 이야기라 하니 눈빛이 반짝반짝해지시네요. 그렇게 밝히시면 안 됩니다. 앞의 글 잘 읽어 보세요. 현장 법사 얼마나 의연한지.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꿋꿋한 마음을 보세요. 미녀들의 유혹에 대하여 "해골에 분바른 것에 어찌 마음을 기울일 것인가!"하며 물리치는 그 기상을, 10분의 일, 아니 백분의 일이라도 좀 본받으세요. 뭐라구요? 그건 다 옛날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구요? 요즘엔 적당히 밝히는 남자와 여자가 인기가 있다구요? 어흑! 그러고 보니 요즘은 좀 그렇군요. "섹시하다"라는 말이 엄청난 칭찬의 말이 되는 세상이군요. 옛날 같으면 뺨맞을 소리가 칭찬이 되는 세상이군요.

그렇지만, 여기의 얘기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 현실의 풍조를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좀 삼가 주세요. 성적인 것을 무조건 금기로 여기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성적인 것이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되려면,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유를 확보하고, 그것을 자기가 잘 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분명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는 좀 여러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니 좀 뒤로 미룰게요. 그때 나칠계님의 건전한(?) 성에 대한 가치관을 듣기로 하지요.

성의 문제를 말하려면 우선 남성과 여성, 양성 간의 문제를 살필 필요가 있겠군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동양 최고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주역〉에도 그러한 관점이 나타나고 있지요. 〈주역〉은 상경과 하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경은 천도(天道), 즉 우주 자연을 말하고, 하경은 인도(人道), 즉 사람의 도를 말한다 합니다. 그래서 상경은 하늘을 상징하는 괘와 땅을 상징하는 괘가 그 첫머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경은 택산함(澤山咸)괘로 시작하는데, 이 괘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감응을 상징하는 괘이지요. 사람 일의 출발점은 남녀의 만남, 그것도 성적인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젊은 남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러니까 남녀의 성적 감응이야말로 사람 일의 출발점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그 남녀의 만남과 감응이 제대로 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양성의 평등한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남녀평등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남성우월주의라고 할까요?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가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문제는 불교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비구와 비구니의 위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요. 이 불평등한 관계가 계율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율이라는 것이 종교에서 엄청난 권위를 지닌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은 종교의 근본을 뒤흔들 위험이 있기에, 이 불평등한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참으로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그 불평등을 그대로 두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교는 남녀 불평등을 기본으로 한다. 적어도 수행 사제에 있어서는 남녀 불평등이다!"라고 선언을 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계율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통해 현대적인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의 실마리를 삼쾌선생은 유마경에서 발견합니다. 아니 실마리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 급의 혁명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유마 거사의 방에 천녀(天女), 즉 하늘 여인이 있습니다. 지혜와 변재가 너무도 뛰어납니다. 그런 천녀에 대해 사리불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남자의 몸으로) 바꾸지 않는가?"

이런 사리불의 물음은 남성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요. 남자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에 대해 천녀가 뭐라 대답하는지 들어볼까요? 천녀의 대답 속에 남녀 문제에 대한 핵폭탄 급의 혁명적 관점이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 핵폭탄 다음 시간에 터뜨려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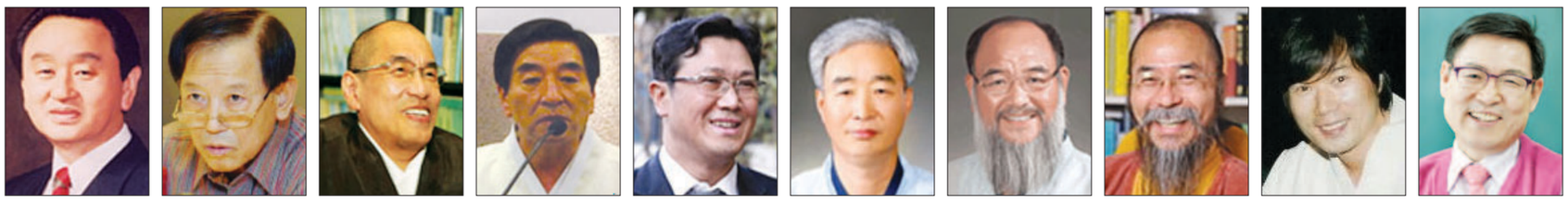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3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석좌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백운산회장,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박청화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9월12일~12월 19일, 매주 월(月)18:30~21:50/수료 후 심화과정, 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9월 12일(월) 17:30 ~ 미래학특강 외
등록금 240만원
지원방법 FCA홈페이지(www.gfca.kr)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gfca@daum.net) 발송
특 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 장소 : 동국대학교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

동국대 국제불교문화학과
美 불교 탐방기

미국 불교 역동성을 보고 듣고 느끼다

드디어 출발이다!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탔다. 우여곡절도 많고 수많은 의견 토의와 조사와 이메일이 오간 끝에 연수 일정을 완성한지도 한 달여. 방학 토익집중 특강으로 방학을 하면 제대로 센터별 질문지를 작성해 보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결국 각자 맡은 센터를 간단히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로 끝냈다. 기대 반 두려움 반. 어쨌든 지금은 비행기 안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국제불교문화사업학 전공에 입학해 3학기를 수학하고 있는 우리들은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의 미국 동부 불교수행센터 탐방 연수를 떠났다.

우리들은 조계종 교육원 전액장학금으로 대학원 석사과정과 3주간의 미국 연수를 하게 된 행운아들이다. 3주간의 연수는 혜택인 동시에 수행 과제이기도 했다. 지난 한 학기 내내 연수 준비를 위해 방문할 센터 선정과 그 곳과 관련된 조사연구가 병행되었다.

또한 "연수 준비는 여행사가 아닌 스스로 진행하라"는 교육원의 방침으로 우리 스님들이 나서서 인터넷 조사와 주변 인맥을 통한 정보 수집 노력으로 여행 일정(itinerary)이 완성됐다. 덕분에 각자 3,4곳씩 맡은 선센터 방문지에 대해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어 이메일 작성 경험과 정보를 많이 쌓을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

한 학기동안 미국 불교를 연구조사하고 발표하면서 미국 불교에 대해 가진 두 가지 편견이 있었다.

첫째는 짧은 불교 역사 탓에 불교에 대한 잘못된 환상(불교를 신비주의로 인식)이 많고 불교에 대한 지식이나 수행의 깊이가 얕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오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불교와는 달리 미국불교는 1893년 시카고 세계종교회의를 통해서 처음 대중적으로 불교를 접한 이래로 1970년대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불교 수행을 하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로서 명상이나 불교 수행 또한 상업화되고 세속화돼있다는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인 편견이었다. 이러한 미국불교에 대한 편견은 3주간의 짧지만 인상적인 만남들로 인해 다소간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 미국불교 편견 타파 과정을 소개한다.

우리가 방문한 수행센터는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미국 현지의 동포 대상의 한국 사찰들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현지인에 의한 미국화된 선센터들이다.

미국은 다양한 이민 사회로 이루어져 있어서 미국불교 또한 크게 두 부류, 즉 이민 온 동양 불자들에 의해 들어온 그들만의 고유한 사찰 불교인 에스닉(ethnic) 불교와 미국 백인 중산층 지식인들 중심의 수행 위주의 불교(개종불교)로 나누기도 한다.

한국 사찰은 전자에 속하며 한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한국식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포들 외에 현지인에 대한 포교에는 미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제일 큰 제약은 언어적인 제약이며 둘째는 인력 부족이다. 미국 내의 한국 사찰들은 거의 개인적으로 혼자 도미해서 어렵게 일구어진 개인 도량으로서 미국 현지 한인불자들만의 보시로 근근이 지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중 뉴욕 불광선원은 주지 휘광 스님의 적극적인 장학 노력으로 3명의 젊은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어린이 법회와 청소년 법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중국계 사찰 장엄사에서 진행된 비구 보디 스님의 니까야 강의 전 참가 대중이 좌선을 하고 있다.


연수 참가 스님들이 브룩클린 젠센터(Brooklyn Zencenter)의 도서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교포 사찰 · 미국식 선센터 등
美동부 수행센터 17곳 탐방

연수 과정 스스로 준비하며
영어 실무 능력 자연 배양돼

현지 프로그램들 체험해보니
눈높이 지도 방법 인상 깊어

불광선원의 성공적인 포교의 원인은 어린이 법회의 성공과 지속에 있다. "어린이법회가 튼튼해야 그들이 자라서 청소년 법회를 이루고 나아가서 청년회 및 미래의 든든한 불자들의 모임이 된다"는 주지 스님의 지론이 인상적이다.

원각사는 방문 당시 대작 불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지 지광 스님은 우리 학인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안내해줬다.

"이제 우리도 미국 동부에 한국 전통 사찰 양식의 도량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교포 불자들에게도 큰 긍지가 되고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도 무언의 공헌을 할 수 있다"라는 스님의 말씀도 인상적이었다.

사실 근처의 중국계 대형 사찰인 장엄사와 티베트 전통 사원을 방문해보니 미국 현지인들이 관광차 방문하면서 중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상황을 목도했던 터라 주지 스님의 설명이 더욱 와 닿았다.

선련사는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삼우 스님의 자혜불교회 소속 사찰이다. 삼우 스님은 1967년 도미한 이래 지금까지 현지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영어법회를 해오고 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맞게 수행법을 자세하고도 고구정녕히 지도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스님이 지금까지 꾸준히 포교활동을 펴나가는 핵심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인이 많은 맨해튼답게 수요일 저녁 7시 참선법회와 일요법회가 정기적으로 있고 불교교리 교실도 열고 있다. 운영은 미국식 불교센터처럼 여기도 멤버십 제도로 운영되며 법회 시 '권장 기부금(recommended donation)'도 받는다. 미국 불교는 아직 보시의 개념이 수행의 일부로서의 보시바라밀이나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가 확립되진 않아보였다.

이제 뉴욕 일원에서 만난 현지화된 미국불교를 만나보자. 먼저 매사츄세츠 바르에 위치한 IMS(Insight Meditation Society)에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수행프로그램(retreat)을 함께했다. IMS는 미국 내에서도 오래되고 큰 규모의 잘 알려진 수행센터이다. 역시 명성답게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진의 꼼꼼하고 정확한 안내와 배려가 돋보였다. 인터넷으로 접수 후 이메일로 접수 상황과 준비물, 지켜할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참가 전후로 재확인 감사메일도 왔다.

숙소와 음식도 무척 만족스러웠다. 모든 것이 수행에 가장 도움될 수 있도록 검소하지만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청소와 음식은 수련생의 운력(job duty)에 의해 수련 기간 중 따로 아침 운력 시간에 행해졌다. 필자는 점심공양 후의 식탁 닦기 및 정리의 소임을 운력으로 맡았는데 후원으로 가보니 각각의 할 일에 대해 상당히 꼼꼼하고 세부적인 항목으로 적혀진 매뉴얼 파일을 내밀어서 '역시 미국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UN종교NGO에서 활동한 이오은 원불교 교무를 만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4박5일의 수행 기간 중에는 철저한 묵언이 이뤄졌고, 채식 식단의 풍부하고 다양한 음식이 제공됐다.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날에 식단에 나온 채식의 레시피를 공개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채식 레시피 개발과 공유로 육식 위주의 서구 식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채식을 수용하려는 노력으로 느껴졌다.

수행에서 대해서도 3명의 수행지도 재가 법사가 서로 토의하고 협력하면서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 적절히 배분해 지도하는 것이 무척 인상적으로 보였다.

각각의 수행시간 전에 간단한 설명이 이뤄지고 수행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항상 있는 것도 인상 깊었다. 묻는 질문도 일상적이며 편안했고, 재가 법사도 편안하고 일상적인 말로 답을 줬다. 전문적인 불교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 대화로서 수행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선적인 대화 아니겠는가. 선이라는 것이 일상화된 불교수행이라고 본다면 말이다. '일체가 화두'이며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수행이며 '평상심이 도'라고 했으므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다시 선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 선수행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와 공감하는 불교가 되려면 이런 선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

거의 200명에 가까운 참가자들 중 유럽계 미국 중산층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 얼마나 진지하게 수행하고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는지 "미국불교는 가벼울 것"이라는 편견이 사라졌다. 3년째 매번 참여한 한 중년 부인은 수행센터에 오기 위해 3일 동안 차를 몰고 왔다고 했다. 그녀의 말에서 현지 미국불자들의 수행 열의를 실감할 수 있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틱낫한 스님의 블루클리프 젠센터에서 교육자를 위한 수행 프로그램 중 2박3일만 참석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라는 표어 아래 각처의 선생님들을 모아 일상 수행법을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참으로 공감이 갔다. 한명의 좋은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프로그램은 심신을 이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땅과 자연의 힘을 느끼고 함께 호흡하는 것 등으로 진행됐다. 중간 중간 운력과 마음나누기 시간이 있었다. 여기서는 공양시간 중에만 묵언이었으나 소란스런 대화나 잡담은 없었다. 수행 중엔 자연스레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는 것 같다.

또한, 특이할 만한 것은 공양시간 중간에 종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모든 동작을 멈추고 자기를 살피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틱낫한 스님의 수행센터들에서는 항상 하는 것이라는데 순간순간 자기를 살피는 것을 놓칠 때 다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됐다. 또, 처음 수행하는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서도 마음을 살피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이점이 보였다. 그러나 자칫 형식적이고 부자연스런 멈춤으로 보이기도 했다.

3주간 총 17군데의 수행센터를 둘러보았다. 지면상 그 중 일부만 쓰는 것이 아쉽다. 숭산 스님의 관음선종 본사인 프로비던스 젠센터의 미국인에 의한 우리말 예불도 감동적이었고 3주간의 하안거 결제에 20여명이 넘는 재가불자들이 단체생활하며 우리나라 선방식으로 열렬히 정진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미국 불교의 진지함을 느꼈다.

또, 샴발라 센터와 달마펑크, 뉴욕시내의 여러 소규모 수행모임들도 장소를 공유하면서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하는 열기는 오히려 뜨거웠다. 그들은 생활 속의 문제를 진지하게 불교수행을 통해 풀고 있었다. UN 종교모임에서 활동하는 원불교 교무님들과의 UN 방문도, 원달마센터 교무님의 친절한 안내,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의 멋진 대웅전 불사 이야기와 대관음사 주지 청호스님의 프레젠테이션도 기억에 남는다.

뉴욕 거리의 현지인들이 우리에게 합장 인사를 하는 생소한 경험도 이색적이었다. 앞서 미국불교를 다진 많은 선지식들의 성취와 공헌, 부처님의 음덕 덕분이 아닌가! 또한, 3주간의 연수 일정에도 많은 사람들의 공덕이 녹아 있다. 도와주신 모든 이들께 감사드리며, 일체중생에게 회향한다.


고경 스님

실상예불선으로...
불자 여러분 이땅의 아픔과 갈등의 치유를 발원하옵니다.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部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然
(생야일편부운기) (사야일편부운멸) (부운자채본무실) (생사거래역여연)

삶이란 한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오. 죽음이란 한조각 구름이 없어짐이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것 죽고 살고 오고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출처: 서산대사 해탈의 시





영가(정신착란증)에 시달리며 고생하시는 분
사람이면서 사람 행동을 못하시는 분은
실상예불선을 받들어 수지 독송 하시며
부정을 긍정으로 불안한 마음을...

❶ 관찰한다
❷ 영적인 본질을 보는 것
❸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신다.
❹ 계속되면 스님을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 총무 010-4566-4504

(社)護國佛教曹溪宗 총무원장 유심성도 jogyejong.kr

• 총무원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1번길 16 부산역 앞 관음정사
전화 051)468-5657 | 팩스 051)442-5659 | 모바일홈페이지 http://jogyejong.kr
부설단체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 시신 및 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 본 디스크의 내용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051)442-5658]

감 독 : 관음 박몬비 | 조감독 : 무념 도갑원, 청곡 강모종 | 사진촬영 : 보교기획
제 작 : (주)예인미디어 | 녹 음 : 그냥해 STUDIO
기 획 : 유심스님 | 요 령 : 봉덕스님 | 목 탁 : 혜명스님 | 염불선,징 : 유심스님

판매처 : 부산불교전시관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330-152번지
☎ 051)644-8092

時에 불교 공사상 담아낸 청빈한 선비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㉘ 임당 정유길

조선 중기 문인이자 관료였던 임당 정유길(林塘 鄭惟吉, 1515~1588)은 차를 즐겼던 선비로 70여 명이 넘는 승려들과 교유하며 이들의 시축에 제발을 썼던 인물이다. 조부가 영의정 광필(光弼)이고 아버지는 강화부사 복겸(福謙)이었으며 어머니 또한 이수영(李壽永)의 딸이었으니 내외가문(內外家門)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 비상한 기억력을 지녔던 그는 책을 읽을 때에 여러 줄을 한 번에 읽었으나 읽은 내용은 끝내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니 범인(凡人)과 다른 비범함을 타고났던 인물이었음이 분명하다.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쓴 '묘지명(墓誌銘)'에는 그의 천재적인 면모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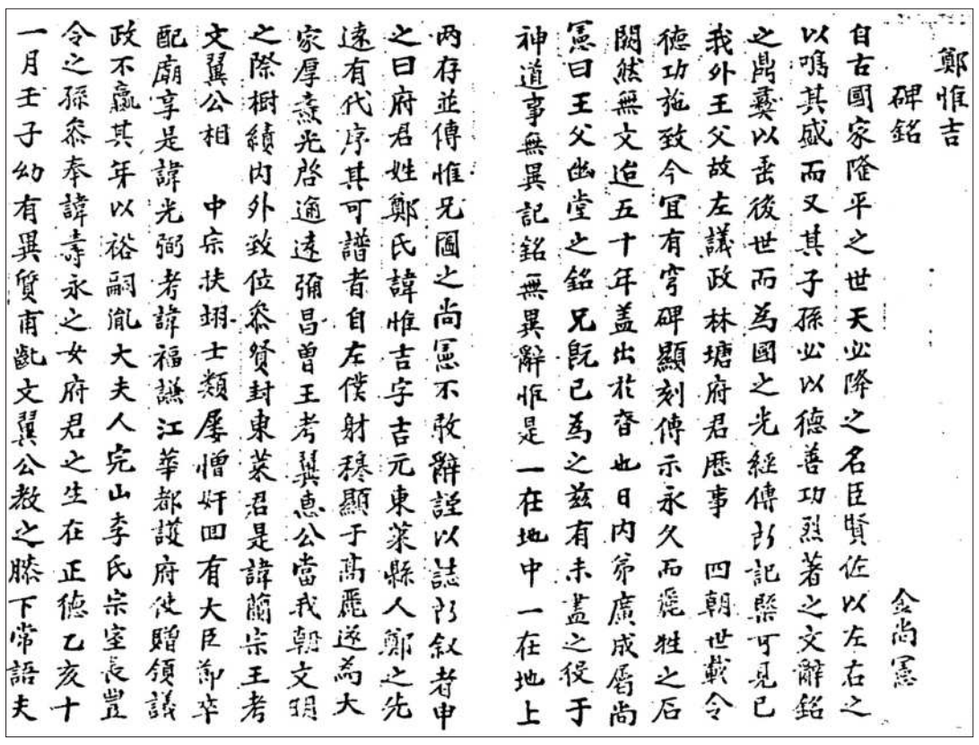
17세에 사마시(司馬試)를 보아 제 6등으로 합격하였다. 그러나 여러 고관(考官)들이 그 글을 기특하게 여겨 앞을 다투어 1등을 시키려고 하니 평소에 사람을 잘 알아보는 데 이름이 났던 김극성(金克成)이 "이 사람은 후일 나라의 그릇이 될 것이니 일찍부터 이름이 누설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로부터 소년등과(少年登科)나 어린 나이에 세상에 이름이 나는 것을 극히 꺼렸던 선인들의 생각은 오랜 세월 터득한 속리(俗理)일 것이다. 따라서 나라의 동량임을 한눈에 알아본 김극성(1474~1540)은 어린 정유길의 재주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우려했던 셈이니 사려 깊은 그의 배려는 당색(黨色)이 또렷하지 않던 시절의 미덕이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당색의 폐단은 컸다. 처음으로 당색이 촉발된 것은 이조전랑의 자천제(自薦制)에서 시작되었다. 선조 7년(1574) 이조전랑 오건(吳健)이 이임하면서 김효원(金孝元)을 천거하였는데 심의겸(沈義謙)의 반대로 논란이 일었다. 후일 전랑 김효원의 후임으로 심의겸의 아우 심충겸(沈忠謙)이 물망에 오르자 김효원이 반대하면서 이들을 지지하던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양분되었다. 당시 정유길은 퇴계의 문인 김효원을 지지했다고 전해진다.

역사적으로 당색의 촉발은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 그 폐해는 조선 중기 이후 사림의 정론을 좀먹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유길 또한 시대 흐름을 주도했던 관료로서 비교적 순탄한 환로(宦路)를 거쳤지만 당색의 폐해를 짐작하지는 못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아무튼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몫이다.

정유길의 삶의 여정을 대략 살펴보면 1531년 사마시에 합격한 후, 1538년 별시문과에 장원하여 사간원정원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공조, 이조좌랑을 거쳐 세자시강원문학을 역임하였다. 1552년 도승지에 오른 후에는 이황과 함께 성학을 진흥시키기 위해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으니 성리학의



鄭惟吉 碑銘 金尙憲

自古國家隆平之世天必降之名臣賢佐以左右之以鳴其盛而又其子孫必以德善功烈著之文辭之閒蓋以垂後世而爲國之光經傳所記歷可見已我外王父故左議政林塘府君歷事 四朝世載令德功施致今宜有穹碑顯刻傳示永久而兪牲之閟然無文追五十年盖出於眷也日內弟盧成虎狀曰王父幽堂之銘兄旣已爲之玆有未盡之役于神道事無異記銘無異辭惟是一在地中一在地上兩存並傳惟兄圖之尙忍不敢辭謹以誌所叙者申之曰府君姓鄭氏諱惟吉字吉元東萊縣人鄭之先遠有代序其可譜者自左僕射穆顯于高麗逐爲大家厚慶光啓適遠殖昌曾王考翼惠公當我朝文明之際樹績內外致位參贊封東萊君是諱簡宗王文翼公相 中宗扶翊士類屢憎奸回有大臣節配廟享是諱光弼考諱福謙江華都護府使贈領議政不蠹其年以裕嗣胤大夫人完山李氏宗室長豈令之孫參奉諱壽永之女府君之生在正德乙亥十一月壬子幼有異質甫齠文翼公教之膝下常語夫

〈국조인물고〉 김상헌이 쓴 '묘지명'.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이처럼 소명의식이 있었던 셈이다.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에 오른 후 예조 판서로 승진, 1581년에는 이조 판서에서 우의정에 올랐다. 하지만 윤원형(尹元衡)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그를 상신할 수 없다는 사헌부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다시 관직에 나아간 것은 1583년이다. 예조 판서에서 우의정에 오른 그는 1585년에 좌의정에도 올랐으니 그의 환로는 약간의 고비가 있긴 했어도 비교적 순탄했다고 하겠다.

〈국조인물고〉에 담대했던 그의 장부다운 모습을 "요동(遼東)에 도착하였을 때 수레가 진흙탕에 빠졌는데 역관(譯官)과 역부(役夫)들은 모두 뒤에 있었다. 갑자기 달로(撻虜) 기병 수십 명이 어느새 이르러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쌌지만 수레에 단정히 앉아 동요하지 않은 정유길의 모습을 본 오랑캐들은 '대인이다'고 하여 큰 길로 수레를 끌어내주고 떠났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그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늘 충후(忠厚)와 근신(謹愼)을 근본으로 삼았다. 외조부의 선비다운 삶의 궤적을 자랑스럽게 여긴 김상헌은 〈국조인물고〉 '묘지명'의 말미에 "여기에 남은 공렬(功烈)을 선양하여 소상하게 비석에 기록했도다. 후손이 여기에 오거든 경건히 이 글을 볼지어다. 그 누가 글을 지었는가. 외손(外孫)의 말이도다"고 하였다. 이는 외조부에 대한 그의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유길에 대한 또 다른 평가는 "사람들이 더불어 견줄 수 없는데도 문예(文藝)를 가지고 스스로 고상한 체하지 않았고, 지위가 날로 융성해져도 다른 사람에게 위세를 부리지 않았으며, 계책을 세우고 경영하여 국정을 보필한 공로가 많은데도 사람에게 지혜를 보이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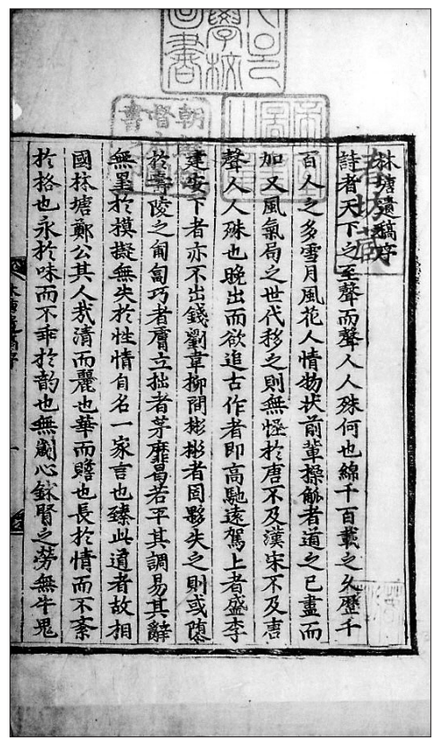
어려서 두각 나타낸 文才
이황과 성학 진흥에 노력
음식·의복 등 사치하지 않고
승려들과 격의 없이 교유해

공에 대한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고 한 것에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늘 검소하고 꾸밈이 없었던 그는 음식과 거처, 의복을 사치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늘 온화하여 마치 봄빛과 같았다고 한다. 한편 풍부한 문장력을 바탕으로, 시에 능했던 그는 당시 시인 묵객이나 승려 등 방외지사(方外之士)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만약 그가 이들의 정자의 문미(門楣)나 객사의 벽에 시를 써주면 영광으로 여겼다고 하니 이는 시뿐 아니라 글씨에 능했던 그의 재주를 아끼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튼 그의 〈임당유고(林塘遺稿)〉 하권에는 〈방외록(方外錄)〉 장을 별도로 두어 78여 수에 이르는 시들을 수록해 두었는데 대부분 승려들의 시축에 쓴 시를 모아둔 것이다. 먼저 그의 〈다른 사람의 시를 차운하여 웅 스님의 시축에 쓰다(次人韻 題雄上人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나무 집, 구름 안석에 기대어(竹屋憑雲几)
송창의 눈썹 흰 이와 짝 했네(松窓伴雪眉)
맑은 마음, 원래 법도가 있으니(淸心元有法)
차를 다려 무엇을 하리오(煮茗欲何爲)
매장각을 지어(觀卜梅粧閣)
물 가득한 연못에서 시초를 찾으리(尋詩草滿池)
거듭 만나는 건 응당 바탕이 있어서니
(重逢應有地)



정유길 〈임당유고〉 일부.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

가을날, 흰 수염을 비비리(秋日撚霜 ㊃)

대나무는 맑고 굳센 기상을 상징한다. 따라서 선비의 사랑채나 수행자의 작은 암자에는 대나무를 심었다. 이는 선비나 수행자의 풍류나 아취를 드러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론 그들이 지향했던 이상향을 담고자 했다. 그러므로 "죽옥(竹屋)에서 구름안석에 기대어 송창의 눈썹 흰 이와 짝 했네"라고 한 뜻은 바로 웅 스님의 수행자다운 풍모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차는 수행자의 몸과 정신을 정화해 주는 용품이었기에 맑은 마음을 지닌 웅 스님에게는 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웅 스님이 차를 다리는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결국 웅 스님의 깊은 수행력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리라.

또 다른 시 〈감 승려의 시권에 쓰다(題鑑上人卷)〉는 그가 불교의 공사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시인데 그 내용은 이렇다.

느긋하게 밥을 먹고 격자창에 기대어
(委蛇退食倚窓眼)
활수로 햇 용봉차를 다리네(龍鳳新茶活水煎)
스님들 오고감이 한바탕 꿈인데
(僧到僧歸一場夢)
학이 노니는 곳 봄 하늘에 노을이 비치네
(鶴邊斜日下春天)

느긋함은 게으름이 아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수행자와 선비는 대상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 언제나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더구나 암자의 향기로운 차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가 지향했던 이상, 곧 맑음의 극치를 이룬 상태임을 드러낸 것이었다. 특히 그의 시삼매(詩三昧)는 바로 "학이 노니는 곳 봄 하늘에 노을이 비치네"라는 대목에서 드러나고 불교의 공사상은 "스님들 오고감이 한바탕 꿈"이라는 대목에 또렷하다.

실제 정유길이 어느 때부터 승려들과 교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의 문집 〈방외록〉에 수록된 시문에는 승려들과 격의 없는 교유를 이어나갔던 정황이나 승려들의 암자에서 차를 즐긴 상황뿐 아니라 서로 담소하며 시를 짓던 일상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편 당시 승려들 중에는 그림과 시에 능했던 수행자들이 많았던 듯하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현중 승려의 시권에 쓰다(題山人玄宗卷)〉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대의 붓 끝에서 살아난 화삼매
(君復筆端三昧ø)
오호의 가을은 현종의 소매 속에 있네
(玄宗袖裡五湖秋)
(시를)보자 홀연히 강 동쪽이 생각나니
(看來忽起江東念)
마음은 망망한 바다 일엽편주에 있네
(興在蒼茫一葉舟)

현중 스님은 붓끝에서 화삼매(畵三昧)를 드러낼 수 있었던 수행자였다. 이뿐 아니라 그의 옷소매에 오호의 서늘한 기운 서렸다 하니 그는 분명 눈 푸른 납자였을 것이다. 또한 정유길이 승려들과 오래도록 격의 없는 교유를 이어갔던 모습은 〈스님의 시축에 강극성의 운을 차운하여 쓰다(山人軸 次姜克誠韻)〉에서 드러나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가장 이름이 알려진 청천거사는
(菁川居士最知名)
칠보 만에 시를 완성해 사람을 놀라게 하네
(詩語驚人七步成)
늙은 그대와 나는 승가와 세속에서 만났으니
(老我逢僧 臼裡)
어찌 늙은 서생에 잘못이 없으랴
(白頭無柰誤書生)

청천거사(菁川居士)는 강극성(姜克誠)인 듯하다. 그는 위나라 조자건(曺子建)처럼 일곱 걸음을 뛸 때마다 시 한수(七步詩)를 지을 수 있었던 천재였으니 스님 또한 시에 능한 인물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의 교유의 매개물은 시와 차였다. 억불시대에도 이들의 유불 교유는 이어졌으니 이는 "늙은 그대와 나는 승가와 세속에서 만났으니"라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늘 책과 꽃, 대나무를 심은 검박한 집에서 정심(靜心)을 함양하며 마음껏 소요를 하고자 했으니 유독 승려들과 넓은 교유를 이어갔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라 하겠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정유길의 자는 길원(吉元), 호는 임당(林塘), 상덕재(尙德齋)를 썼다. 〈임당유고(林塘遺稿)〉를 남겼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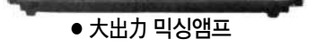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 내 재등록을 하시여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구제 하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7월 28일 부터**
② 접수마감 : **2016년 9월 29일 까지**
③ 구비서류 :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3개월 이내) ····· 각 1부
·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각 1부 · 승려증 · 증명사진 3매
④ 접수장소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번지)
⑤ 전화번호 : 054-974-2605 / 팩스 : 054-974-2705

※ 위 기간에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의 종도로서 지위를 인정치 않으며 세무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찰등록증 취소 및 말소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이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은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道伴의 향기

부산 효심무료급식소 봉사도반

정성과 손맛 듬뿍 孝心 밥상…



효심사 효심무료급식소는 지역 독거어르신들에게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60여명의 봉사자들이 활동하며 런치쇼 및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행복을 전하고 있다. 급식은 매주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된다.

2007년 부산불교계는 아픔을 겪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던 한 스님의 이중생활이 방송을 타면서다. 여성과의 동거, 그리고 폭력 등 스님의 범계행위가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 실망하게 됐다. 무엇보다 스님이 운영하던 무료급식소는 후원 중단 등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그곳을 지켜온 자들이 있었다. 바로 효심무료급식소 봉사도반들이었다. 이 무료급식소는 10년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운영됐고, 올해부터 효심무료급식소로 이름을 바꾸고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독거어르신들의 식사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효심무료급식소 도반들을 만나기 위해 8월 14일 이 곳을 방문했다.

독거어르신이 바로 내 부모

무더운 여름이었다. 햇볕에 달궈진 부산 동래시장 길목에는 아지랑이가 피어 올랐다. 좁은 길을 따라 빼곡히 위치한 가게들과 집들로 바람조차 불지 않았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 효심무료급식소가 자리해 있었다.

효심무료급식소 입구에는 하얀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무료급식'이라고 쓰여진 글귀였다. 이 글귀에는 넉넉한 마음이 느껴졌고, 이에 더위로 인한 짜증은 저절로 사라졌다.

효심무료급식소는 골목길 내 작은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다. 급식소 안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이들로 분주했다. 준비 중인 음식은 깻잎잡채튀김과 감자튀김 그리고 여러 가지 무침 등으로 말 그대로 잔칫상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한 봉사자들은 바쁜 손을 쉬지 않고 기자를 맞았다. 조리를 하던 그들은 모든 음식에 '효심(孝心)'을 담고자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다. 그 이유는 어르신이 곧 부모이며 도반이 곧 가족이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하신 어르신들이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밥을 안 지어 주는데'라며 저희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하세요. 그러니 저희가 딸이자 아들이죠. 어르신들이 밥 한 그릇 깨끗하게 비우고 가시면 저희들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요. 더 좋은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아닐까요?"

효심무료급식소 봉사자들은 스스로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라고 불렀다.

"저희들끼리도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요. 가족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도 말이죠. 아무래도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다 보니 넉넉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살행을 실천하는 이들이 모여 있으니 이곳이 바로 복밭입니다."

효심무료급식소 내에는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았다. 이들은 '불 옆에 있으면 그냥 똑같이 덥다'는 말로 둘러 말했다. 아끼고 아껴서 더 좋은 음식으로 공양 대접을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열악한 환경 극복한 자비심

폐쇄 위기 속 10년간 정상화

비용절약 위해 냉방도 줄여

독거어르신 자녀역할 자처

봉사하며 서로 가정사 상담

음식 속에 담긴 사랑과 관심

70여 어르신 배 · 급식 도맡아

색소폰 공연 등 런치쇼 진행

불참시 가정방문해 도시락 전달

"한끼 식사로 삶 여유 찾길" 발원

하지만 급식소 내 더위도 어르신들이 오기 전이면 말끔히 가신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하시도록 에어컨을 강하게 틀기 때문이다. 밥을 짓느라 흘린 땀을 그제야 훔치며 그들은 환한 웃음을 짓는다.

복이 넘치는 밥상으로 건강을

급식시간이 되기도 전에 효심밥상 내 자리는 가득찼다. 주방에 법당까지, 총 60평 가량의 급식소에 70여명의 어르신들이 몰려온다. 비좁아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다투는 일이 없다. 한 테이블에 채워 앉자며 자리를 내주는 어르신들의 모습에도 여유와 배려가 느껴졌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배려하는 분위기가 자리했던 것은 아니었다.

황현주(58)씨는 "예전에는 서로 고함치는 일도 허다했고, 특히 다른 분들과 함께 앉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황 씨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 보다 어둡고 화난 그들에게 웃는 얼굴로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이 서로 다투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효심무료급식소 황태옥 팀장은 "저희 무료급식소의 가장 큰 자랑은 '행복한 밥상'입니다. 주지 효문 스님의 배려와 봉사자들의 노력이 일궈낸 결과죠. 처음에는 다른 분들의 말씀처럼 힘들었어요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행동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전해진 듯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많은 날을 고민한 끝에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스틱 봉지 커피였다. 4명이서 한 식탁에 앉아 드시는 분들에게 나눠주며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황 팀장은 "스틱 봉지 커피가 작지만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친구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십니다. 이제는 커피보다는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작은음악회로 어르신 문화생활도

이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 도중 갑자기 색소폰 소리가 들려왔다. 런치쇼였다. 어르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 달에 세 차례,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런치쇼는 효심무료급식소만의 작은 음악회였다. 색소폰 연주자의 멋진 연주에 이어 봉사자와 어르신들이 나와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식사를 하던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다.

황 팀장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때 급하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효문 스님과 봉사자들이 걱정을 했다"며 "밥 한번 여유있게 드시지 못한 분들이기에 식사시간 만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스님이 런치쇼를 계획하셨다"고 말했다.





“독거어르신도 내 부모 내 가족”



효문 스님이 급식소를 찾지 않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효심무료급식소 봉사도반들은 어르신 보살핌에 환희심이 절로 생겨 미소가 나온다고 했다.



2016년 효심무료급식소 개원 당시 모습. 부산불교계가 정상화에 힘을 모은다.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동안 진행되는 런치쇼.

처음에는 어르신들에게도 쓸데없는 일이라며 타박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하면 어르신들이 서운하다고 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효심무료급식소 봉사자들의 노력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들은 어르신들이 몇일 급식소를 찾지 않으면 방문하기도 했다.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거동이 어려워 급식소를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에게는 도시락을 전한다.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바로 사랑과 관심이었다.

매달 300만원 필요해 후원 절실

효심밥상의 전신인 무료급식소 ‘민들레밥집’은 한 달에 8000명의 식사를 책임지던 곳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들레밥집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부산불교계가 한마음으로 뭉쳤다. 2008년 당시 범어사 주지였던 정여 스님의 총책임 하에 화엄승가회를 비롯해 많은 스님들이 힘을 모았다.

부산불교계의 노력 끝에 올해 4월 26일 ‘효심무료급식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무료급식소는 부산 금강암 도감이었던 효문 스님이 맡았다. 스님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봉사 할 곳을 찾아 기도 중이었다. 부처님의 자비를 나누고 함께 할 곳을 찾던 스님은 이곳을 방문한 직후 망설임 없이 나섰다.

효심무료급식소에서는 한 달에 3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식비로 소요된다. 전기세와 수도세, 다양한 부대비용까지 제반 비용은 그 이상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특별한 후원은 없는 상황이다. 효문 스님은 봉사자들에게 운영비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SNS로 신행공유 ‘한가족’

효문스님 아침마다 기도정진

독거어르신 · 봉사자 축원

카톡 통해 500명 기도 동참

주변전파, 지인 자살도 막아

전법으로 모인 도반 봉사로 화답

봉사자들은 급식소의 문을 열 때 마다 행복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지인 효문 스님이 부임 한 후로 기도소리가 급식소를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김경란(52) 봉사자는 “아침 마다 급식소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 생일 까지도 거의 다 외우시더군요. 도반들의 생일이 되면 축원과 꽃다발 케익을 보내시고 격려를 해주세요. 관심과 배려가 주는 힘은 저희를 더욱 신이 나게 합니다.”

주지 효문 스님의 기도법은 특별하다. 기도 후 잊지 않고 카톡 메신저를 통해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을 500여명에게 빠지지 않고 모두 보내기 때문이다. 그 전파력은 500여명에서 전국 5000여명으로 확대되어 전달된다.

김경란 봉사자는 “아침 7시가 넘으면 저희들은 꼭 카톡을 확인해요. 스님께서 아침에 보내주신 경구와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죠. 저희는 그럼 주변 친구와 지인들에게 안부와 함께 전달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 주변 지인의 자살을 막기도 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며 준비를 다해 뒀는데 말씀을 읽고 생각을 돌이킨 것이죠”

봉사자들은 나눔 뿐 아니라 지혜를 키워 주는 말씀으로 행복하다고 했다. 또한 스님의 기도는 그 무엇보다 든든하다는 것이다. 효문 스님은 “매일 어르신들의 건강과 봉사자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면 잘 풀릴 것”이라며 “이곳의 인연이 불국토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불교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분들이 곧 부처님”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효심밥상 도반들은 하루에 1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조를 나눠 진행한다. 도시락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양에 그들의 손길은 너무나 바빴지만 이들은 환한 미소를 보였다. 도반들은 봉사를 통해 감사함을 배우기 때문에 저절로 미소가 나온다고 했다.

자원봉사자 황현주 씨는 지난해 봄에 효심밥상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같은 절에 다니던 도반의 권유에 망설임이 없었다. 이미 15년 간 통도사 자비원 호스피스를 비롯해 급식소 봉사 등을 해온 그였다.

“사람이 부족하단 말에 자석처럼 끌려 오게 됐습니다. 봉사는 삶으로 배우는 법문입니다. 집에 가서도 주위 어르신들을 보살피게 되더군요. 삶 자체가 변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봉사는 시간이 날 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수 있다. 돈도, 명예도 아닌 나눔이 제일인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보람찬 인생이 아니겠나”며 환한 미소를 보였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전법일기

“일어나라, 그리고 행동하라”

2016년을 시작으로 조계종 사회노동 실천위원으로 위촉된 스무 분 스님들의 첫 인사는 지난 겨울 차가운 길 위에서 이루어졌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노동개혁안,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그동안 뉴스에서 간간히 볼 수 있었던 사회적 이슈를 적은 플래카드들이 서울시청광장에 휘날리고 있었다. 엄청난 군중과 고함소리, 결사적인 눈빛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분노의 울부짖음은 시청역 출구를 막 나온 두 발을 잠시 묶어두었다.

“스님도 이런 곳에 오셨어요?”

지나가는 거사님 한 분의 질문에 정신을 가다듬고 멋지게 자기소개를 하려는 순간, “스님은 절에서 수행 하시는 분 아닌가요?” “이런 곳에 오셔도 되나요?” “저리 비키세요!” 등 많은 말을 들으며 거친 손에 두루마기 자락이 당겨져 몸이 숙여졌다. 머릿속에서 준비한 대답 ‘으음. 그것은….’이라는 말은 입 안에 맴돌았고 큰 고함소리와 밀려드는 인파 사이에서 한쪽으로 밀려났다. 옷깃을 조심스레 가다듬었을 즈음 그 거사님은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난 후였다. 잠시 어리둥절하게 서 있다가 다시 주변을 살펴보았다. 저 멀리 몇 분의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서야 짧은 눈인사를 나누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집회가 끝나고 모임이 해산하면서 정리와 청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목적으로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플래카드와 구호용지들을 몇 장 주우며 광장에서의 첫 날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모은 구호들과 카드 자료들을 다시 보며 그날을 떠올린다. 그날 집회에서 만난 거사님의 질문이 귓속에 맴돈다. 스님들이 광장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 거사님도 궁금했을 것이다.

그동안 드물지만 면면히 스님들의 사회참여가 있었다. 천성산 도롱뇽, 평화순례108배, 4대강 소신공양 등 주로 자연과 환경, 생명과 생태에 관한 논의들이 큰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노동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한 조계종의 공식적인 사회기구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더 낯설고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이다. 모교인 동국대학교 지도교수님의 수업에서 ‘공업(共業)’에 대한 심도 있는 가르침과 승가가 대사회적 실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있게 배운 적이 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지만, 많은 이들이 나라고 하는 틀에 갇혀 나와 나 아님을 나누고 집착해 탐진치의 번뇌를 일으켜 고통 받는 삶을 살아간다. 이제는 나라는 굴레를 벗어나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인해 온전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에 나와 다른 이들의 고통과 아픔에 귀 기울여 위로하고 새로운 대안을 고민해 함께 실천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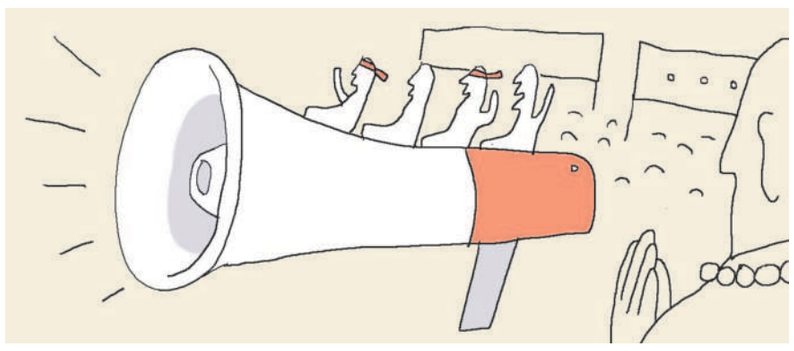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수업 당시 그 푸른 마음을 되새겨본다. 사실 이러한 조계종 사회 실천모임도 지도교수님 소개로 알게 되었으니 다른 이의 도움과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감사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자신의 목표성취의 한쪽 면만 고집하고 있었던 그동안의 삶을 반성했다. 절은 세속의 도피처나 은신처가 아니라 잠시 벗어나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이치를 깨우치는 곳이다.

이제는 그 이치대로 실천해보려 한다. 혹 그 거사님을 다시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 싶다. “제가 광장집회에 온 이유는 내 안의 고통을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라고…. 광장에서 만난 거사님의 고맙고 감사한 질문은 앞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내내 나의 화두가 될 듯하다. 개인수행과 공동의 사회적 실천의 조화를 위해 내딛는 오늘의 한걸음. 어둡지만 밝다. 자! 일어나자. 그리고 행동하자!



고금 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자성을 찾아가는 근본불교

제 1 기생 길 따라 절로 가는 설봉포교원

6개월 과정 신입생 모집

화엄경(華嚴經)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반야심경(般若心經)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 입학식 : 9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공부하는 날

• 화 엄 경 반 : 9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반야심경 반 : 9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과 진여실상(眞如實相)을 화엄만다라(華嚴曼荼羅)와 반야(般若)의 지혜바라밀(智慧婆羅蜜)을 실천수행 하므로 즉신성불(卽身成佛)하는 참 불자(佛子), 법우(法友)의 법연(法緣)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설봉포교원

ㅁ주소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131-5번지
010-5660-3653 주지스님

천지운명
건강 120세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상담 환영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H·P 010-4496-6060 / 팩스 043)881-1359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 77번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 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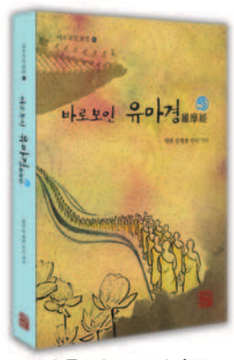


화엄경1,2

화엄경 전자책 1권부터 5권까지 무료 공개!!

www.zenparadise.com 에 다운로드 방법 공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였다. 이러한 안목으로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 하신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觀 수행의 시작은 '無常觀' 서부터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 본문에서는 지(止)를 닦으면서 동시에 관(觀)을 닦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지관쌍수(止觀雙修)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止)만 닦으면 마음이 가라앉아 혹 해태를 일으키거나 온갖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대비를 멀리 여의게 된다. 그러므로 관(觀)을 닦아야한다. 관을 닦아 익히는 자는 마땅히 일체 세간의 인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위법(有爲法)이 오래 머무는 것이 없이 잠깐 동안에 변해 무너지며, 일체 마음의 움직임이 찰나찰나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니 그러므로 괴로운 것이라 관하며, 과거에 생각하던 모든 법이 황홀하여 꿈과 같다고 관하며, 현재 생각하는 모든 법이 번갯불과 같다고 관하며, 미래에 생각할 모든 법이 마치 구름과 같아서 홀연히 일어나는 것이라 관하며, 세간의 일체 존재하는 몸이 모두가 깨끗하지 않아서 하나도 즐길 것이 없다고 관해야 하느니라."

지(止:samatha)와 관(觀:vipasyana)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관을 닦는 기초를 제시하였다. 지(止)만 닦으면 마음이 가라앉아 게을러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대비의 이타행을 등한시 하는 폐단이 생긴다. 그러므로 관을 닦아야 하는데, 먼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有爲法)은 하나도 영구불변한 것이 없으며, 쉬지 않고 생성파괴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 관찰한다. 이를 무상관(無常觀)이라 한다.

다음으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행위도 순간에 생겨났다 순간에 없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모두 괴로움에 불과하다는 고관(苦觀)이 있다. 또 과거 · 현재 · 미래의 삼세에 걸쳐 생각하는 모든 사념은 어느 것 하나 절대적 자주성을 지닌 실체가 없는 것이며(無我), 과거의 것은 꿈과 같고 현재의 것은 번개와 같고 미래의 것은 구름과 같아 별안간 나타나는 것이라고 관하는 무아관(無我觀)이 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관은 세상의 육체적 존재는 모두가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온갖 종류로 더럽혀져 있는 것이라 하나도 즐길 만한 것이 못된다고 관찰하는 부정관(不淨觀)이 있다.

이 네 가지 관은 현실세계의 실상에 대한 기본적인 관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법상관(法相觀)이라 한다. 이 법상관을 통한 윤리적 실천을 위한 다음 단계의 관을 대비관(大悲觀)이라 한다.

일체 무상에 대한 관찰이 '무상관'
止와 觀을 동시에 바르게 닦아야

"관을 닦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일체 중생이 시작을 알 수 없는 세상부터 모두 무명의 훈습으로 인해 마음이 생멸해서 이미 일체 몸과 마음이 큰 고통을 받았고, 현재에도 한량없는 핍박이 있으며, 미래의 괴로움도 또한 한정이 없어서 버리기도 벗어나기도 어렵거늘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중생들이 이처럼 매우 불쌍하다 여겨라.

이렇게 생각하고 곧 용기 있게 큰 서원을 세워서 내 마음의 분별을 여의고 시방에 두루 일체 모든 착한 공덕을 닦아 미래 겁이 다하도록 한량없는 방편으로 일체 고뇌 중생을 구원해 열반의 가장 으뜸가는 즐거움을 얻게 하리라 하라. 오직 앉아 지(止)에 전념할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응당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살펴야 한다."

중생에 대한 대비관을 쓰는 방법을 설명한 내용이다. 먼저 중생들의 딱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다. 무명의 훈습 때문에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온갖 고통을 받게끔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한없는 핍박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도 받아야 할 고통이 일정한 선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차별적인 대립의식을 버리고 용기를 내어 큰 서원을 세워 중생에게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착하고 좋은 일을 다 하며 모든 고통의 극복과 평화의 성취를 실현하고자 대외적 봉사를 사양하지 않고, 지(止)에 전념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깨어 있는 마음으로 항상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인지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판단해야만 하는 것이다.

스스로 즐거움이 보시의 보답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㉞ 오묘한 과보

諸來求欲皆使隨意。使稱本望名善施主。不能稱彼本望雖復大富名貧窮者。富者雖與無悲愍心。名曰與不名施主。悲愍心施是名施主。若不食 ㅁ無有果報。施雖與不名為施。無悲心施雖與不名為施。有悲心者雖復不施名之為施。若求報施者名為施者。商賈之人亦可名施。若求報施果報猶尙無量。況有悲心不求報施果報何可稱計。若求報施唯可自樂。不能救濟徒自疲勞。悲心施者能有救濟。後得果時能大利益。(제래구욕개사수의。사칭본망명선시주。불능칭피본망수부대부명빈궁자。부자수여무비민심。명왈여불명시주。비민심시시명시주。약불식담무유과보。시수여불명위시。무비심시수여불명위시。유비심자수부불시명지위시。약구보시자명위시자。상가지인역가명시° 약구보시과보유상무량。황유비심불구보시과보하가칭계。약구보시유가자락。불능구제도자피로。비심시자능유구제。후득과시능대이익。)

번역

모든 구걸하는 이가 와서 모두 뜻대로 욕심껏 구해도 본래 바라는 대로 주면 착한 시주자라고 부르나니, 그 본래 바라는 대로 줄 수 없으면 비록 다시 큰 부자여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부자가 비록 줄지라도 자비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름해 주었다고는 하지만 시주라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자비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시주라고 부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부른 과보가 없듯이 보시하고 비록 주어도 보시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없는 보시는 비록 주어도 보시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비심 있는 사람이 비록 다시 베풀지 못해도 보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 보시에 대한 보답을 바라서 보시자라고 부른다면, 장사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역시 보시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만약, 보시에 대한 과보를 바란다면, 과보는 오히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비심 있으면서 보시의 보답까지 바라지 않는다면, 과보를 어찌 칭량하며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보시의 보답을 바란다면 오직 스스로 즐거운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만 자신의 피로조차 구제하지 못합니다. 자비심의 보시라야 능히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니, 후에 과보를 얻을 때 능히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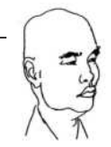
과보는 오묘합니다. 마치 꽃과 같습니다. 꽃은 열매가 되고, 때론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씨앗이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이 있다면 어떨까요. 꽃은 꽃이되 벌,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 꽃이라면 어떨까요.

자비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보시가 열매나 씨앗을 맺지 못하는 꽃과 같을 것입니다. 벌,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 꽃은 향기와 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비심은 보살의 향기이자 꿀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 부유할지라도 자비심이 없다면 그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제바라보살은 말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주는 것은 보시라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살은 인과법을 잘 아는 이입니다. 인과법을 알기에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구름을 몰아오면 비가 내리고, 대지가 그 은혜로운 비로 적셔지면 산천에 초목이 자라고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억지스러울 게 없습니다. 탐심을 인연으로 하여 험난한 파도가 일렁이는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반야용선이 있다면, 바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진리의 북을 울리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다양하게 펼쳐 보여주는 노정기(路程記)이다. 승려를 포함한 불자(佛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경전 밖의 구걸문화가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정신을 흐리게 하여 어지럽히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이 판을 치고 있다.

불교TV에 광고로 등장하는 사찰과 그 사찰의 주지 스님은 한 가지 소원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험 있는 사찰, 소원성취와 영가(靈駕)의 천도도량임을 침이 마르도록 선전한다.

또한 외국 승려까지 등장해 경전에도 없는 내용을 극락, 지옥으로 양분해 금방이라도 복 받고 벌 받을 것처럼 말장난을 늘어놓는다. 승복도 법복도 아닌 셔츠 하나 달랑 걸친 채. 거기다가 TV의 일요법회는 몇몇 스님을 제외하고는 표현과 논리를 갖추지 못한 채 처음도 중간도 마무리도 경전 밖으로 떠돌다 허무심으로 논리와 표현을 갖춰 처음도 중간도 끝도 개운하게, 진솔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실에서, 현장에서 만나는 스님들의 법보시(法布施)는 알곡이 드문 빈 쭉정이뿐일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무엇을 일깨워 주기 위함인지 메시지 전달이 되질 않는다. 처음부터 길을 못 찾고 중간에서 헤매며 끝마무리는 설법자도 듣는 청중도 어색한 여운을 남긴 채 막을 내리는 것이다. 개운한 법문은 가뭄에 콩 나듯 만나기 어렵다.

경전에 담긴 내용을 마음으로 녹여야 메아리도 울림도 메시지도 전달되는 법이다. 설법자가 헤매고 흔들리며 오락가락하면 청중은 감흥을 잃고 자리를 뜨고 싶다. 차라리 한 권의 교양서적을 읽는 게 도움이 되겠다며 신앙접근을 스스로 자책하며 멀어질 터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시험에 떨어져 재수하거나 삼수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대개는 재수생 시절에 몸과 마음을 다 잡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삼수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 터이다. 그

현실 타협하는 문화가 불교를 저해
사람을 키우는 불교가 미래의 희망

의 그림자처럼 막 내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 불교의 대표종단은 조계종이다. 그렇다면 부양가족도 없을 터인데 사찰경제를 앞세워 어지간히 공덕 불교, 복짓는 신앙을 강요하듯 풀어댄다.

무비 스님처럼 〈화엄경〉 세계를 펼쳐 보이고 종범 스님처럼 경학(經學)의 세계를 친절히 알려주며 월암 스님처럼 선학(禪學)의 세계를 간절하게 일깨워 줄 수는 없는지 아쉬움이 긴 그림자로 남는다.

종교도 경쟁사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터이다. 바른 신앙만으로는 다양한 바람의 욕구와 눈높이에 흔들릴 수도 있을 터이다. 경전의 내용이 진제불교(眞諦佛敎)와 세제불교(世諦佛敎)로 나눠지듯 방편설의 끌어당김과 알아차림도 중생교화에 큰 몫을 담당할 터이다.

그러나 타력신앙(他力信仰)이 자력신앙(自力信仰)으로 승화하여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인불사상(人佛思想)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물론 타력과 자력이 둘이 아니고 진제와 세제가 둘이 아닌 하나이지만 신앙은 사닥다리에 오르듯 하여 시야를 넓히는 데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법자는 경전과 어록을 중

런데도 한국 불교의 불자(佛子)들은 10년, 20년을 재수 · 삼수하듯,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걸음을 즐기고 있다.

누구의 탓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법보시 측에 서 있는 스님들의 몫일 터이다. 습관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현실과 타협하며 사찰 경제를 앞세우는 구걸문화가 바른 불교, 바른 신앙을 멀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찰을 짓고 탑을 세우는 일보다 인재를 기르는, 사람 중심 불교가 미래의 밝은 빛이요 희망이 될 터이다.

승려는 우월하고 신도는 열등한 게 아닌데도 승려는 의례히 대접받는 문화가 뿌리가 깊다. 승려는 수행자일 뿐 해결사가 될 수 없음에도 길흉화복(吉凶禍福)을 목탁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양심에 털 난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널려 있다.

이제는 제발이지 앉아 있는 불교에서 서서 움직이는 불교로,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 끌어당김의 불교에서 알아차림의 불교로, 방편불교에서 진리불교로, 첫째도 수행, 둘째도 수행, 셋째도 수행하는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 진리의 북을 울리는 주인공은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몫이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입종 및 사암등록 모집안내

법인등록번호 : 205421-0000520

대한민국의 승려라면 누구나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으로 병들어 가는 한국 불교를 바로 잡아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를 펼쳐 나갈 사찰 및 각 지역 교구장, 종도님을 널리 모십니다.

사찰등록신청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 인감증명서 2통
- 임대일 경우(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주지 임명 관련서류

- 서약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3매(여권사진 규격)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개인사암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총무원

전라남도 영암군 산호리 614번지 ☎ 062)222-6366

대구시 동구 파계로 120길 91-1 자인사 종무실

010-6399-0020 / 팩스 053)984-1129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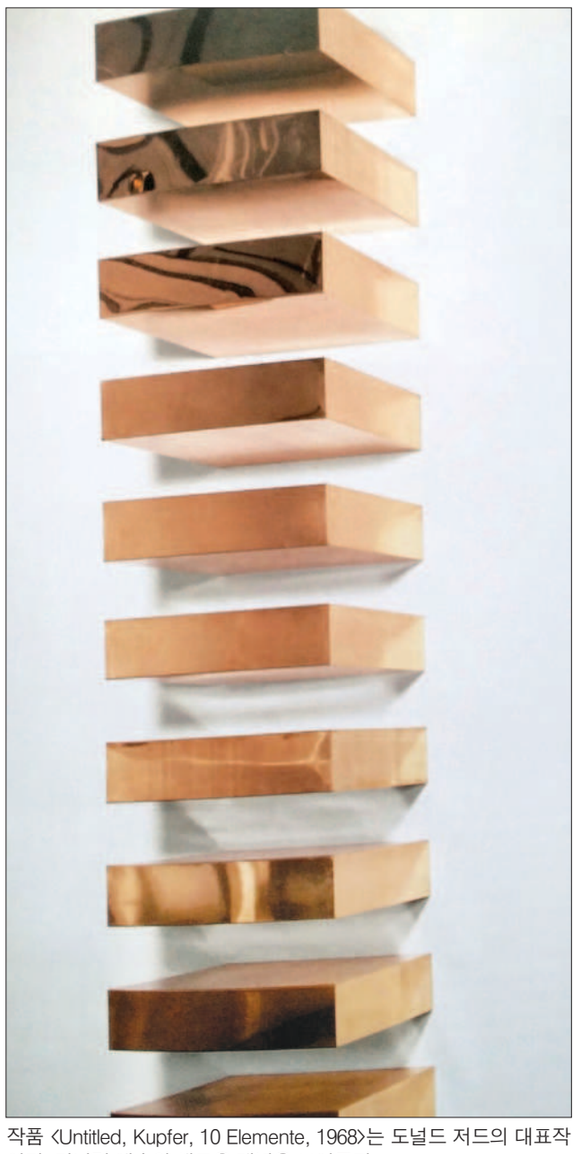
제2지점 054)282-9602

반복과 변화로 '無常' 진리를 보이다

禪과 현대미술
⑯ 도널드 저드 (Donald Judd)

禪과 空사상 접하며 깊은 감명
수행으로 자신의 내면세계 변화
'미니멀리즘' 대표 작가로 성장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게'
추상적 개념과 동어반복의 결합
반복 속에 무수한 변화 내재해



작품 〈Untitled, Kupfer, 10 Elemente, 1968〉는 도널드 저드의 대표작이다. 미니멀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보여준다.



철로 만들어진 작품 〈Untitled, Stahl, 6Elemente, Gesamtmass, 1989〉은 시간이 갈수록 부식돼 스스로 변화함을 보여준다.

호흡하는 숨소리가 고요한 가운데 생동감을 느끼게 해준다. 조용한 전시공간에 설치된 작품들은 호흡을 연상시키며 일정한 반복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널드 저드(Donald Judd, 1928~1994, 미국)의 작품을 직접 본 필자의 느낌이다. 고요하나 성성한 적적성성(寂寂惺惺)의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미니멀리즘 대표작가의 작품들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들이다.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던 그에게 선사상의 영향은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당시 그가 성장하던 미국 뉴욕의 미술은 유럽의 흐름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았으며 일부의 작가들에 의해서 미국적인 특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하지만 저드는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간 흐름이라는 것을 직시하며 자신만의 창의적인 예술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가 먼저 시도한 것은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었다. 화면을 비우는 것, 형태를 만들지 않는 것, 색을 칠하지 않는 것 등 기존의 가치나 질서들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러한 생각의 원류에 공(空)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그가 선사상을 접하면서 받았던 가장 큰 충격은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었다. 보이는 것이 공하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상은 그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도널드 저드는 작가가 무엇을 표현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 과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관점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인식하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명상을 하면서 조금씩 인지하게 되는 것이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조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며 고요할 때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호흡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호흡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인지한 그는 이를 자신의 작품에 도입하기 시작한다.

'동어반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형상이나 색채, 물체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였을 때 그 대상이 주는 느낌은 똑같지가 않고 변화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각각의 개체들은 동일한 크기, 동일한 색채, 동일한 재질 등 똑같아 보이는데 그것을 나열하였을 때에는 주변의 영향을 받아 각각의 특성들이 더욱 드러난다는 법칙을 깨달은 것이다.

회화에 미니멀리즘을 도입해 그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하며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도널드 저드이다. 그는 자신의 작품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명상과 독서, 관조 등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때문에 작품에 나타나는 특성들이 미세하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인지하기 위하여 관객 역시 고요하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Untitled, Kupfer, 10 Elemente, je 23x101.6x78.7cm, 1968〉는 저드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자신의 예술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미니멀(Minimal, 최소의, 극소의)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드러내 주는 작품이다. 구리로 만든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 조각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벽면에 설치되었을 때 각 개채의 특성은 약화되고 변화하는 관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세상은 매 순간 변화한다는 것이다. 변화를 감지하든 못하든 그것은 각 개인의 관점이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작품 앞에 관객이 서 있을 때와 관객이 옆에 서 있을 때, 또는 여러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벽면에 설치된 구리로 된 사각형의 모습은 변화하며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원래의 구리로 된 사각형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것을 보는 관점에 즉, 주변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도널드 저드는 색과 공이 동일하다는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보이는 형상은 곧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형상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원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모습이 끝임 없이 변화하지만 그것을 인지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면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주변의 것들만 변화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이다. 즉, 변화의 속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형상이나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빠르게 돌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그 어떠한 변화도 감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이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믿었던 지동설이 어느 날 과학자들에 의하여 증명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변화하는 이치를 알아가는 것도 삶의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저드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Untitled, Stahl, 6Elemente, Gesamtmass 300x50x25cm, 1989〉이란 작품은 앞의 작품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먼저 재질을 철로 하여 물체나 대상이 반사하지 않으며 또한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조금씩 부식되어가며 스스로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작품은 외부의 다양한 변화에 의하여 작품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면 이 작품은 자체의 변화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관객 스스로의 변화과정을 인지할 것을 요구하며 보다 성숙된 사고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진 저드는 자신의 작품에서도 공은 공 그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대적 개념의 공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개체들 속에 존재하는 공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과정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자신의 존재성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작품이다.

사라진다는 것은 다시 드러남을 암시하고 있다.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자연의 순환과 삶의 지혜, 정신의 깨달음을 동시에 추구한 저드는 예술가의 시대적 역할에 대해 선문답을 하듯 자신의 인식들을 예술화하였다. 선문답은 서구인들에게는 비논리, 비합리적으로 인식되었다.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질문과 답변들을 보면서 그들의 합리적, 논리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기 되지 않았던 것이다. 논리를 떠나고 합리를 떠난 자리에 다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인식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그들에게 저드의 작품은 좋은 수행의 도구가 되었다.

저드의 작품은 마치 선문답처럼 직심(直心)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직심은 지혜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을 보여주며 나아가서 그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호흡하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이 존재하는가? 내가 없는데 무엇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가? 하고 물으면 독자들은 무엇이라 답변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존재하면 모든 것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가 있으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고 듣고 말하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존재하든 하지 않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한다. 다만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존재하는 것에 의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순간 깊은 호흡으로 자신의 존재를 느껴보자.

아주 작은 의미나 재료들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상의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 동안에 우리는 호흡을 몇 번이나 하며 살아가는가? 호흡은 계속되지만 같은 호흡은 없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 호흡 하나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호흡을 통하여 인지한 것이다.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은 사라진다. 호흡이 멈추면 그동안 이어져 오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며 공의 세계로 변화하는 것이다.

도널드 저드는 미니멀리즘을 예술에 접목시키며 스스로가 미학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하나의 형상, 하나의 크기, 하나의 색등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깊은 호흡이 변화할 때 색(色)의 세계가 공으로 간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동어반복'이라는 미학적, 철학적, 개념적 특성들을 스스로 구축하며 만들어낸 미니멀리즘은 예술의 방향과 개념들을 변화시켰으며 특히 선사상이 확산하는데 커다란 일조를 하였다.

현대미술의 다양한 변화과정에서 오랜시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니멀리즘은 일상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물질에 집착하던 사람들에게 물질은 공허하며 정신의 가치를 추구해야한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그의 작품을 직접 보았을 때 느껴지던 수행자의 모습이 순간 나의 호흡을 멈추게 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모든 시공간이 정지되어 있는 듯 순간의 느낌이 지나고 다시 밀려오는 깊은 호흡의 숨소리가 전시 공간을 넘어서 인류의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녁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규격 : 12•19cm(복주머니), 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비트에 실린 '佛心' … 네티즌 '좋아요'

BBS 페이스북內 출가콘서트 영상 조회수 47만 회 기록

신세대 스님들이 랩 공연으로 출가 신념을 전하는 동영상이 네티즌들에게 인기몰이 중이다.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지난 7월 27일 BBS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올린 '쇼 미 더 붓다' 동영상이 조회수 47만 회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동영상 속 스님들은 지난 5월 동국대학교서 열린 출가 콘서트 '청춘, 자유를 향한 날개짓' 축하무대서 랩 공연을 펼쳤다. 법상 스님과 동국대 스님 기숙사인 백상원 사미 10여 명이 부른 힙합곡은 인기 프로듀서 그레이의 음악 '하기나 해'를 개사해 만든 '쇼 미 더 붓다(Show Me The Buddha)'다.

1분 26초 분량으로 편집된 영상에서 스님들은 "난 내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며 수행해, 그렇게 난 길을 개척하며 직진해"라며 출가에 대한 신념을 랩으로 표현했으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팔정도'를 힘껏 외치는 등 관객들과 호흡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공연 내내 군무를 추고 고난도의 비트박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네티즌 대부분은 '귀엽다' '대박이다'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현재 댓글수는 5600개가 넘는다.

이번 랩 공연이 이뤄진 '출가콘서트-청춘! 자유를 향한 날개짓'은 지난 5월 26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당서 조계종 교육원이 주최하고 BBS 불교방송이 기획, 중계 등으로 참여한 첫 출가콘서트 공연이다.

BBS불교방송 측은 "'쇼 미 더 붓다'와 같은 젊은 층을 위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제작해 SNS에 적극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희 수습기자



불교방송을 통해 소개된 동국대 스님들의 '쇼 미 더 붓다' 동영상. 조회수 47만 회를 넘겼다.

한국의 명승관광지 우표로 만나요

우정사업본부 발행… 월정사 전나무길 포함

월정사 전나무길을 우표를 통해 만날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시리즈 우표의 두 번째 묶음으로 아름다운 길이 돋보이는 여행지 4곳을 선정해 우표 4종, 60만장을 발행한다"고 8월 10일 밝혔다. 우표 발매는 8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는 '길'이 조명됐다.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길 중에서 경치를 즐기며 걷기 좋은 길로 손꼽히는 제주 올레길과 월정사 전나무숲길, 하동 십리벚꽃길, 영덕 블루로드를 우표에 담았다.

'제주 올레길'은 제주도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 해안 길, 산길, 들길 등을 연결해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걸을 수 있다.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강원도 평창 소재 월정사의 80년 이상 된 전나무 1,800여 그루가 빼곡하게 숲을 이뤄 상쾌함을 주는 길로 유명하다.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우표 4종. 이번 시리즈에는 월정사 전나무길도 포함돼 있다.

'하동 십리벚꽃길'은 50~70년 수령의 벚나무 1,200여 그루가 4월이면 도로 양편에서 벚꽃을 피워 터널을 이루는 길로 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들어가는 구간을 말한다.

'영덕 블루로드'는 영덕의 명소와 수려한 해안 풍경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해안 도보 길로 '환상의 바닷길'로 알려져 있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우표를 통해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 무용 거목 한성준의 몸짓을 기억하다

제3회 전통무용제전 '한성준 춤' 집중 조명

한성준(1874~1941)은 한국 무용의 거목이다. '우리 춤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100여 가지 전통춤을 집대성하고, 이를 기반해 새로운 춤을 창작했다. 한국 전통 무용은 19~20세기에 거쳐 한성준을 통해 재정립된 것은 분명하다. 그의 춤 맥은 손녀 한영숙과 조선 제일 춤꾼 최승희에게 이어졌고 이후 김매자, 이애주, 국수호 등 현대 전통무용 대가들에게 오롯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성준은 불교와도 인연이 깊다. 특히 수덕사는 그의 춤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곳이다. 지난해 열린 '내포 전통춤문화유산의 현대적 계승 진단과 정책적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불교신문 사장 주경스님은 "한성준 선생이 1890년께 수덕사에 입산해 3년간 머물며 범패와 승무를 비롯한 다양한 재를 통해 불교의식을 접하며 불교 전통을 배웠다. 수덕사에서의 경험으로 자신의 기예를 재정리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성준은 당대 최고 선지식 만공 선사와도 깊은 교류를 나눴고, 수덕사 대웅전 불사에도 시주하기도 했다.

한국 무용의 선지식 한성준의 춤을 재조명하는 무대와 학술 세미나가 마련된다. 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회장 성기숙)와 춤자료관 연낙재는 8월, 9월 서울과 충남 내포지에서 제3회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을 개최한다. 서울행사는 오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연낙재 세미나실 등에서 진행된다.


'우리 춤의 아버지' 한성준의 모습


한성준이 복원해 한영숙에게 전한 전통 춤 '학'의 공연 모습.

8월 25~29일 서울 일원서
한·중·일 전문가 대거 참여
'학' 악보 발굴, 재창작 공연
아시아 무용 대한 세미나도

'한성준 춤의 시원과 확산'을 주제로 열리는 무용제전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의 무용가와 학자가 참가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근대 시기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로 활동공간을 넓혀갔던 한성준의 예술적 여정과 그 이후 춤 세대의 후속 활동이 남긴 무용사적 흐름을 반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눈길을 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 최초의 무용극 '학(鶴)'의 복원 공연이다. '학'은 신무용가 조택원이 한성준에게 전통 학춤을 배워 일본의 근대음악가 다카기 도로쿠에게 작곡을 의뢰해 창작한 한국 최초의 무용극이다. '학'의 악보가 일본에서 발굴, 연낙재 기증을 통해 한·일 공동 합작으로 복원, 재창작된다.

한성준·한영숙으로 이어져 온 '전통 학춤'이 박은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의 지도로 무대에 오른다. 한국무용가 국수호 디딤무용단 예술감독을 비롯해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발레리노 이원국 등이 참여한다.

여러 장르로 퍼진 '학'의 재창작 무대에는 일본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마츠모토 뎃페이, 소프라노 마츠다 치에의 라이브음악이 곁들여진다.

다카시 도로쿠가 작곡한 '학'의 악보를 발굴한 후지이 고키 시마네대학 교수가 음악적 학술고증,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무용적 학술고증 결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앞서 진행되는 '우리 춤의 맥·혼·몸짓'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일곱 명의 중견무용가들이 출연해 자웅을 겨룬다. 임현선 대전대 교수의 '태평무(강선영류)'를 비롯해 정혜진 서울예술단 예술감독의 '고풍', 김삼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살풀이춤', 윤미라 경희대 교수의 '진쇠춤', 채향순 중앙대 교수의 '장고춤', 배상복 전 제주도립무용단 예술감독의 '신명', 김충한 전 정동극장예술단 예술감독의 '가사호접' 등 다채로운 춤의 향연이 펼쳐진다.

'한·중 우리 춤문화유산의 향연'을 주제로 열리는 27일 무대에서는 한성준 춤을 시원으로 중국 조선족무용사회로 파급돼 오늘까지 계승되는 춤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한성준-한영숙의 춤맥을 이어온 故 정재만을 사사한 중국의 대표적 조선족 무용가 한현걸 북경무도대학 교수의 '살풀이춤', 중국 조선족무용의 메카 연변대학교 김영화 교수의 '장고춤' 공연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배가한다.

아시아의 근대 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조명하는 국제무용학술포럼도 마련됐다. 연낙재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근대의 도래로 직면한 서구적 충격을 아시아 춤이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살펴본다.

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성준 춤의 원형에서 창조적 지평확산으로 흐른 춤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무령왕릉서 찾은 찬란한 백제 왕실 문화

공주博 12월 4일까지 '무령' 특별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가 열린다.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종만)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특집별시회 '무령-King Muryeong'을 오는 12월 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웅진 천도 후 혼란했던 정국을 안정시켜 백제 중흥의 기반을 마련한 무령왕의 생애와 정치적 업적을 새로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무령왕은 40세에 즉위한 이후 523년 붕어 전까지 개혁을 통한 왕권강화와 민심 안정을 이루고, 519년 양나라에 보낸 국서에 '갱위강국(更爲强國,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을 선포하기까지 치열한 삶을 산 위인이다.

전시는 프롤로그와 더불어 3부로 구성된다. 프롤로그인 '사마에서 무령으로'에서는 무령왕의 출생부터 즉위, 붕어에 이르는 무령왕의 생애를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무령왕이 이룩한 정치적 업적과 갱위강국의 의미를 되새긴다.

1부 '제사와 묘지석'에서는 무령왕릉의 널길 출토품들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본다. 널길에서 발견된 제대와 제사용품, 삼국시대의 유일한 묘지석, 지신과의 거래를 밝힌 매지권과 오수전, 진묘수를 전시한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전시되는 국보 154호 '금제관식(왕)'

무령왕릉 출토 유물 전시
국보 금제 관식 등 80점

2부 '무령왕릉과 목관'에서는 벽돌무덤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 벽돌의 종류 및 특징과 함께 무령왕과 왕비 목관의 관재, 관의 구조와 표면처리, 관장식의 종류와 특징 등을 살펴본다. 3부 '권위의 상징물 - 왕과 왕비의 부장품'에서는 부장품의 위치와 의미, 세트화된 장신구를 포함한 무령왕과 왕비 부장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명한다.

공주박물관은 "이번 전시가 문헌기록과 무령왕릉 출토품을 통해 무령왕의 치열한 삶과 무령왕이 이룬 갱위강국의 의미와 실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41)850-6364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8.10~2016.8.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2	불교입문-도표로읽는	이자랑	민족사
3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4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5	알기쉬운 쏙쏙 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6	지장기도(손으로쓰고마음으로그리는)	지원스님	민족사
7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주)조계종출판사
8	스님의 첫마음	박원자	뜨란
9	날마다 새날-불교 명절에 담긴 수행이야기	법륜	정토
10	짧지만큰가르침(성철스님의)	원택엮음	장경각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깨달음은 고양이처럼 사뿐히 온다

길고양이의 법문

중현 지음 | 아름다운 인연 펴냄 | 1만 5천원



숲이나 주변 등 산로를 거닐다 한 번쯤 마주치는 동물 중 하나가 고양이다. 물론 요즘은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운다. 한 곳을 가만히 응시하는 그 고양이의 눈을 바라보면 우주처럼 깊고 은하처럼 빛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어떤 대상의 본질을 그 밑바닥까지 꿰뚫어보려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대상으로부터 미련 없이 고개를 돌리고 만다. 세상을 다 깨달은 듯 무심한 현자의 표정을 짓다가도 어느 때는 도통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비록 이 가혹한 생존의 길 위에서 힘겹게 삶을 버텨나가느라 털은 엉클어져 있지만, 제 삶의 느린 걸음 속도를 당당히 유지하는 길고양이들의 자태는 우아하기 그지없다.

길을 가다 문득 마주치는 대상을 잠시 응시하고 이내 모습을 감춰 버리는 길고양이는 그저 자신에게 충실한 자유로운 영혼이다. 어쩌면 깨달음도 그런 것이 아닐까. 깨달음은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공간서 아주 거대한 사건으로 벼락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길고양이처럼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문득 그 빛나는 눈을 우리와 마주친다. 무심한 기적의 순간이다.

평범한 일상서 발견한 깨달음의 지혜

그러한 기적의 순간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 단지 너무나도 빨리 돌아가는 일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바삐 지나칠 뿐이다. 불교잡지 〈송광사〉 편집장을 지낸 중현 스님이 송광사보에 연재한 글과 페이스북에 올린 일상 법문을 모아 엮은 이 책은 평범한 일상서 마주치는 귀한 깨달음의 순간들을 따뜻하고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포착해 독자들에게 선사한다. 전남 화순의 고즈넉한 사찰, 용암사 주지 중현 스님은 어느 날 절을 찾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며 인연을 맺는다. 길고양이들은 오란다고 오지 않고 가란다고 가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사람의 기대를 쉬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 그러니 애초에 먼저 바라지도 않게 된다. 중현 스님은 길고양이들을 지켜보며 문득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즉 집착 없이 베푸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깨닫는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일상의 바깥, 길 위의 현실은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가혹한 생존의 현장이다. 아파트 경비원이 부당 해고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 세월호 분향소에서 자원봉사 하던 이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모습, 허망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가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회의원 앞에 무릎을 꿇는 세태, 극심한 취업난을 겪으며 더 이상 꿈꾸기를 포기해 버린 청년들의 비애, 치열한 경쟁 속

> "지극히 소소한 일상과 수행 시간 넘나드는 그 길은 나 자신서 출발해 내 바깥을 돌아 온전한 나로 이르는 먼 여정"

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을 살필 겨를도 없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고달픈 직장인들의 형상은 수행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 속으로만 침잠하는 수행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연대와 공감, 대자비심의 마음을 환기시킨다.

중현 스님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숱한 마음들을 들여다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아프면 남의 마음도 아프고, 남이 고통스러워하면 내 마음도 고통스럽다. 다른 이들이 괴로운데 나만 행복할 수 없는 까닭은 마음과 세상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깨끗이 하는 일이라고 여긴 중현 스님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뜨겁고 치열하게 세상을 껴안은 삶을 살았다. 1985년 5월 23일, 대학생 83명이 80년 5월 광주 학살에 대한 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72시간 동안 미국문화원을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 대학생 83명 가운데 23명이 구속됐는데, 당시 고려대 행정학과 3학년 생인 중현 스님(속명 오태헌)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86년 석방된 이후 91년까지 노동 운동을 계속한 스님은 진보적 이론이 개인적인 고뇌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생각에 1998년 송광사로 출가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모순과 병폐를 한꺼번에 드러낸 재작년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남을 위해 헌신하겠다' 던 젊은 시절 치기 어린 마음을 다시 갖기를, 남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잊지 않기를 스스로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온전한 나에게로 이르는 먼 여정

너무나 익숙해서 한 번도 애써 눈여겨본 적 없는 길 위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놓여 있으면 늘 그냥 지나친 그 풍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나'에게로만 향한 시선이 세상을 향해 열리는 지점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다비드 르 브르통은 〈걷기 예찬〉서 이렇게 말한다. "걷는다는 것은 자신의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 발로 걸어가는 인간은 모든 감각기관의 모공을 활짝 열어주는 능동적 형식의 명상에 빠져든다." 걷는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나를 열어젖히고, 거대한 자연 풍광서부터 아주 작은 생명까지 세상 만물을 내 몸과 마음으로 환기시키는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 헨리 데이비드 소로, 장 자크 루소, 빅토르 세갈렌, 랭보, 일본 하이쿠 시인 바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과 작가들이 산책을 즐긴 이유다. 중현 스님 또한 이 책에서 내 마음과 마음 바깥의 소소한 일상, 그 일상 바깥의 복잡한 세상일들을 산책자처럼 거닐며 보물과도 같은 값진 깨달음의 순간들을 독자들의 마음에 던져 놓는다. 긴 여행과 짧은 산책, 지극히 소소한 일상과 깊은 수행의 시간들을 넘나드는 그 길은 나 자신에게서 출발해 내 바깥을 돌아 온전한 나에게로 이르는 먼 여정이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던 일상을 새로 바라 볼 수 있다면, 그 말없는 풍경은 우리 삶에 무엇보다도 귀한 법문을 들려줄지도 모른다. **김주일 기자**

정신건강 사각지대에 선 최초대처자들

구조대의 SOS

댄 윌리스 지음 | 김성훈 옮김
불광 펴냄 | 1만 5천원



국가적 재난이나 일상 중에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사람을 일컬어 최초대처자(first responder)라 부른다. 이들이 하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천 가지 직업 중 하나일 뿐이지만, 여기에는 다른 직업과 달리 특별히 요구되는 자질이 있다. 바로 희생정신이다. 그들은 자기보다 남을 위해 일한다. 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건다.

우리가 매일 안전에 대한 별다른 걱정이나 불안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또 어떠한 위기 상황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모두 이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 덕분이다. 이들은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익명의 보호자이다. 〈구조대의 SOS〉는 최초대처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쓰였다. 그들이 직업병처럼 겪는 정신적 외상 문제에 대비하는 법과 치료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 이는 현장에 근무하는 최초대처자와 그들의 가족뿐 아니라, 사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 최초대처자들이 건강히 자기 일에 매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국 경찰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매년 200건에 가까운 자살 사건이 일어나며, 은퇴한 경찰관의 자살률은 현직 경찰관의 10배에 이른다. 비단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관, 구급대원, 전·현직 군인 등 모든 최초대처자 직군서 유사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직업상 겪게 되는 각종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외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최초대처자 직군서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2012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 중 80% 이상이 업무 중 외상 사건을 경험하며, 그중 37%가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요인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2,000여 명의 경찰관들이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위해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찾았다는 기록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경찰관들이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소방관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소방관 중 40%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심각한 트라우마 증상을 보인 소방관 비율도 6.3%나 됐다. 이는 일반인의 10배에 해당한다. 알코올 남용이나 수면 장애를 겪는 비율도 일반인에 비해 몇 배 더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러한 심리적·정신적 문제들로 인해 우리나라 소방관의 평균 수명이

> **소방관, 구급대원, 군인들 현주소**
> **최초대처자 정신건강 유지의 두 축**
> **직장 동료와 가족 지원의 중요성**

일반인보다 20년이나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갈수록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소방관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매년 5명 안팎의 소방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지난해는 자살한 소방관의 수가 순직한 소방관 수보다 무려 6배나 많았다. 이밖에도 총기 사고나 자살 사건 등에 심심찮게 노출되는 국군 장교와 장병들, 매일 응급 환자들을 돌보며 수시로 죽음을 목격하는 구급대원들 또한 정신건강의 사각지대서 남몰래 고통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최초대처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아왔다. 최초대처자인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거나 그로 인해 삶이 피폐해졌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최초대처자로서 그 사람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직업상 폭력, 죽음에 자주 노출되는 최초대처자들은 정신적 외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허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입게된다. 그들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강인한 몸과 정신을 가졌기에 최초대처자로 선택된 사람들이다. 다만 그들도 한 명의 인간이기에 반복되는 슬픔, 두려움, 공포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병들고 만다.

최초대처자는 천하무적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초대처자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최초대처자 직군에서는 대개 강인함과 자립심을 제일 덕목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대부분의 최초대처자들은 스스로 '도움을 주는 사람' 이어야지 '도움을 받는 사람' 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약한 사람으로 비치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많은 최초대처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손 내밀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최초대처자로서의 삶을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고, 그로써 우리 사회가 유능한 최초대처자를 잃게 만들 뿐이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그것을 해결 해 나갈 방법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최초대처자들의 정신건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일은 직장 동료와 가족의 지원으로부터 시작된다. 저자는 동료와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다면, 제아무리 훌륭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여전히 많은 최초대처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기 꺼려하는 상황서 그들의 아픔을 가슴 깊이 공감하고, 그들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책에서 최초대처자 집단서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동료지원팀을 꾸리고 운영하는 방법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최초대처자인 배우자를 지원하고 보살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족첸(대원만) 수행의 안내서!



아로 예세 중내의 족첸 수행 지침
깨달음을 얻는 티베트 수행 요결

10세기 티벳불교의 위대한 성취자이자 스승인 아로 예세 중내의 핵심 가르침!
티벳불교의 가장 높은 단계의 가르침인 족첸 수행에 대해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설명! 어떻게 마음의 본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마음의 본성에 머무는 삶을 살 것인가? 근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아홉 단계의 수행법을 통해 모든 이들을 행복과 평안으로 이끌어준다.

켄첸 빨덴 셰랍 린포체 • 켄뽀 체왕 된걀 린포체 저 / 고수연 옮김 / 국판 / 256쪽 / 값 14,000원

부처님의 가피가 가장 수승한 법화경 사경!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말 (전5권)
법화경 사경
혜조 역 / 사륙배판 케이스
전체 940쪽 / 값 40,000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한문 법화경 사경 (전7권)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750쪽 / 값 4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내 생각 사로잡히면 단순한 진리 못 봐”

인도 메신저 ‘하이크’ CEO 불교에 매료

기업가치 약 15조에 달하는 인도 토종 모바일 메신저 앱 ‘하이크’의 CEO가 불교에 매료돼 화제다.

그 주인공은 카빈 바르티 미탈(28). 인도 통신업계의 선두주자 바르티 에어텔을 설립한 9번째 거부 수닐 바르티 미탈의 아들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월 16일(현지시간) 인도 토종 모바일 메신저 앱인 ‘하이크(Hike Messenger)’가 대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해 기업가치가 14억 달러(약 1조 55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와 애플 하청업체로 유명한 대만 홍하이정밀(폭스콘)이 주도한 투자에서 하이크가 1억75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밖에도 카빈 바르티 미탈 하이크 창업자 겸 CEO(최고경영자)는 뉴욕 소재 투자회사 타이거글로벌매니지먼트와 인도 재벌 바르티그룹, 일본 소프트뱅크 등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카빈의 사업에 대한 열정과 패기의 원동력이 ‘불교’라 알려지며 주목을 끌고 있다.

카빈은 부유한 환경과 가족경영을 하는 인도의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패기와 열정이 컸기에 인터넷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열정과 패기는 불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빈은 “모두들 자신이 한 선택이 틀릴까봐, 혹은 실패할까봐 걱정한다. 나 또한 실패를 겪는다. 대신 실패를 겪을 때 마다 가방을 매고 돌아다니며 세상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단순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선불교에 매료됐다.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인 진리가 불교에 담겨있다. 당신은 절대적 진리에 대해

‘하이크’ 기업가치 1.5조원 달해
中·대만 1.7억 달러 자금조달
페북 ‘왓츠앱’에 도전장 내기도
CEO 열정·패기 배경은 ‘불교’

반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상대적 진리에 확신할 수도 없다. 세상의 대부분은 상대적 진리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 당신이 이런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수 있다”며 “일을 할 때도 단순하고 명료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쉽게 풀릴 때가 많다”고 말했다.

카빈은 아버지의 창업가 정신을 물려받아 10대 때부터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18세 때 자전거 크랭크축을 만들고 스즈키 휴대용 발전기를 수입했다. 20세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앱스파크(AppSpark)’를 세웠다. 이 회사는 2009년에 영화 티켓을 구매하는 앱을 출시했다. 2012년엔 스마트폰 메신저 앱 ‘하이크메신저(Hike Messenger)’를 내놓았다. 2014년 6월엔 하이크메신저 이용자가 2000만 명을 돌파했다.


기업가치 약 1.5조에 달하는 인도 토종 모바일 메신저 앱 ‘하이크’의 CEO 카빈 바르티 미탈(28·사진)이 불교에 매료돼 화제다. 사진출처=QUARTZ.com

WSJ에 따르면 하이크메신저는 바르티와 소프트뱅크로부터 2100만달러, 타이거글로벌매니지먼트로부터 6500만달러 투자를 받았다. 하이크메신저는 웹브라우저가 PC에서 하는 역할을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 목표다.

카빈은 “현재 하이크는 1억명의 유저를 확보했다.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몸집을 키워 페이스북의 왓츠앱에 대항마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텐센트의 경우 자사 메신저 앱인 위챗이 인도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하이크에 적극 투자했다. 향후 M&A(인수합병)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텐센트 대변인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내 모바일 메신저 앱 시장이 치열한 가운데 하이크는 차별화된 기능으로 젊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부모님과 친척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SNS 현황 정보를 숨길 수 있고, 인도 시장을 겨냥한 별도 스티커와 가상만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소량의 데이터를 사서 쓰는 인도의 소비 경향을 반영해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 문자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이보형 객원기자

추락 비행기서 승객 전원 구출한 스님들

뉴욕 팔율 사원 스님들, 비행기 폭발 직전 4명 승객 구조

추락한 비행기 속 탑승자 전원을 구한 스님들이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어 화제다.

종교소식지 ‘World Religion News(이하 WRN)’는 8월 12일(현지시간) “스님들이 목숨을 내걸고 추락한 비행기 속 탑승자 전원을 구해 ‘영웅’으로 떠올랐다”며 “뉴욕 맥도너시에 위치한 팔율(Palyul) 사원 스님들이 위기에 처한 자들을 위해 이타성과 과감한 실행력을 발휘한 것은 명상으로 다져진 성숙한 내면 의식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도했다.

이어 ‘WRN’은 “몇몇 사람들은 ‘승객들이 스스로 걸어 나왔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승려들은 불가능한 일을 마법처럼 해냈다”며 “사람들이 당황해 비행기 속 사람들을 구조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홍콩 스님 라마 지미(30)는 사고 현장으로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8월 8일(현지시간) 발생했다. 4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엔진 1개짜리 경비행기가 이륙한지 얼마 되지 않아 뉴욕 중남부 셔냉고 카운티(Chenango County) 인근 숲에 추락했다. 지면에 충돌하기 전 비행기 동체는 나무에 떨어졌고, 즉시 화염에 휩싸였다.

지미 스님은 “사고 현장에 가까이 가보니 비행기엔 불이나 연기가 피어올랐고, 부서진 본체는 나무 가지 사이에 걸려 있었다”며 “탑승자 중 한 소녀의 입안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스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탑승자를 한 명씩 꺼냈다”고 설명했다.


뉴욕 맥도너시에 위치한 팔율 사원 라마 지미(30·사진) 등 스님들이 추락한 비행기 속 탑승자 전원을 구해 화제다.

스님들이 차례로 4명의 승객을 구출하자마자 비행기 본체와 타이어가 폭발했다.

당시 지미 스님을 비롯한 팔율 사원 스님들은 숲 근처 사원서 한 달간 안거 중이었다. 추락한 비행기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스님들은 구조를 성공했단 사실만으로도 매우 기뻐했다. 지미 스님은 “매우 처참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탑승자들이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탑승자들은 뉴욕 남부 빙엄턴(Binghamton) 시에 위치한 윌슨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구조대원 마이클 백 위드(Michael Beckwith)는 “탑승객들이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은 ‘천운’과 다름없다”며 “우리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본체가 대부분 불타있었다. 스님들의 빠른 조치가 4명의 목숨을 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비행기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경찰은 사고 지역의 파편과 화학 물질을 토대로 조사 중이다.

박아름 기자

200년 전 방치된 불교사원 ‘다시 문 연다’

수브라마니아 스와미 사원 복원 계획 확정
불상 안치 목적… 인도 칸치푸람 지역 ‘첫 사원’


수브라마니아 스와미 사원에 안치될 예정인 불상이 발굴될 당시 나가스와미 前 고고학관리부처 총 책임자(맨 오른쪽)와 관계자들 모습. 사진출처=더 힌두

과거 불교세가 셌지만 현재는 사찰이 1곳도 남아있지 않은 인도 칸치푸람 지역에 첫 사원이 세워진다.

인도언론 ‘The Hindu’ 8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 지역 불교연합회(the Buddhist Association of Tamil Nadu)가 200년 전 문을 닫은 칸치푸람 내 수브라마니아 스와미(Subramania Swamy temple) 사원 복원에 적극 나섰다.

지역 한 학교 운동장서 발견된 9세기 제작 추정 불상을 이곳에 안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수브라마니아 스와미 사원은 이 지역서 불교가 쇠퇴함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돼 철거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타밀나두 지역 불교연합회는 당국의 철거 취소 승인을 받아냈고, 향후 파손된 건물 귀퉁이 등 복구 작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나가스와미 前 고고학관리부처 총 책임자는 “며칠 전 태국 총영사 고관 등과 함께 칸치푸람을 방문해 불상 및 오랫동안 방치된 사원을 둘러봤다”며 “정부와(불상 소유자) 학교 관계자들 모두 불상을 이 사원에 안치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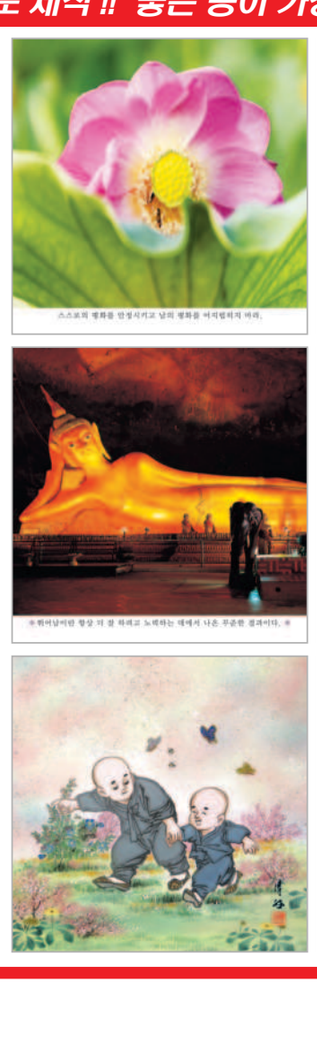
이어 나가스와미 씨는 “과거 칸치푸람 지역서 불교세는 매우 높았다. 중국과 일본서 선종을 전파한 보디 다르마(Bodhidharma), 즉 보리달마 승려가 이 지역 출신”이라며 “특히 태국 정부는 사원 복원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곳이 불교성지순례 코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이라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구글(Google) 사무실서 만다라를?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 ‘구글’의 캘리포니아 사무실서 스님들이 불교의 ‘샌드 만다라(Sand Mandala)’를 만들고 있다. 작업은 8월 15일(현지시간) 시작됐으며, 완성 후엔 태우는 의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스님들은 “만다라를 태우는 의식은 영적인 믿음에 비해 인생과 물질이 덧없음을 의미한다”며 “이 의식을 행하기에 구글 사무실만큼 적당한 곳이 없을 것”이라 전했다.
사진출처=커브드캘리포니아

since1973
2017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FAX.(051)508-0101 H.P 010-3554-2988
◆농협 : 356-0976-5320-43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 : 상호인쇄








미니 : 상호인쇄




수첩 : 상호인쇄

12절(벽걸이형)달력
100부 이상 @ 1000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 25.8cm×26.5cm

국6절(벽걸이형)달력
100부 이상 @ 1,300원
• 정가 2,000원 / • 규격:30.5cm×31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00원
• 100부 @700원
• 규격 : 9.5cm×13.4cm • 매수:17장

탁상·한지달력
200부 이상 @ 1,800원
• 정가 2,000원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원
• 100부 @500원
• 규격 : 8.9cm×9.5cm • 매수:16장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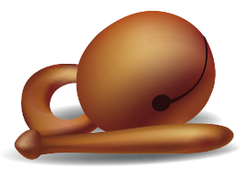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민첩하여 하나를 들으면 만을 알고 장래 일을 미리 예측하며 순간순간의 행동이나 판단에 막힘이 없다.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황제내경 의술전수
침법,단전호흡,음식으로
만병을 고치는 의술
수강생모집, 수강료 20만
옥천 010-2274-4267
블러그 : 네이버 phw4267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배우자 관상을 보면 몇 살째 어디 질병이 있는지, 죽음까지 알 수 있다
– 암, 질병, 묘터, 교통사고, 이혼을 얼굴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관상과손금 비밀이야기(판매중)
010-4014-8822

평생교육원 등록안내
(불교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참나를 찾는 참선강의
9~11월 3개월간
매주(토) 14-16시 수업
초보자 환영, 기초부터
친절히 안내
(천안 동면 광덕사)
010-5588-6448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범패작법 전문교육 수강생모집
(6개월과정 / 수시접수)
교육내용 : 조석예불,새벽종송,사시불공,천도재, 사십구재,점안의식,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관욕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나비무 : 도량게,다게,운심게,오공양, 삼귀의,육법공양,향화게,법고무
* 범패작법 전문스님들이 사찰 각종행사 대행하여 드립니다 *
* 전생체험 및 빙의환자 퇴마치유 전문*
010-5269-4168
(연화사 범패작법교육원)

암자 처사(기사)님
모십니다
(50세 이상, 경기 성남)
숙식필수
010-5264-831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8721-219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내 사찰)
053-654-0408
010-3422-323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남원, 4대보험)
063-620-9201~5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남 거제)
010-7169-987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숙식가능, 부산)
010-7311-5335

모 집
부전스님(비구니),
공양주(큰스님만 담당)
– 큰스님 모시고 운전할 분
(컴퓨터 하는분, 남여불문)
– 불교공부 및 방편 공부할 분
(생활포교사,생활법사 양성)
010-4905-0575

문두루 기도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60세이상)
010-2585-7696

비구니스님(55세 이하)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김해 신어산 동림사
대한불교조계종
055-337-0001
010-3871-3000

漢文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 / 한글(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은
漢文念佛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스님들과 불자님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불교 상용의식집입니다!



● 제1권 (예경/각청) ● 제2권 (천도/시식) ● 제3권 (수계/방생)
● 제4권 (장의) ● 제5권 (점안) ● 제6권 (독송집)
● 제7권 (토속의식 모음집) 각권 20,000원
(스님과 신도가 함께하는 법당용 책 사찰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 (장엄사)
010-7144-7339 (총 무)
010-5277-8024 (스 님)
계좌번호 :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걸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근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총무원장 및 각원 원장 모집공고
본 종단은 문공부 등록 및 등기필한 종단입니다. 유능한 인재 확보와 종세를 넓히기 위해 각원 원장 및 부원장님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교육원장, 호법원장, 문화원장, 포교원장, 고시원장, 비구니원장, 전법사대전교
(사)대한불교대승조계종 010-8729-8494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소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 숫타니파타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도심 속의 땅넓은 사찰◀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4,000여평 ※일부 주거지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전망
- 가액 : 6억 8천만원

▶탁트인바다전망과 전통목조사찰◀
- 위치 : 용원 어촌계 부근
- 총부지 : 240평, 신도시 1만여세대, 대단지아파트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목조산신각(7여평)
- 양도가액 : 6억 5천만원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안성시 추천 급 사찰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65㎡, 요사채 108㎡, 토지 1,000㎡
- 안성시 부근 사찰, 뒷편은 산이며 조용함, 작은암자로 적당함
- 가액 : 2억 7천만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2000평
◎ 인법당 : 30평
◎ 차량진입,산세수려
◎ 양도 : 5억8천
◎ 위치 : 서울대형포교원
◎ 대지 : 70평
◎ 전체건물 : 200평
◎ 전철역앞, 주차가
◎ 양도 : 2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공원 사찰 안내

- 위치: 부산 온천동 금강공원 입구
- 총부지 : 203여평(주차장 완비)
- 건물1:법당 30여평, 요사채2동
  건물2:원룸 12개, 점포2개
- 전 월세 : 전세 2억에 월 400만원
- 인수가 : 6억 5천만원(은행 5억)

직통 010-2595-7752 전무
※사찰전문 만덕 부동산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영주사찰(급)안내

- 산속사찰 주변좋음
- 토지 3,000제곱 사용, 법당, 요사채, 산신각등
- 조용하고 전망좋음
- 주변이 산이고 비구니스님 계심
- 가액 : 2억원(조정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아늑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노천불
- 목조건물, 전통법당
- 요사채 40평, 식당 40평, 창고 60평
- 대지 1,250평(종교부지)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5천만원

010-4028-8896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2차선 대로변 2014년 10월 신조성
- 시설및 비품 완벽 구비 되어있음 냉, 난방 설비 신제품
- 3층 건물중 2층 약 27평
- 보:300백 월 30만원 합 900만
- 꼭 하실분에게 저렴하게 보시함 연락주시면 사진 보내 드립니다

010-2561-2529
010-6836-3303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동 8호선 암사역 5분거리 대로변
- 시설 : 삼존불, 약사여래, 신중, 후불, 탱화 등
- 2층 전체 48평,법당,방2칸, 주방, 화장실, 욕실, 베란다 (몸만 와도 언제든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80만원
- 꼭 하실분 시설비 1000만원

010-2282-8885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관음전,종각
- 요사채,공양간 외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3억 4천(절충) (스님건강문제로)

010-4628-5699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진량읍 아파트 단지 인접(갓바위 가는길)
- 3층 약 50평 옥상단독사용(민원없음)
- 법당: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 소불60불, 인등완비, 주지실, 친견실, 객실, 공양간완비, 각방 에어컨 완비
- 즉시법회, 정말 몸만 오세요
- 가액 : 전세 3백 년세 2백 시설비 6백(시설 원만함)

010-7536-2588

다용도 주택안내

- 위치 : 경기 양평 신복리 뒤는 산, 앞은 옥천시내 아신역에서 차로 5분거리
- 정남향(대지 257평 건물 40평) 지하암반수 마당 넓음,터와 주위에 약초 많음 (용도 :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등)
- 암환자 치유도량으로 최고
- 투자하고 같이 할 분도 환영
- 가액 : 4억 8천(실입주금 3억)

010-4234-2536

서울사찰안내 임대

템플스테이 게스트 하우스
- 에어비엔비 운영할 분 환영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15-38
- 대지 80평, 건물 100평 2층
- 천연기념물 271 굴참나무 소재
- 은퇴자분 주거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추천
- 가액 : 8억, 임대협의

010-7452-4725

청주 도심사찰 안내

창건13년 청주 도심포교 기도도량
- 대지 : 60여평
- 건물 : 50여평
- 대웅전. 16아라한전. 산신각
- 요사채: 방5. 화장실2
- 아미타 대불 삼존불. 영험의 지장탱화
- 직접 방문 확인후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가액: 4억5천만원

010-6372-8968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산사 새벽시장 뒤 (서감초등 부근)
- 4층 건물에 2층
- 건 60평 포교원
- 법당 완전 구비, 즉시 입주
- 가액 : 1,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0-7570-2051

도심속의아담한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 대출 ~7500만원~ + ~1억 3천5백만원
  합 가액 : 2억 1천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IC 얼음골 바향 15분 거리
- 잣나무 숲과 계곡의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중, 대지 328평
- 2층 건물 1층 명상홀 및 요사 59평 2층 대웅전 24평
- 대나무숲속 삼성각 4.5평 별도 요사채 28평과 창고 20평
- 원통문 수월관음,연화탑,포대화상등 석물 농지에 사과나무 220주 호두나무 40주
- 가액 : 7억

010-4895-2050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동구 대로변 사거리
- 평수 :50평, 3층 엘리베이터 유
- 은행,마트,병원등 인구밀집지역
- 오존불(각3자,2자반),신중,영가단 냉난방완비, 시설완벽
- 가액 : 보 500만, 월 65만원 시설비품 1700만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010-2896-6689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7589-9600
010-3753-7844

임법당(급)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성당시장 약 5분거리
- 평수 : 대지 약 47평, 건물 약 27평
- 가액 :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5387-676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기면 기산리
- 대지 536㎡, 주차장, 텃밭 661㎡
- 법당, 주방 및 종무소1, 요사2동
- 삼존불(동불), 인등 300등, 해우소 4
- 현 법회 성황, 불사기도 좋은 도량
- 가액: 1억 4천 5백만원 몸만 오세요
- 대 불사 인연으로 떠남

010-3679-1080
1899-1042

사 찰 안 내

- 위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 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토 굴 안 내

- 위치:경북 문경시 동로면
- 건물 목조 기와 30평
- 대지 100평
- 참고 : 면소재지에서 3.5㎞ 권리승계임
- 가액 : 6천만원

010-3189-874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고령군 쌍림면
- 평수 : 약145평, 466㎡
- 법당 : 아미타 3존불, 공양간, 방 4개
- 가액 : 9,500만원

010-3697-3521

포교원안내

- 위치:부산시 기장군 기장시장 부근 2층
- 법당 평수 60평, 법당 보시고 결정
- 방 2칸, 스님 건강상
- 가액 : 전세 2,000만원 월 50만원

051-724-5530
011-591-7977

사 찰 안 내

- 위치 : 물! 공기좋은 지리산 중산리 부근
- 대지 : 130평, 요사채, 후원, 실외화장실
- 텃밭 무한정사용 가능
- 가액 : 1억 6천만원

055-972-033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 평수: 2층. 45평
- 법당 3존불조성, 완벽하게 갖추어진 포교당으로서 몸만 오시면 법회 즉시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2575-987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사직동
- 총 45평, 방 3개, 법당 25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왕보살 본존불 뒤 신중은 흑탱화, 산신탱화, 칠성탱화
- 신장, 소종, 북, CCTV, 에어컨, 컴퓨터, 냉장고 가전제품 일체, 책장과 도서류.
- 꼭하실 분만 연락 바랍.시설A급, 즉시 법회가능, 몸만오시면 됨
- 큰스님 노환으로 치매가 발생하여 절 운영이 힘들어 급 양도
- 가액 : 보 1,000만원 70만원,시설비 3,500만원

010-5018-333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일월산
- 자락이 아담한 곳, 1급수 청정지역 앞마당 계곡물 흐르고 산기운이 솟는자리
- 땅 500평 법당자리 토목공사 완료, 20평 허가
- 요사채30평, 현대식 목조건물 완공 2년반
- 밭 2필 500평, 개인사정 급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마산리 563번지,553번지는 대지, 산은110-6번지
- 하우스법당과 하우스산신각, 요사채1, 처사방1, 황토방1, 하우스 창고1, 자재창고 4개
- 563번지 대지 147평, 553번지 대지 230평
- 임야 산 2,007평 110-6번지
- 전기 개인전기 정화조 산에 내려온 식수
- 모든 집기 일체포함
- 가액 : 2억 (절충가능)

010-5348-200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뒤편 산이감싸고 있는곳)
- 대지 140평, 건평150평, 3층건물, 법당30평, 삼존불, 신중, 지장단, 영단, 법단, 단청 방6개
- 공양간, 창고, 차고, 다용도실, 화장실 3개
- 시설완벽 몸만오시면 됨 8m 도로접 초등학교 100m전철, 버스 300m
- 가액 : 15억(절충가능) 소임관계로 급 양도

051)754-337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반송로 273번길2
- 법당, 방1, 창고방1, 샤워실, 공양간 큼
- 40평 3층(시설완벽함)
- 가액 : 2,0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3389-8133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옆)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 무성산 칠부능선
- 365일 1급수 물 사시사철 흐르고, 약수물 옹달샘 있음
- 가옥 40평, 25평(2채)
- 평수 : 8,500평(5,000평은 매실 과수원)
- 뭐라해야 스님께서 오시려나... 정말 좋은데...
- 가액 : 9억(주인직접)

010-4130-0606

사찰, 포교원 정보를 내 스마트폰에서...

Temple Kok



템플콕

출시기념! 무료이용 이벤트 ~ 9월 30일 까지

전국의 사찰, 포교원, 암자, 기도터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 매물도 올리고..
(매물의 상태를 직접 사진으로 확인하고 지도검색을 통해 정확한 위치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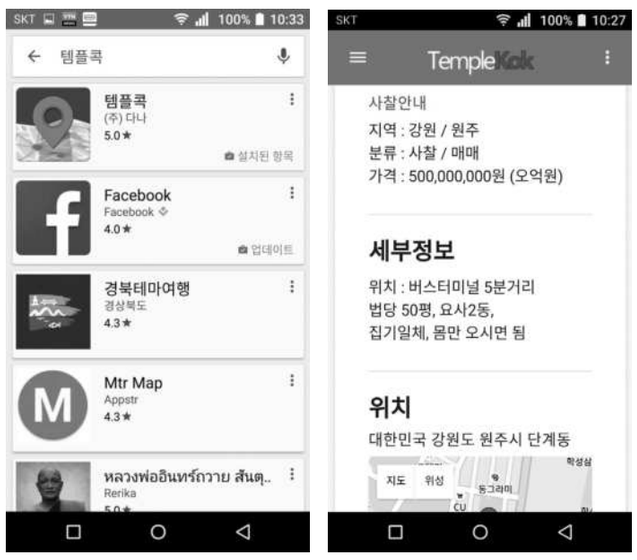
필요한 매물을 스마트폰에서 한 눈에 검색하고 바로 확인하고,
내 매물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올려서 직거래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항목별 (사찰, 포교원, 암자, 토지임야, 납골당 등), 가격별로 검색 가능 합니다.
▶ 매물 담당자와 직접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용안내

1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템플콕'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2 간단한 회원가입 후 본인의 매물 등록
3 게시 기간에 맞는 요금 결제
4 입력한 매물 게시(시작)일 - 오후 7시 등록 (관리자)

※매물등록은 매물보기에서 다른 매물 입력내용 확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문의 02)2004-8214

주의 : 템플콕은 사찰 및 포교원 등 수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상호 직거래하는 방식이므로 거래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정 정리의 힘

구제고지(‘긍정심리학스쿨’ 대표)

〈3〉 단련하는 습관 (上)

나쁜 직장상사, 참지 말고 넘어 서세요!



상사 유형1–속 터지는 요지부동형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는 ‘긴 근무 시간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입니다. 생활의 리듬이 깨지기 쉬운 2교대나 3교대 근무 직장인들이 주로 겪습니다.

두 번째는 ‘긴장도 높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산업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직종, 생명이나 안전을 다루는 직종, 정확성이 요구되는 직종 근무자들이 주로 겪습니다.

세 번째는 ‘불편한 대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모든 직종에서 겪을 수 있는데 잘 맞지 않는 상사나 선배와의 인간관계 등에서 유발됩니다.

스트레스 중에서도 저는 직장 내 인간관계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느끼는 만족도의 대부분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옵니다.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내 인간관계입니다.

회사는 내 맘대로 고를 수 있다 해도 상사는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상사의 행동이나 성격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한 부하가 원하는 방향대로 상사의 태도와 언행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잘 맞지 않는 상사와 일해야만 하는 경우, 우리의 반응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상사의 언행이 나의 내면의 ‘핫 버튼’을 눌러버리는 바람에, 내 고정 관념이나 감정이 자극을 받아 분노와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상사의 말이나 행동이 나의 내면의 ‘쿨 버튼’을 눌러서 상사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욕이 사라지고 불안해지며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F 씨는 상사 때문에 갑자기 짜증이 나는 게 고민입니다. 상사가 F 씨 내면의 ‘핫 버튼’을 누른 것이지요. F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여론 조사 기업에 조사원으로 취직해서 전문성을 익혔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옮긴 뒤 F 씨는 입사 6개월 만에 사내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직속상관이 F 씨를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사는 영업 사원 출신이어서, 리서치 업무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서치 업무에 필요한 리드 타임에 대한 이해가 없음에도,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을 늘 독단적으로 정했습니다. F 씨에게는 무리한 업무가 계속 쌓였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이 기간 내에 끝내는 것은 무리입니다”라고 분명히 의견을 전달하려 했지만, 말이 안 통하는 느낌을 몇 번 받다 보니 F 씨도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짜증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은 ‘고질적인 불만’ 상태에 빠집니다. 부정적인 연쇄 반응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F 씨의 내면 상태를 추측해보건데 아마도 상사를 대할 때마다 마음속 고정 관념 강아지 중 하나인 ‘정의견’이 소리 높여 짖어댔을 겁니다.

무엇이 공정하고 바른가를 늘 의식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완고한 정의견의 경우, ‘무릇 상사란 이래야만 한다’, ‘상사라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굳은 신념과 가치관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반대로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이 친구는 늘 이렇게 짜증을 부리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F 씨가 자신을 상사로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F 씨의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 분명히 감지했을 겁니다.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는 법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F 씨가 이 역경을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킬 훌륭한 인재로 단련시켜 줄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스트레스 가득한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감정회복습관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F 씨가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할 일은 부정적 감정의 연쇄 반응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인드풀니스 호흡법(들숨과 날숨을 이용해 깨어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호흡법의 한 종류)’이 도움이 됩니다.

상사는 내 뜻대로 바뀌지 않아
차라리 강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심호흡 · 감사한 마음 지속하면
고질적 불만감 해소에 도움

마인드풀니스 호흡법이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해 무아(無我)의 경지에 도달하는 정신집중 수행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데, 보통 때보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숨을 천천히 반복해서 쉬면 됩니다. 대체로 1분 동안 4~6회 호흡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포인트는 평소에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들숨과 날숨의 흐름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호흡법을 공인 강사로부터 직접 배웠는데, 그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감정이 흐트러지는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마치 개처럼 빠르고 얕은 호흡을 합니다. 더군다나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지요. 원래 호흡은 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호흡을 일부러 안정시키는 일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자율 신경과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줘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분이 진정됐다면 이번에는 부정적인 감정의 실체를 파악할 차례입니다. F 씨의 경우 ‘고질적이 불만’이라는 뿌리 깊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마음속이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 불만을 느끼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감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감사하는 감정이 주는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관한 연구의 일인자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로버트 에몬스(Robert Emmons) 박사는 감사의 여러 가지 효과를 실제로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하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행복도가 높습니다. 또한 ‘고마운 일이야’ 하고 느끼는 것이 스트레스 완충 효과를 높인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감사하며 생긴 긍정적인 감정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 체계를 개선해 두통이나 감기를 예방하는 건강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나아가 도덕적인 행동을 촉진해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관계가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감정회복습관을 트레이닝 중인 수강생들에게 감정을 회복하는 능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습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좋았던 일 세 가지 떠올리기’입니다.

명함 정도 크기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 카드’를 만들어 ‘세 가지 좋은 일’을 적어서 명함집에 넣어두면 평소 카드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감사 일기를 매일 쓰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한 느낌과 기쁨이 커져서 불안한 마음이나 수면 장애와 같은 우울증의 징후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사 유형2–과도한 자기애착형

지금까지 상사가 ‘핫 버튼’을 눌러서 분노와 불만이 생기게 되는, 직장 내 수직적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대인 관계 트러블은 특정 상사를 마주치면 내면의 ‘쿨 버튼’이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적 소모가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형 뱀파이어란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앨버트 번스타인(Albert J. Bernstein)이 붙인 이름으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적인 성격이 강해서 자존심을 공격받았을 때 강력한 자기 방어 기제를 발휘합니다. 그 방어 기제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심어주기도 하지요.

마치 흡혈귀처럼 상대방의 의욕과 기력을 빨아들이고 소진시키기 때문에 ‘감정형 뱀파이어’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이들은 머지않아 ‘자기애착형 인격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애’는 가정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과보호를 받으면서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과대평가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기에게 좋지 않은 평가가 내려질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과도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평소 성실하고 성격이 좋았던 사람도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뱀파이어로 변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부하 직원이나 동료로부터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조직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감정형 뱀파이어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정당화하고, ‘나는 옳고 당신을 틀렸다’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입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상사가 감정형 뱀파이어인 경우엔 상사와 함께 있을 때마다 ‘쿨 버튼’이 눌려서 기력을 잃고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기운이 없어지고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부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상사는 우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상사가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태도를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상사 아래에서 일하는 부하는 뱀파이어의 희생양이 되어 결국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겠지요.

이 글은 〈감정 정리의 힘〉(다산 3.0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영산재 50호

경기범패 학인모집

▶기초반 : 염불송, 예절법,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북)
불교의 유래, 기도의 참법, 간단한 액막이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승려반 : 도량석, 조석예불, 종송, 사시예불, 사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기능반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잡, 화의재바라
나비춤, 도량게, 다게, 법고무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법주반 : 49재의식, 천도재의식, 시다림, 파묘의식,
산소이장법, 바라태징법, 새벽종송,
각종 점안의식, 각종 점안의식, 각종 이운법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강 주 : 민지효 스님
●개강일시 : 2016년 9월 5일
●장 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24 광법사
(구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동 303-8번지 광법사

문의전화 010-4466-3575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삼신사
● 법 명 : 무공(김병진)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864-133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사주명리학 수강생모집

■ **교육목표 :** 동양 전통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음양의 변화(變化)와 역(易)의 원리를 깨달아 대자연(大自然)인 하늘(天)과 사람(人), 땅(地)의 이치를 알고, 자아(自我)를 발견하며,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단순한 길흉화복(吉凶禍福)만을 예견 하는 운명학 차원을 넘어 역학(易學)을 통한 각자의 인연의 법칙을 알고 도덕성과 가치관을 정립하며, 본 과정은 실전위주로 빠르게 상담할 수 있도록 강의하는 과정이다.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평생교육원)

과 정	개강일	강의시간	수강료
초급반(기초과정)	9월 3일 (토요일)	10:00~12:40	36만원
중급반(억부론및격국론)	9월 3일 (토요일)	13:00~15:40	36만원
고급반(천간론및물상론)	9월 3일 (토요일)	16:00~18:40	36만원
전문가반(지지론및물상통변)	9월 2일 (금요일)	14:00~17:00	40만원

동국대학교 일산 캠퍼스(평생교육원)

과 정	개강일	강의시간	수강료
초급반(기초과정)	9월 6일 (화요일)	10:30~13:30	36만원
중급반(억부론및격국론)	9월 6일 (화요일)	14:00~17:00	36만원

◆담당교수 약력 : 도연 김동현 교수(문의:010-4704-8373)
- 1989 태영통신건설대표
- 1995 사단법인한국역리학회이사
- 2002 (전)강북구청 문화대학 역학 강사 역임
- 2009 (전)국민대학교, 용인대학교 사회교육원 명리학 강사 역임
- 2009 (전)세종대학교 CEO과정 특강 강사
- 1997 (현)동양 전통 문화원 원장
- 2005 (전)동방대학원 대학교 문화교육원 명리 전문가과정 교수
- 공주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석사졸업
-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토요반 명리 지도교수
- 2012 (현)글로벌사이버대학교 동양학부 겸임교수
KBS2(VJ특공대), 이데일리TV, 방송다수출연 등

문 의 :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평생교육원
☎ 02)2260-3728~30 (수강신청)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문 의 : 동국대학교 일산 캠퍼스 평생교육원
☎ 031)961-5323 (수강신청)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동국로 32) 동국대 일산병원 옆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edulife.dongguk.edu/(수강신청)

동 국 대 학 교 평생교육원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
23274964492600

■ 강의내용 : 4~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꽃그늘

이 세상에 한 그루 나무가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너와 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와 나의 그늘엔 새들이 날아와 앉을 수 없고, 너와 나의 그늘로는 풀벌레를 기를 수 없기 때문이다.

폭염의 땅 위에서 배롱나무 한 그루는 꽃을 피우고 그 꽃으로 그늘을 넓혔다. 그리고 그 그늘 밑에는 새들이 날아와 발자국을 남기고 풀벌레들은 찾아와 숨을 쉰다. 어느 시인(이정자)은 시(배롱나무 꽃그늘 아래서)에서 '화무십일홍' 무색케 하는 배롱나무 꽃그늘 아래서 뜨겁게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을 견디며 배롱나무꽃이 백 일 동안이나 거듭 꽃 피워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호숫가 노을이 다 지도록, 가슴 속 그리움 다 사위도록, 무언의 눈빛으로 나누자고 했다.

그늘이 필요한 시간, 너와 나의 그늘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배롱나무 꽃그늘가로 가보자.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인간의 욕구에 대하여

자아실현 출발점은 '사랑과 칭찬'

인간의 삶은 욕구의 연속이다. 사람은 그 욕구 실현을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욕구는 생리욕구부터 자아실현욕구까지 참으로 다양하다.

인간의 그 같은 욕구를 가장 잘 정리해놓은 것이 매슬로(A. H. Maslow)의 욕구위계설이다.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고 있다.

1단계는 생리욕구로서, 의식주와 성적 욕구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말한다.

2단계는 안전욕구로서, 안전과 보호, 경제적 안정, 질서 등 자기보존적 욕구를 말한다.

3단계는 사회욕구로서,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여러 가지 집단에 소속되고 싶고, 또한 그러한 집단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소속욕구, 사랑욕구라고도 한다.

4단계는 존경욕구로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느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지위 · 존경 · 인정 · 명예 · 위신 · 자존심 · 성공 등에 대한 욕구가 그것이다. 그래서 인정욕구라고도 한다.

마지막 5단계는 자아실현욕구다. 자아성장과 자아실현 등을 통해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욕구다.

매슬로는 이러한 인간의 욕구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인 생리욕구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인 자아실현욕구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거꾸로 말하면 자아실현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5단계는 고사하고 1단계부터 흔들리고 있다. 삶의 밑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 경우라면 권하고 싶다. 빨리 정신건강의학과나 건강심리상담센터에 찾아가 도움을 청하라고. 돈도 전혀 들지 않는다. 전국 각 시 · 군 · 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국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다. 특히 비밀이 100퍼센트 보장되는 곳이니만큼 안심하고 찾아가서 상담해도 된다.

여기서는 내 스승인 용타 큰스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처방전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1그램 1톤의 원리(기적의 미세정서)'이다. 1그램밖에 안 되는 적은 노고(미세정서)로 1톤과 같은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을 말한다.

매슬로의 욕구위계설로 다시 가면, 생리욕구와 안정욕구가 실현되면 사람은 자연히 사랑욕구와 인정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사랑욕구와 인정욕구가 성취되면 자연히 자아실현욕구가 발동하게 된다. 그리고 자아실현욕구가 발동하면 어떻게든 자아실현이라는 더 큰 행복을 성취해 더 행복한 삶을 지향하게 된다.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자아실현이라는 말이다.

이제 주제가 훨씬 명료해졌다.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선 자아가 실현되어야 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아실현욕구가 발동해야 되고,

욕구 중 최하 단계는 '생리 욕구'
보통 사람 이 단계서부터 흔들려
충분한 사랑 · 칭찬으로 해소해야
한 마디 말이 인생 바꿀 수 있어

> **"칭찬의 공덕은 연쇄살인범도 최고 모범수로 만든다"**

그러기 위해선 사랑욕구와 인정욕구가 해소되어야 하고, 사랑욕구와 인정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 직장 · 사회에서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 가족과 주위 사람들은 물론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도 부담가지 않는 칭찬을 많이 해줄수록 좋다. 고래가 칭찬을 받으면 막 춤을 추는 것도 실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춤추는 것이 고래에게는 자아실현인 것이다.

칭찬이 좋은 이유는 또 있다.

인간은 정서적으로 매우 여린 존재다. 따라서 '널 사랑한다', '네 실력을 인정해' '너는 동양미인 같아' 등등 칭찬과 긍정의 말을 살짝만 흘려줘도 받는 당사자는 퍽 감동하고, 기분도 확 올라간다.

이것이 '1그램 1톤의 원리'다. 1그램의 적은 출력으로 1톤의 거대한 세상을 거뜬히 들어 올리는 것이다.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원리처럼, 칭찬의 공덕은 비록 상대방만 들어 올려주는 게 아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한 뒤 왕에게 "저에게 지레와 발판만 주시면 지구라도 움직여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칭찬의 공덕은 나 자신도 1톤의 행복세상으로 들어 올린다.

다음 이야기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미국의 어느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흉악한 연쇄살인범이 있었다.

하루는 그 교도소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학박사가 재소자의 심리를 분석, 교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죄수들의 심리 및 아이큐 검사를 하러 왔다.

수백 명의 재소자를 대상으로 아이큐와 심리검사를 마친 박사는 지나가는 말로 그 연쇄살인범에게 말했다.

"자네 아이큐가 참 높더군."

그 한 마디가 그 흉악범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박사로부터 그 한 마디를 들은 흉악범은 한순간에 사기가 올라 최고의 모범수가 되었다. 그 덕에 형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가석방이 돼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하루는 박사 사무실에 혈색 좋은 중년남자 한 명이 찾아왔다. 그리고 박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 아시겠습니까?"

"……"

"그러실 겁니다. 저는 연쇄살인죄를 저지르고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자네 아이큐가 참 높더군'이라고 말씀해주신 그 한 마디로 제 생명을 건진 사람입니다. 그 말씀 한 마디에 삶의 의욕을 되찾아 열심히 복역해 모범수가 돼 더 일찍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박사는 중년남자를 알아보고 악수를 청했다.

1그램의 힘은 이토록 크다. 1그램도 안 된 박사의 작은 말 한 마디(기적의 미세정서)가 1톤보다 더 큰 힘이 되어 흉악한 연쇄살인범에게 새 삶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기적의 미세정서(1g1t의 원리), 지금 바로 내 자신에게 부터 적용해보자.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111호 현대불교
2016년 8월 24일 (7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우리 생활 떠나서 부처님 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신통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단 말을 하지 마라. 천안통을 한다 하더라도 한단 말을 하지 마라. 천이통을 한다 하더라도 한단 말을 하지 마라. 타심통을 한다 하더라도 한단 말을 하지 마라. 숙명통을 한다 하더라도 한단 말을 하지 마라." 하셨는데 이 뜻이 뭐냐? 듣고, 보고, 남의 속을 잘 알고, 남이 어디서 온 거를 알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하더라도 이건 도가 아니니라 하는 뜻입니다. 컵을 만들어서 컵을 들고 물을 뜨고 이런다 하더라도 이건 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물을 떴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다 이거지요.

보세요. 심안으로 본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심안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무효, 보이지 않는 데 오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무효, 어디서 온 거를 빤히 다 알아도, 남의 속을 다 알고 과거에 어디서 살다 어떻게 온 거를 알아도 무효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내가 먹을 수 없고 줄 수 없다면 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목이 마른데 물을 떠서 줄 수 없다면, 떠서 먹을 수 없다면 도가 아니니라 이런 소리예요. 컵을 들고 물을 뜨고 자시고 해도 먹을 줄 모른다면 도가 아니니라 이거지요. 갈증을 면할 수가 없으니까요. 먹지 못하면 갈증을 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주지 못하고 자기도 먹지 못하니 이건 무효다 이거지요. 아무리 물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가고 옴이 없이 물을 뜰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일 수 없고 먹을 수 없다면 이건 도가 아니고 무효니라.

여러분이 모두들 어떡하든지 그저 돈 벌어서 살 궁리만 하시는데…. "그럼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른 쉽게 말해서 '허! 너 먹을 게 지금 없잖아. 먹을 게 있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나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입도 빌리고 몸뚱이를 빌려서 다 심부름해 줄 뿐이지 너희들이 먹는 거니까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한 20년, 25년 전만 하더라도 큰 다라이가, 생철로 되지 않은 다라이가 상당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다라이 하나를 얻어야 할 텐데….' 하고 '이 집도, 다라이를 얻는 것도 모두 한울에서….' 하늘에서가 아니에요. '한마음 울에서 집도 한 거니까 다라이도 거기에서 해결해. 사람들이 각자 와서 모두 일하는데 다라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너 알아서 해.' 그래 버렸지요. 고것이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자기를 부리는 법이지마는 자기가 자기를 부려서 그렇게 해 왔다면 자기가 신장이 될 때입니다, 고 찰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신장이 됐다 부처가 됐다 산신이 됐다, 독성이 됐다 용신이 됐다가 지신이 됐다가 조왕이 됐다 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심안의 그 무심한 도리를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하하하….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학생들 시험 볼 때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내 한생각이라고 할 때…. '한'이 들어갈 때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 할 때도 '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주인공을 믿고 자기 주인공에다 맡기라고 하십시오. '네 심부름을 하려면 네가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거기 맡기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기의 영혼의 뿌리는, 바로 자기의 마음의 씨는 보이지도 않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마는 저런 나무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다는 것을 일러 주십시오. 알아야, 이해가 가야 자기를 진짜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친구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저 뿌리와 나무가 뿌리를 뗄래야 뗄 수 없고 나무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영혼의 근본 뿌리 자체가 바로 주인공이니까요. 생명의 근본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삼합이 한데 합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바로 주인공이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러고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오. 주인공! 합격되게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기복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해 가지곤 도저히 힘들어요. '너만이 할 수 있다!' 라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알아야 진짜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지금 누가 끌고 다니는데요? 자기 운전수가 없으면 차는 그냥 그만이에요. 한 부분만 고장이 나도, 파워를 일으켜도 자기 육신은 쓰러져요. 그런데 자기라고 그렇게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아니, 간장 공장만 파워를 일으켜도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이 자기라고 그럴 게 뭐 있느냐고요? 간장 공장만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 피 공장에서도 고장이 나면 백혈병이라 그럽디다. 그러니까 모든 병 자체가 바로 업식 속에서 파워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기 뿌리에서 흡수해서 나무로 올려 보내는 거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자기의 뿌리인 주인공에서만이 할 수 있죠. 병고도 그렇고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이 재료니까, 시험 합격 하는 것도 반드시 거기에 놓고 '너만이 합격하게 할 수가 있다. 합격하게 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네 심부름 하게 하려면 합격되게 해.' 하고 진실히 그렇게 믿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사람" 이러는 거는 "부처님" 이러는 거와 같아서, 전체 한데 합쳐진 것이 '사람'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가 있는 게 사람이 아니고 한데 모여서 형성된 형체를 바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침체해서 돌아가는 거라든가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잡아야 육체가 잡아지는 법입니다. 자식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부모자식지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달이 돼서 같이 의합하게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화목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몸을 잡는 법이니까요. 자기한테 가설이 돼 있으니 자기 스위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해 나가면서 도를 구합시다.

도를 구하는 건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가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기다가 맡겨서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켠다고 해서 거기다가만 그렇게 하고 말은 막 하고 막 악을 쓰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속을 북북 긁어 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관한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자식들이 나가서 자고 들어온다거나 공부를 안 한다거나 마구 딴짓을 한다거나 이런다고 "너 이놈의 새끼, 뭐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도로 뛰쳐나갈 수 있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맡겨 놓고 '이거는 모든 게 내 탓이로다. 상대방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낳고, 내가 인연을 맺었고, 또 부모로부터 내가 나와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 세

☞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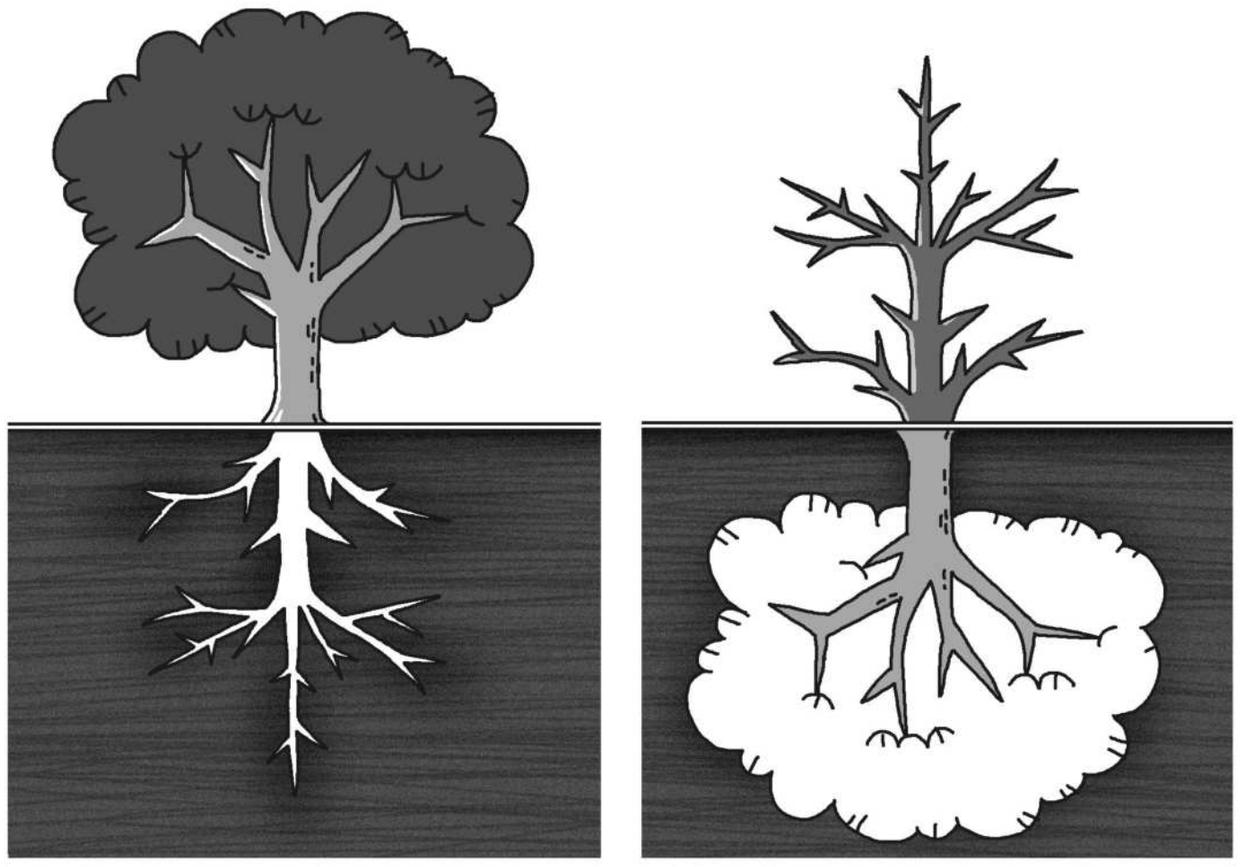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신 혼자 한 게 아닙니다!

☞ 25면에서 계속

상에 나왔으니까 나하고 부딪침이 있고 나하고 인연이 된 거지 내가 없는데 어찌 인연이 됐겠나. 그러니 모든 게 내 탓이로다.' 그러고선 '모두 저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자기한테 다 놓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면서, 부드러운 행을 해 주면서, 증오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마음속으로 그렇게 행한다면 그쪽까지도 불이 들어옴으로써 그쪽까지도 나한테 조건 없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화합심이 생기고 자식들도 그 마음이 바뀌어서 아주 출중한 효자 효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우리 생활 떠나서 부처님 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없이 부처님이 어디 있으며 불법이 어디 있으며, 생활이 없이 어떻게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란 부처님이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처고, 부처님도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이 절대적으로 같이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처님과 더불어 같이 마음을 한데 합한 것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처님이죠. 여러분도 부처님인데 자기의 몸속에 들어 있는 그 자생중생들을 다스리질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부처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거를 잘 다스려서 한군데서 나오는 거 한군데다 놓고 돌아간다면 바로 부처가 되고 법신이 되고 응신이 되고 보현이 되고 관세음이 되고 지장이 되고 칠성이 되고, 자동적으로 자유껏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이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먼저 큰스님을 모시고 질문드리게 됨을 제 자신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상 조금 의문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경계를 주인공에 믿고 놓으라고 항상 저희에게 가르치십니다. 저희는 사회에서 온갖 경쟁 속에 분초를 다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 입찰이나 공매 등 이권이 있을 적에 내가 이득을 취하면 상대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니 자리이타의 행위에 어긋날 수도 있으며, 주인공에 믿고 놓아 욕심을 내지 않자니 사회 활동에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수행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불법에 대하여 설하여 주십시오.

큰스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다 놓으라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욕심도 부려야 하는데 어떻게 다 놓겠습니까?" 하는 소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 몸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 하는 거냐.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몸속의 생명들을 끌어낸 겁니다. 보십시오. 혼자 한 겁니까? 심부름한 거지요. 돈을 버는 것도 그 생명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해서 너를 굶주리게 하는 것도 너고, 돈을 잘 벌어서 너를 잘 먹이게 하는 것도 너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기가 한 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실 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착하게 그냥 목석처럼 가만히 있어라." 이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되 함이 없이 해라. 네가 한 게 아니라 진짜 네가 한 거니라." 그랬죠? 네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니라. 그렇다면 개별적인 네가 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네가 한 거다 이 소립니다.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신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살 양으로, 혼자 먹으려고 혼자 누리려고 한 게 아니고 공동으로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하지 말고 '한마음 속의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나는 심부름만 이렇게 해 준다' 한다면 그렇게 남한테 아주 악의적으로 사기질을 안 해도 되고, 또 사기질 하지도 않을 것이요 또는 버리지도 않을 것이요, 잘 아주 규모 있게, 즉 말하자면 중도에서 잘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함이 없이 하시라' 이거지 '꼼짝 않고 목석처럼 가만히 있어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마음이 하는 거니까요.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마음이 하는 거니까 주인공이 하는 거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주인공이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이래도 알아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물을 먹으면서도 먹은 사이가 없다. 내가 혼자 먹은 사이가 없다, 여럿이 먹었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물 한 모금을 먹어도 혼자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럿이서 다 먹고 있죠, 지금. 그리고 여럿이만 먹습니까? 내가 먹어서 똥 누고 오줌 눈 거를 또 다들 먹고 또 내놔요. 내놓으면 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또다시 내려와서 또 먹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먹으면 나오고 나오면 서로 먹고, 서로 다 같이 먹습니다.

이 미묘한 도리를 알아서 챙긴다면 '모두 함이 없이, 내가 하는 바가 없이 하는 것이고 내가 심부름을 하는 것이고 관리인이고 집합소다. 난 집일 뿐이야. 그러니까 생명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이 망가져도 너희들이 고쳐. 너희들이 고쳐서 살아.' 이런 거나 한가지죠. '주인공! 너 알아서 해! 고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치에 닿나 안 닿나 좀 보세요. 우리가 이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데 만약에 집이 헐어졌다면 이 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고치지 집이 집을 고칩니까? 네? 자기네 몸뚱이가 자기네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체들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들어 있기 위해 형성을 시켰으니 고장이 나면 그 집에 들어 있는 자기 주인들이 고쳐야지 아니, 집이 집을 고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라 이런 소립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큰스님 그러니 벌이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하되 자기가 했단 말을 하지 말라 이거죠. 하하하….

질문자2(여) 큰스님, 감사한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데요, 안양 선원에 나간 지는 4개월 됐습니다. 근데 몸이 아파서 늘 고달프다가 요즈음은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여쭙고 싶은 거는 한 한 달쯤 전이에요. 선원에 나가려고 지하철역에 나갔는데요, 그때 갑자기 '아, 그렇다. 아, 당신이야! 정말 맞아!' 이렇게 하면서 자문자답을 했어요. 근데 그 후로부터는 그만 깜깜해요. 그건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요.

큰스님 수행의 길이, 즉 말하자면 시발점에서는 차를 타고 잘 갔는데 종점에서 내리니까 까맣더라 이런 거나 같죠. 그럼 다시 올라타야죠.

질문자2(여)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큰스님 하하하…. 그 깜깜하게 된 것도, 바로 그놈이 차를 타고 가다 내렸으니까 차를 또 되타고 본고장으로 오는 것도 바로 그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놈한테 다 맡기고 '어, 내리게 한 것도 그놈이고 다시 올라타게 하는 놈도 그놈이구나.' 이걸 아셔야죠.

질문자2(여) 네. 알겠습니다.

질문자3(남) 먼저 큰스님께 질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 마음 공부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 다 생각해 본 사항이기에 제가 오늘 스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실행을 해 볼 양으로 온갖 세상일에 한마음을 일으켜 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비가 그치도록, 태풍이 심하면 바람이 자도록, 가난한 이를 보면 복을 받도록, 병든 이를 보면 병이 낫도록, 한마음 공부 하는 사람이면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의치가 못합니다. 부처님이나 도인 스님의 마음 씀은 곧 법이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주처에 믿고 맡겨진 무심의 한생각으로 그런 법력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무엇이 부족하여 잘 되지 않는지,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그럽시다. 본래는 말입니다, 깨친 역대의 조사들이나 부처님들은 곳곳마다 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언젠가는 땅을 치고 울 때가 있고 하늘을 보고 기가 막혀서 웃을 때가 있을 겁니다. 다들 공부하시다 보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즉 말하자면 "마음을 공부해서 증득했다. 그런데 증득한 것도 없다." 이런 도리는, 마음은 체가 없어서 마음의 씨를 아무리 많이, 헤아릴 수 없이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가면 용신이 돼 버리고, 지금 부처님들 그 모두가 용신이 돼서 살고 있고 지신이 돼서 살고 있고, 각계각층의 곳곳마다, 혹성마다, 태양계도 그렇고 어디든 다 직결이 돼 있고 어디든 살고 있는 겁니다. 뜨겁다고 하는 혹성에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 한마음이 탁 일어났다 하면 그냥 내가 용신이기 때문에, 하하하…, 예를 들어서 우산을 받쳐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면 안 될 때에는 그 근방만 안 오게끔 우산을 받쳐 줄 수 있죠, 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도 그 무명을 벗겨 주는 데는 가다가 보고 들었으면 그냥 그냥입니다. '그거를 해 주시오' 뭐, 이러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대로 건져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나 돼지는 도살장에 끌려가서도 아픈 걸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명이 벗겨집니다. 왜냐? 그 의식을 빼냈기 때문이죠. 마취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진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무명을 벗겨 주는 것만이 아니라 무명을 벗겨 주었으면 사람으로, 사람으로 해 줬으면 아예 한마음 도리를 알게끔 해 주는 것이 옳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공부를 해라" 이러는 겁니다.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모두 "왜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느냐?" 이러죠. 그런데 자기가 해 준다고 하니까 안 되죠. 내가 여직껏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몸뚱이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해 준다' 가 있습니까. 나라는 게 간장 공장에도 있고 방광 공장에도 있고 척수 공장에도 있고 척추 공장에도 있고 심장 공장에도 있고 콩팥 공장에도 있고 식도 공장에도 있고 전부 공장마다 내가 있는데, 내가 했다고 '내가 이거는 꼭 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 줘야지.' 하니까 안 되죠. 한마음으로 들어 줘야 되는 건데 말입니다. 우주 전체가 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들고 있으니 그게 될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를 빼놓고 해라. 나를 빼고 더불어 같이 해야 된다. 나라는 게 있으면, 나 혼자 개별적으로 뭐를 하려면 절대로 되지가 않는다. 내 한마음이 듬뿍 들려야 우주간 법계에 한마음으로 되는 것이고, 산천초목도 전체가 한마음이 돼야만이 된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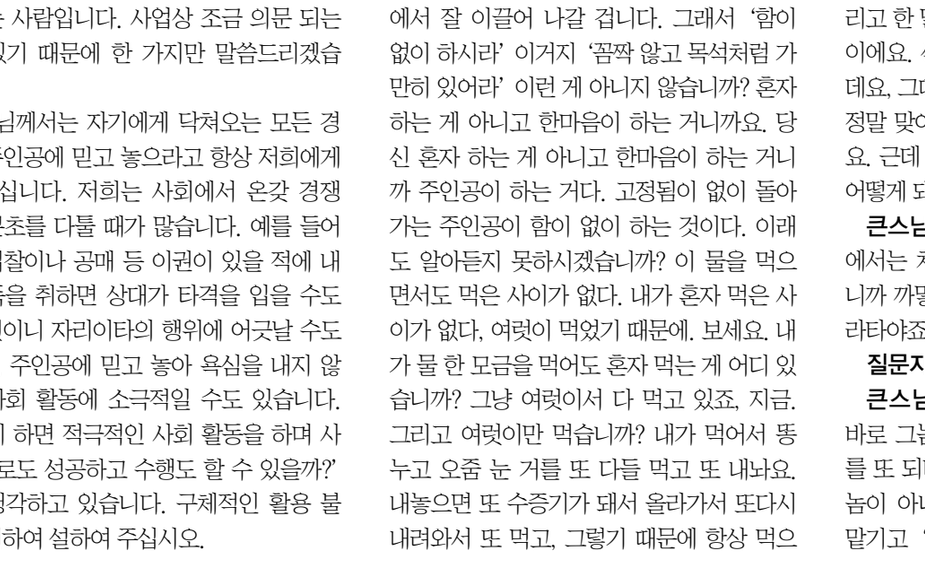
그럼 여러분과 약속할 것은요, 여러분이 진짜로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려면 아주 반드시 '마음은 체가 없구나. 마음이 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됐다 저게 됐다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알아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 빼놓고 내 몸 빼놓고 무슨 종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출중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는 병고가 없고 애고가 없고 그래야만이 나도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뭐, 기도한다고 집을 비우거나 해서 애들 밥을 지어 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남편 음식을 소홀히 생각한다거나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집안 가사를 잘못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정을 빼놓고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데 좀 더 너그럽고 화합해서, 또 애고가 없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 마음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자기한테 가설이 돼 있으니
자기 스위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해 나가면서 도(道)를 구합시다.

※위 법문은 1993년 8월 15일 광명선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청렴결백의 길, 불교계가 앞장서길



김형남 변호사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법조인 상당수의 예상을 깨고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

김영란법의 전체 5가지 쟁점 중 금품수수 가액의 대통령령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한 점과 사립학교 교원와 언론사 기자를 공직자에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필자도 관심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김영란법의 필요성이라는 현실 앞에 이 법의 존립에 손을 들어주었다. 헌재 결정 이후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제한범위를 완화시켜야한다는 얘기가 여야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김영란 법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사교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주는 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인정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음을 반증한다. 또한 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들은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김영란법이 정한 이상으로 엄격하게 금품수수 등을 제한받고 있다.

또 이미 많은 사기업들도 직무관련 식사대접 등 향응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임직원들의 관계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직무관련 향응접대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태도 때문에 삼성그룹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지 않는가?

언론사 또한 마찬가지다. 이미 몇몇 언론사에서는 자체 윤리강령을 만들어 향응대접을 규제하고 있다. 또 이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동료기자를 비판하고 대자보가 붙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같이 승차한 택시의 요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언론사의 기자들을 만날 때면 항상 좋은 기분으로 헤어지곤 한다.

필자가 제정된 김영란법을 꼼꼼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불교계에서 특히 걱정할 일은 없어 보인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차별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교리를 갖고 있는 불교계야 말로 이 법을 국민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때가 아닌 가 생각된다.

다만, 현 시행령 상의 직무관련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금품을 제한하는 것이 언론사, 특히 특수한 분야를 취급하는 언론의 경우에 큰 애로사항이 될 것 이다.

불교계 언론사의 경우 독자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취재원이 전국에 존재하고, 특히 심신 산골까지 찾아가야 할 일이 다반사이다. 거기까지 온 정성을 생각해서 여비라도 넉넉히 보태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벤츠 여검사 등을 보듯이 공직자 등의 얇은 유리판 같은 윤리의식에 테이프 하나 붙인 정도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지상정을 조금은 참기를 바란다. 정 고맙다면 충실히 취재한 언론사 기자를 생각해 좀 더 돈을 모아 광고를 실어 주자.

이외 불교계 공식행사에 모든 언론을 평등하게 취급하여 교통비,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가지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이 사회의 모든 성역을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라든가, 공무원 등의 직위를 이용한 청탁을 막을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앞으로도 거론될 것이다.

앞으로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많은 판례이론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회가 한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을 불교계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앞장서서 걷는 멋진 모습을 기대한다.

발언대

올 여름도 초복 · 중복 · 말복을 거치며 '개 식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8월 18일 열린 '2차 생명포럼 세미나'서 인간 의식의 성숙에 따라 개 식용도 점차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생명체가 느끼는 고통 공감 중요"



우희종 서울대 교수

최근 개식용의 식습관이 점차 혐오시 되며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개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종 접하는 개식용 찬성 논거는 우리 민족의 전통 식습관이다. 또는 개고기가 몸에 좋아서 환자들의 회복이나 원기 보충에 좋다는 이유 정도다. 경우에 따라선 '농장동물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왜 개식용만 반대하느냐'는 반응도 접하게 된다. 인류나 한반도 역사를 볼 때 기근 등의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극심한 심량 부족을 겪을 때가 많았고, 근대 산업화 이전엔 결코 식량이 풍부하지 못했다. 이처럼 기근 상황서 생존을 위한 개식용이라면 누구도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먹거리가 풍요로워져 만성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고기 식용을 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해 종교계나 정치권, 동물보건복지를 표방하는 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별로 없었다.

모피를 그토록 좋아하는 서구문화에서도 점차 모피를 입지 않는다. 또 스페인의 전통 스포츠이자 헤밍웨이가 그토록 좋아했다는 투우도 이제는 '동물학대'란 시각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과거 인류에겐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전통'이라며 고집하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게 보일 것인가. 인간 의식의 성숙에 따라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처럼 연동되어 변하는 것이고, 이제 개식용을 비롯한 육식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뤄질 시점에 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는 이미 먹거리가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서구식 과도한 영양상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시대나 환경이 바뀔 때 우리의 인식과 전통도 그에 걸맞게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개식용이나 육식 논란에서 무엇보다 강조해야할 것은 '생명체가 느끼는 고통에 대한 공감(Compassion)의 소중함'이다.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가 약육강식의 형태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자신의 생존이 다른 생명체의 희생에 의존하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포장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과정서 발생하는 고통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고통에 대한 인식과 인간 존중 의식의 확장에 따라 노예제도가 사라졌듯 생명과 고통에 대한 감수성의 확장은, 자연스레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며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반려동물인 개를 먹는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과의 공감능력이 가장 잘 이뤄지는 동물이 개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많은 부분 인간이 지닌 공감능력과 소통능력에 의한다.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소통능력이 우리사회를 풍요롭게 하며, 사람이 살만한 사회로 만든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 있다. 반려동물인 개마저 먹거리로 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삶에서 공감과 소통을 함께 할 대상 중의 하나를 갖지 못한단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비록 개보다는 인간과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농장동물'에 있어서도 생명의 고통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반려동물 식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언젠가는 농장동물의 희생을 방지하는 육식반대 움직임으로 확대 발전될 필요가 있다. 생명이 지닌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에 따른 점차적 육식 극복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제 지구 생태계의 일원인 인류는 그 공감능력을 지구 생태계로 확장할 때가 되었다. 동물을 단지 인간의 먹거리로만 생각하던 문화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동물로 이뤄진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社說

한국불교 신행 혁신 기대한다

조계종 포교원이 신임포교원장 취임 이후 5개월만에 새 포교비전을 공표했다. 바로 '신행혁신'과 '새 불자상 정립'이 그 것이다. 세간에 확대되고 있는 불자의식 고취 캠페인과 맥을 같이 한다.

포교원은 먼저 신행지침을 일선사찰에 전달하고 전법중심도량을 중심으로 신행혁신추진도량을 200곳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우려가 있지만 불자들의 신행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만은 뚜렷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불교, 특히 포교는 위기상황이다. 출가자 · 신도의 급감과 고령화, 군소 사찰 운영의 어려움 등 도처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위기 대책으로 불교의 최대 강점인 '수행의 종교'로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종책은 포교지도 구축이다. 포교지도는 현재 부서별로 정리해놓은 지역사찰 · 불교대학 · 법회 · 복지시설 · 명상센터 등 현황을 취합,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포교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활용된다. 또 대불련과 공동으로 '대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청년불자층의 신행을 지원한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각종 공모전과 대학 무료템플스테이를 활용한 신입생 확보도 나선다. 20~30대 신자 비중이 크게 줄어든 데에 대한 대책이다.

조계종은 신도멤버십 가입자가 지난해 기준 27만명에 불과했고, 교무금 납부도 20%대였다. 이는 그동안의 종책이 이벤트성에 머물렀음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포교원의 새 비전은 장기적인 종책집행이 절실하다. 포교와 전법만큼 불교에 중요한 것은 없다. 조계종 포교원의 새 비전에 맞춰 한국불교 신행문화, 그리고 포교전선에 새 바람이 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사찰 · 학계 공조, 문화재 환수 지름길

1988년 도난됐던 고성 옥천사 나한상 2점이 다시 돌아왔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것으로 총 7점의 도난 나한상 중 4점이 환수돼 이제 3점만이 남았다.

옥천사 나한상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사찰과 학계의 공조 노력이 있었다. 2014년 문화재를 은닉했던 사립박물관장이 체포됨으로서 나한상 2점이 환수됐지만, 5점의 행방이 묘연했던 상황에 결정적 증거가 지난 6월 18일 열린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나왔다.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등이 당시 학술대회에서 도난 중인 5점의 진본 사진을 학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 사진은 본지 보도를 통해 세간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사진은 조계종이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도 없는 것이었다. 사진이 공개되면서 나한상 찾기는 좀 더 용이해졌다. 사진 공개된지 25일만에 옥천사 측은 한 사립박물관 기획전에 도난 나한상 2점이 대여 · 전시됨을 알았고, 소장자는 무상 기증을 결정했다.

이번 사례가 중요한 것은 문화재 소장 사찰과 학계의 공조로 이뤄낸 문화재 환수의 선행 모델이기 때문이다. 옥천사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성보문화재 연구와 도난문화재 환수 등 상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본사가 아닌 단일 사찰에 연구소에서 소장 문화재에 대한 기초 연구를 위해 연구소와 협약을 맺는 것은 드문 사례다. 넉넉하지 않는 사찰 살림에서 쪼개고 쪼개 연구를 지원하고 학술대회를 연 것은 자명하다. 이런 원력과 노력이 성보를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 불교계는 알아야 한다. 관심과 노력이 도난당한 성보를 불교계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음을.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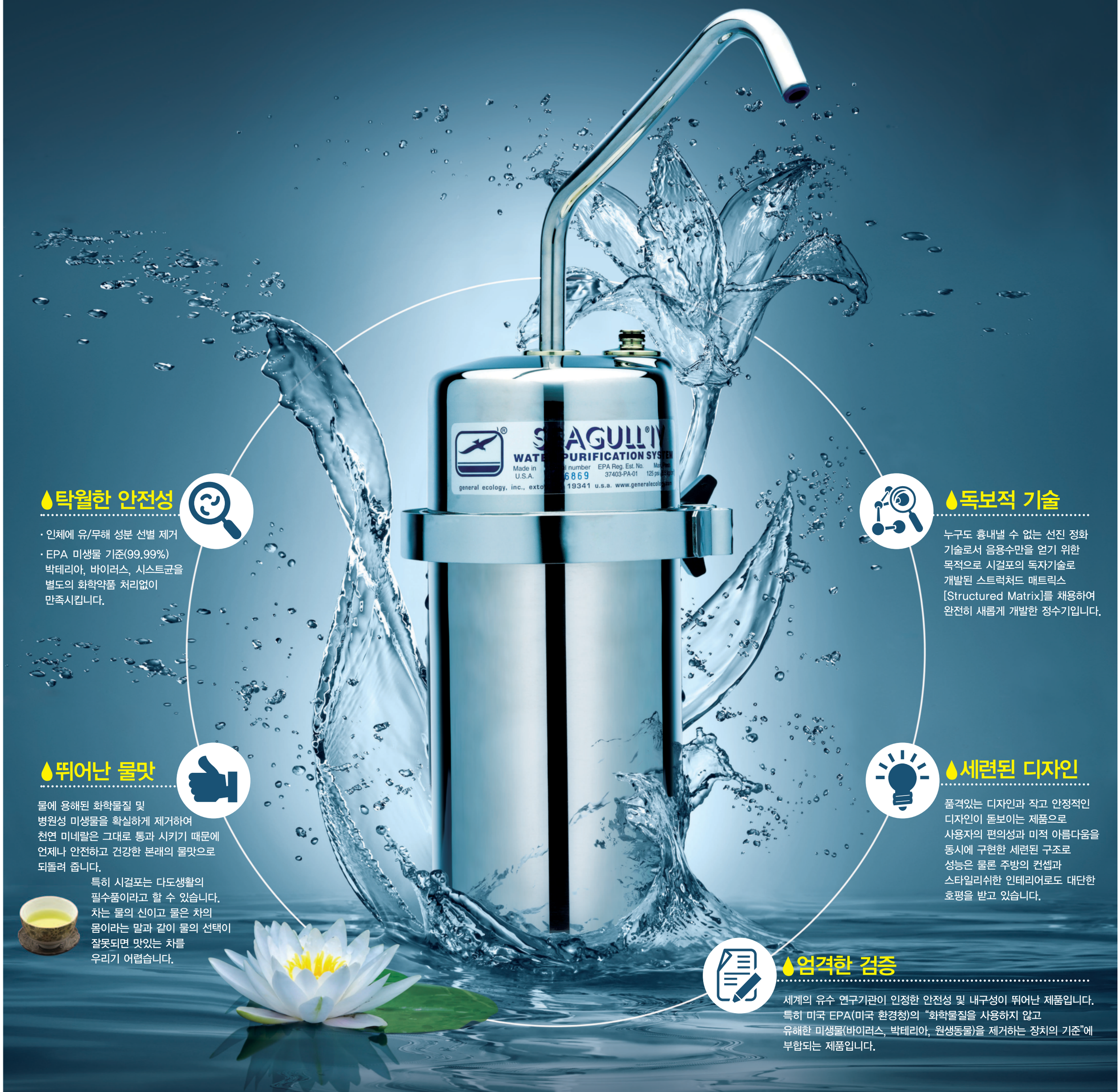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사찰의 감로수를 시걸포에서도 느끼세요!

시걸포는 인공적으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아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천연수로서
대자연에서 정화된 암반수와 같은 건강한 감로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탁월한 안전성

- 인체에 유/무해 성분 선별 제거
- EPA 미생물 기준(99.99%) 박테리아, 바이러스, 시스트균을 별도의 화학약품 처리없이 만족시킵니다.

독보적 기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선진 정화 기술로서 음용수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걸포의 독자기술로 개발된 스트럭처드 매트릭스 [Structured Matrix]를 채용하여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정수기입니다.

뛰어난 물맛

물에 용해된 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을 확실하게 제거하여 천연 미네랄은 그대로 통과 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한 본래의 물맛으로 되돌려 줍니다.

특히 시걸포는 다도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는 물의 신이고 물은 차의 몸이라는 말과 같이 물의 선택이 잘못되면 맛있는 차를 우리기 어렵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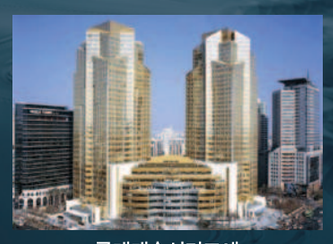
품격있는 디자인과 작고 안정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구현한 세련된 구조로 성능은 물론 주방의 컨셉과 스타일리쉬한 인테리어로도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엄격한 검증

세계의 유수 연구기관이 인정한 안전성 및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특히 미국 EPA(미국 환경청)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해한 미생물(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을 제거하는 장치의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는 시걸포 정수기


타워팰리스 1차, 2차, 3차에 설치된 시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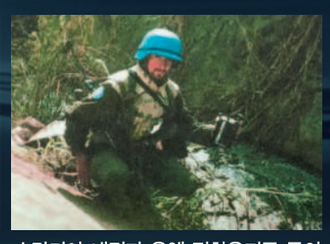

롯데캐슬시리즈에 설치된 시걸포


건대 시니어타운 외 다수에 설치된 시걸포


일류 요리사 및 특급 호텔을 매료시킨 시걸포



보잉사, 대한항공, 일본항공 등 수 많은 항공사가 선택한 시걸포


소말리아 내전과 유엔 평화유지군 등의 구호 활동에 사용된 시걸포

판매원 현대불교현불샵 |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 한국총판 (주)이앤알인터내셔널

제 품 문 의 상담 후 카다록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080-866-1080